

통권 제40호 | 2025

흥성문화



흥성문화원

문 | 화 | 비 | 전 | 선 | 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하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32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횡성문화』 통권 제40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횡성문화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횡성문화원이 걸어온 지역문화의 역사이자 군민과 함께한 발자취입니다. 그동안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횡성군민과 문화원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횡성문화』 통권 제40호를 통하여 횡성문화원은 지역사회, 향토문화 일선의 대표주자라는 자부심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횡성문화원을 아껴주시고 도움주신 많은 분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필자와 성실히 편집에 임해주신 편집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83년 ‘어사매’의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 통권 제40호, 『횡성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문화작품과 애乡심을 고취시키는 연구문 수록을 비롯하여, 횡성의 삶이 녹아 있는 사진들, 오늘날까지 수집되어온 방대한 자료는 횡성의 향토문화 발전에 근간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횡성의 삶이 녹아 있는 지나온 시간이 빚어 낸 기록 자료들은 그 자체로 미래를 향한 토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횡성의 문화는 더 깊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올해 횡성문화원은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4·1
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 산사음악회,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 한우축제
기간의 전통혼례(회혼례), 전통국악예술대공연, 관내·외 문화유적지 답사,
문화학교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넓히고,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처럼, 전통문화는 지역의 뿌리이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문화원은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전통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지역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대와 함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물어가는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횡성문화원장 **우 광 수**



황성문화 제4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성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황성문화원이 제40호 황성문화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 소중한 자료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시는 황성문화원 우광수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만 황성군민과 함께 황성문화 제40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황성은 보배로운 전통문화를 많이 간직하고 있으며, 이제 그 가치를 재조명하여 미래를 밝히는 주춧돌로 삼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황성문화는 이런 관점에서 황성이 간직한 주옥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보석같은 자료와 정보를 담아 군민의 정신세계를 고양시키고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황성인(人)으로 살아가는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주는데 중차대(重且大)한 역할을 수행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황성문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군민 인식 전환의 촉매제이자 기록문화의 보고(寶庫)가 되어 축적되고 전달되며 미래세대에 전해져 황성의 빛나는 유산으로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전국 각처에서 향토문화 연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의 가치 또한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지역문화의 근간을 문자로 남기고 새롭게 재조명함으로써 이를 문화 경제, 관광 등으로 확대 재생산하여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의 생명력이 유지되고 향상 발전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문화적 뿌리가 튼튼해야 성장 동력또한 강화됩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 사회가 심화할수록 지역의 경쟁력은 특성화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유산이 존재해야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황성은 잠재되어 있는 전통문화 유산들이 각지에 많이 분포돼 있으며

그러한 보배들을 하나씩 발굴하고 갈고 닦아 빛나게 할 시점입니다.

이 소중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이번에 발간되는 황성문화에 담을 것입니다.

또한 황성군민의 생활상은 물론, 문화예술, 황성문화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일에 대해서도 상세한 소개로 군민의 이해를 높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황성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향토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황성문화원은 향토사의 숨결인 황성군민 만세운동을 재조명하기 위한 4.1 만세운동 기념행사를 매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황성사람이 고이 간직하고 있는 정월대보름 문화를 행사를 통해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황성이 애국의 고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데 첨병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월대보름행사는 군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학교 운영과 사물놀이, 한국춤, 산사음악회 등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에도 지대한 역할을 해냅니다.

황성문화원은 황성시네마 영화관을 운영, 동시 개봉작들을 바로 관람객에게 선사하여 지역에서도 시대의 트렌드를 바로 반영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적기에 제공하며 문화 격차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해냅니다.

과거의 발자취를 기반으로 현재를 잇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황성문화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 내고 있으며, 군민들께서도 기꺼이 이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황성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욱 밝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25 황성문화 통권 제4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황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황성군수 김 명 기



지역의 숨결과 이야기를 담아온 『횡성문화』가 어느덧 제40호를 맞이함을 축하드립니다. 이 한 권의 책에는 오랜 시간 지역 문화를 지켜온 분들의 애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우광수 횡성문화원장님을 비롯한 횡성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을 발굴하고, 새로운 문화의 길을 만들어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는 지역의 품격을 결정짓는 힘이자,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삶의 흔적을 기록하고, 사라져가는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곧 우리의 뿌리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횡성문화』가 그 역할을 묵묵히 이어오며, 횡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소중한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40호 발간은 단순한 기록집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문화적 성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열정이 모여, 횡성의 문화적 자산이 더욱 단단히 다져지길 기대합니다.

횡성군의회도 지역의 문화가 생활 속에서 꽃피우고, 군민 모두가 문화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지역사회는 더 따뜻하고, 더 강한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이번 호가 우리 횡성의 정신을 담은 빛나는 기록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횡성문화』 통권 제40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귀한 뜻을 모아주신 우광수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료를 제공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횡성군의회 의장 표한상

Contents

문화비전선언문
발간사 | 문화원장
격려사 | 황성군수
축 사 | 황성군의장

I. 향토사의 숨결

- 012 ▶ 4.1 황성군민 만세운동 | 대동여자 중학교 교사 오 검
- 028 ▶ 태기왕의 흔적, 황성의병들의 이야기, 1919 황성의 외침
| 대동여자 중학교 교사 오 검

II. 문화유산

- 054 ▶ 성리학 심경(心經)의 마음 수양(修養) | 현원명

III. 황성사람, 황성이야기

- 086 ▶ 나의 지나온 길, 나아갈 길 | 민준식

IV. 문예마당

- 096 ▶ 크로아티아 여행기 | 이병곤
- 120 ▶ 철원 기행문-길을 걷다, 사람을 만나다, 나를 만나다. | 김은화
- 130 ▶ 2025 황성문화원 관외문화유적지 답사 | 김영배
- 162 ▶ 2025 황성문화원 해외 문화탐방 답사 - 베트남 사파 | 이행복
- 210 ▶ 문예창작반 | 시조
- 223 ▶ 네줄사랑, 그 아름다움 울림을 위하여 | 김성수

V. 문화사업실적

- 226 ▶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2025. 2. 11.(화)]
- 226 ▶ 4.1횡성군민만세운동 106주년 기념행사 [2025. 4. 1.(화)]
- 227 ▶ 2025 해외문화탐방
- 229 ▶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 1차 [2025. 6. 19.(목)]
- 230 ▶ 내 고장 문화유적지 탐방 [1차 : 2025. 6. 24.(화) / 2차 : 2025. 6. 27.(금)]
- 231 ▶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 [2025. 9. 4.(목)]
- 232 ▶ 제30회 강원특별자치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2025. 9. 11.(목)]
- 233 ▶ 향일의병 위령제 및 산사음악회[2025.9.20.(토)]
- 233 ▶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 2차 [2025. 9. 30.(화)]
- 235 ▶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 [2025. 10. 14.(화) ~ 10. 15.(수)]
- 236 ▶ 2025 횡성한우축제 : 전통국악한마당 [2025. 10. 23.(목)]
- 237 ▶ 2025 전통혼례(회혼례) [2025. 10. 25.(토)]
- 238 ▶ 전통국악예술대공연 [2025. 11. 11.(화)]
- 239 ▶ 2025 강원문화대축전 [2025. 11. 27.(목)]
- 240 ▶ 횡성문화원 비바색소폰 앙상블을 소개합니다.
- 243 ▶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2025. 3. 10. ~ 12. 5.]
- 248 ▶ 2025년도 작은영화관 운영



I
향토사의 숨결



4·1 횡성군민만세운동



오 겹
대동여자중학교
역사 교사

1) 1910년대 무단통치와 만세 운동의 촉발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일본인들은 일본 땅으로 물러가라!”

1919년 4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온 횡성을 뒤덮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3·1 독립 만세의 물결이 횡성까지 전파된 것이다. 그리고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2025년, 4·1 횡성군민만세운동 106주년을 맞아 그날의 함성과 횡성군민의 절규를 간략하게나마 조명하고자 한다.

1910년대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수난의 시대였다. 일본 제국(이하 일제)은 180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를 점령하고자 하는 야욕을 보였고, 마침내 1910년 8월 29일 우리 국권을 완전히 침탈하였다. 1910년부터 약 10년간 우리 민족은 일제의 무단통치(武斷統治) 아래 가혹한 식민 지배를 받았고, 식민 통치는 무려 36년간 이어졌다.

오늘날 광화문 자리에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고 일왕 직속의 조선 총독이 임명되었다. 조선 총독은 한반도에서 입법, 사법, 행정 및 군사권을 모두 행사하며 신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한반도 내 치안 유지 활동은 헌병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제 헌병은 즉결심판권과 태형(笞刑)을 집행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가졌다. 잘못하여 헌병의 눈에 띄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 모진 매를 맞아야 했다.

도 이하 군(郡)에는 헌병분견소가, 면(面)에는 헌병파견소가 설치되었다. 이곳에는 상당수의 헌병이 배치되었고 헌병을 보조하는 친일파 헌병보조원이 존재했다. 당시 황성 지역은 지방행정 조직상 군에 속했기에 헌병분견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황성 헌병분견소의 위치는 현재의 황성군청 뒤편 보훈 공원에서 3·1 공원으로 올라가는 언덕 인근이었다.

도를 넘어 시행된 경제 수탈도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요소였다. 일제는 식민 지배 이전부터 한반도의 쌀을 자국으로 대량 반출하였다. 그러니 국내 쌀값이 폭등할 것은 자명했다. 여기에 더해 국권 침탈 이후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해 우리 민족의 막대한 토지를 수탈하기에 이르렀다. 상당수의 한국인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민족의 삶이 피폐해지고 이에 따라 여론이 악화하다 못해 폭발할 것은 당연했다. 약 10년의 시간이 흘러 1919년, 우리 민족은 마침내 억눌렸던 분노를 분출하고야 말았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촉발되었다. 수십만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천지에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만세 운동은 약 1년 간의 시간 동안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2) 황성군민 만세운동, 황성시장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 만세 운동의 소식은 곧 황성 지역에도 전해졌다. 그리하여 황성 시가지에서도 1919년 3월 27일과 4월 1~2일에 걸쳐 대규모 만세 운동이 발생하였다.

황성 지역의 만세 운동은 주로 천도교 계열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강원도 유일의 천도교 대교구가 황성군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도교만 황성군민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던 것은 아니고 감리교, 유교 등 다른 종교와 일반 민중들도 힘을 보탰다. 여기에 더하여 학생들의

활동 또한 큰 힘이 되었다.

횡성군민 만세운동은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3·1 운동 중 가장 초기의 것이었으며 동시에 가장 조직적인 것이었다. 그렇기에 횡성군민 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아 횡성과 인접한 다른 지역 사회에서 연쇄적으로 만세 운동이 촉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강원도 내 독립 만세 운동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친 횡성군민 만세운동에 대하여 지금부터 3단계로 나누어 알아보려고 한다.

1단계: 횡성군민만세운동의 준비 단계

1919년 3월, 전국의 여느 지방처럼 횡성에도 수십만 명의 학생·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횡성에는 도내의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서의 3·1 운동 소식이 비교적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시 서울에서 활동하던 횡성 천도교회 출신 이동구(李東求)가 지속적으로 횡성과 연락하며 서울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동구는 당시 서울 천도교 본부에서 의사원(議事員)이라는 직책의 간부로 일하면서 3·1 운동의 전국 확산에 직접 관여하며 활약하고 있었다.

횡성 천도교 대교구장 최종하(崔宗河)는 서울에서의 3·1 운동 소식을 접한 뒤, 횡성군민들과 함께 거족적 만세 운동에 동참해야겠다는 뜻을 품었다. 이에 강달회(姜達會), 강만형(姜萬馨), 김인경(金麟卿), 신재근(申在根), 장도훈(張道勳) 등 횡성 천도교회 인사들과 함께 횡성군민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 강원도 천도교 대교구장 최종하(국가보훈부)

이들은 헌병의 감시를 피해 교회 사무실과 신재근의 집에 몰래 모여 만세 시위 준비를 위한 은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 ① 서울로부터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구해 온다.
- ② 횡성군민들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한다.
- ③ 횡성군민들이 시가지에 많이 모이는 날을 거사일로 정하여 만세 운동을 벌인다.

이들은 계획의 첫 단계로 서울에 가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구해 오는 일을 진행하였다. 중대한 임무를 맡은 인물은 장도훈이었다. 장도훈은 횡성 천도교회에서 마련해 준 3원을 가지고 서울로 향했다. 그가 서울로 도착하여 찾은 인물은 이동구였다. 이동구는 반갑게 그를 맞았고, 장도훈에게 큰 태극기 1폭, 창호지로 만든 태극기 20매, 독립선언서 40매를 넘겨주었다. 마침내 3월 11일, 장도훈은 서울에서 구한 물품들을 가지고 횡성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 장도훈의 생전 모습 (국사편찬위원회)

장도훈의 복귀 이후, 횡성에서의 독립 만세운동 계획은 급진전 되었다. 횡성 천도교회 인물들은 계속해서 신재근의 집에 모여 회의하는 한편 횡성 곳곳에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배포는 장도훈 복귀 다음 날인 3월

12일부터 약 10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3월 12일(음력 2월 11일)은 황성 장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가지에 많이 모여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기 좋았다.

한편 3월 16일 황성보통학교에서는 고종 황제의 죽음을 추모하는 뜻을 모아 학생들이 옷깃에 삼베로 만든 표식을 달고 등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일제의 억압적인 무단통치와 교육적 차별에 대한 항의의 시위이기도 했다. 일제는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에 감시를 강화하고자 당시 춘천에 주둔하고 있던 군 병력 일부를 황성 인근과 원주로 이동 배치하였다. 일본군의 경계가 강화됨에 따라 황성·원주 일대에는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독립 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삼엄해진 일제의 감시는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욱 신중히 만세 운동을 준비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황성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는 어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였다. 그것은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시위하는데 어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끄러운 마음에 의한 것이었다.

2단계 : 황성군민 만세운동의 전개

황성군민 만세운동은 3월 27일, 4월 1~2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중 4월 1일에 황성읍에서 발생한 만세 운동 규모가 가장 컸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황성에서 발생한 독립 만세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3월 27일의 만세 운동

황성보통학교 학생들의 고종 추모 운동 이후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만세 운동 준비 세력은 더욱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였다. 거사일은 3월 27일(음력 2월 26일)로 잡았다. 3월 27일은 황성 시장의 장날로, 황성 시가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었다. 거사 장소는 횡성 시장터였다.

거사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횡성 천도교회 인물들은 계속해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횡성 및 원주에 배포하는 한편, 가능한 많은 상인과 군중들을 포섭하고자 노력했다. 갑천면과 둔내면에는 김인경과 안경춘(安敬春)이, 원주 소초면에는 그곳 출신인 강만형이 나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3월 27일 거사 당일 아침, 당시 64세의 노인이었던 횡성 천도교회 신재근은 대형 태극기를 접어 소중히 가슴에 품고 횡성 시장터로 향하였다. 그리고 입구에서 22세의 청년 윤태환(尹泰煥)을 만나 대형 태극기를 건넸다. 이내 신재근과 윤태환을 포함한 만세 운동 지도자 12명이 모두 장터 안으로 들어왔다.



▲ 일제강점기 당시 횡성 시장터의 위치. 오늘날 사거리 로터리가 자리 잡고 있다.(독립기념관)

오전 11시경이 되자 횡성 시장에 모인 군중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오후 1시 무렵에는 모인 사람이 300여 명에 이르렀다. 상인들은 상점 문을 닫고 일제에

항의하는 철시 시위에 들어갔고 민중들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 시위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먼저 윤태환이 대형 태극기를 높이 들고 앞장섰다.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나머지 11명 또한 윤태환을 따라 선두에 섰다. 곧이어 신재근이 군중 앞으로 나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일제 헌병들이 몰려들었다. 횡성 헌병분견소에서 사전에 시위를 눈치채고 급히 원주에 연락하여 감시 태세를 강화하였던 것이다.



▲ 신재근의 생전 모습(국사편찬위원회)

헌병과 군인들은 곧바로 독립선언서 낭독을 저지하고 군중들을 해산하기 시작하였다. 기마경찰이 출동하여 군중 사이를 헤집으며 위협을 가했다.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결국 신재근은 독립선언서를 끝까지 낭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만세 운동 지도자들은 당황하기보다는 그 즉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횡성 시장에 모인 군중 300여 명도 이에 호응하여 일제히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횡성을 전체가 독립을 염원하는 만세 소리가 가득 차는 듯했다. 일제 헌병과 군인들은 군중들의 시위를 멈추기 위해 지도자들부터 먼저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결국 만세 운동 지도자 12명 중 8명(모두 천도교회 인물)이 체포되면서 3월 27

일의 만세 운동은 해산되었다. 3월 27일에 체포된 인물 8명 중 현재 판결 기록이 확인되는 사람은 총 5명이다. 일제는 이들에게 만세 시위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보안법을 적용하여 짧게는 6개월에서 2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신재근 징역 2년, 장도훈 징역 2년, 강만형 징역 8개월, 안경춘 징역 8개월, 윤태환 징역 6개월 등)

체포된 인물들에 대한 재판은 처음부터 매우 부당하게 진행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모진 고문을 받았고 변론의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했다. 심지어 상급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요구도 서류 심사 단계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신재근은 상고 과정 중 “나의 행위는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正義)·인도(人道)에 근거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3월 27일의 만세 운동은 어찌 보면 짧은 시간 내에 허무하게 끝났다. 그러나 이날의 만세 운동 소식은 곧 황성군 내 마을 곳곳에 퍼지게 되었고, 만세 운동이 더욱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② 4월 1~2일의 만세 운동

3월 27일의 만세 운동을 지도하였던 천도교 주요 인사들이 헌병에게 모진 고문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은 천도교 신자들은 크게 분노하였다. 이에 황성 천도교 대교구장 최종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만세 운동을 일으키자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먼저 황성 천도교회는 3월 27일 만세 운동의 실패 원인을 밝힘으로써 계획을 보완하고자 했다. 그들이 생각한 실패 원인은 다음과 같았다.

- ① 헌병 경찰과 일본군이 만세 시위가 벌어질 것을 사전에 예측하였다.
- ② 만세 운동의 참여한 민중 규모가 생각보다 적었다.
- ③ 만세 운동의 주도 세력이 완전히 통합되지 못했다.

이에 횡성 천도교회는 헌병 경찰과 일본군에 발각되지 않게 더욱 은밀히 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한편 만세 군중을 동원하기 위해 활동 범위를 넓혔다. 또한 만세 운동 주도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횡성 감리교회의 지도자 정해경(鄭海璟), 탁영재(卓英才) 등에게 긴밀히 연락을 취해 연대를 강화했다.

만세 운동 지도자들은 횡성 우천면, 안흥면, 갑천면부터 원주 소초면 둔둔리까지 사흘 밤낮 동안 산과 하천을 넘어 다니며 있는 힘을 다해 만세 운동 계획을 알렸다. 어떤 곳에서는“이번 4월 1일 장날에 구경거리가 많다.”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넣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하였다.

다음 거사일은 4월 1일(음력 3월 1일)로 정하였는데, 이날 역시 3월 27일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횡성 장날이었다.

그리하여 4월 1일 횡성 장날, 아침 일찍부터 비장한 표정의 사람들이 횡성 시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얼굴 땀면에는 그동안의 나라 잃은 슬픔, 10년가량 이어진 억압으로 인한 고통, 차별에 대한 분노 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제는 이날 약 1,000~1,300명의 군중이 횡성 장터에 모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제는 의도적으로 만세 운동 규모를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군중이 모였을 것이다. 또한 시장에는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 외에 장사꾼들이나 구경꾼들도 있었을 테니, 4월 1일 시장에 모인 사람들의 총규모는 수천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찌하였든 시장에 모인 사람들은 오전부터 시장 거리에서 삼삼오오 모여 만세 운동에 관해 논의하기도 하였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독립운동의 정당성에 관해 토론하기도 했다. 횡성 한치고개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황소 아줌마 김순이는 술판에 어울리며 만세 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서울의 3·1 운동에 참여한 이후 고향으로 돌아왔던 최양옥(崔養玉)도 군중 속으로 합류하였다. 시장에 들어오는 길목과 장터의 곳곳에는 천도교회 인사들이 배치되어 이날의

계획을 은밀히 군중들에게 설명하였다.

군중들은 오후 시간대가 되기를 기다렸다. 오후가 되고 시위 도중 해가 지면, 일제 헌병과 군인들이 진압 작전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만세 운동의 분위기는 고조되어 갔다. 오후 4시경, 군중들은 그동안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해 왔던 일제 헌병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손에 서까래, 장작, 곤봉 등을 집어 들기 시작했다. 시장에서 쌀 가게를 하던 조홍렬은 집을 고치려고 마련해 두었던 나무를 잘라서 군중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시장의 상인들까지 시위에 참여하여 자진해서 상점과 술집 문을 닫고 장사를 거부했다.

드디어 1,300여 명이 넘는 군중들이 집결하였을 때, 누군가 큰 목소리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연이어 만세 소리가 군중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며 순식간에 온 황성 읍내의 하늘과 땅을 뒤덮었다. 시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시위대는 이내 황성 시장을 벗어나 황성군청 쪽으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 4·1 만세 운동 당시 군중들의 이동 경로 (일러스트레이터 배시연)

성난 군중들에 의해 당시 헌병보조원 감독으로 일하며 같은 민족을 괴롭혔던 이규화는 매를 맞고 혈레벌떡 도망쳤다. 엄청난 시위대의 행진에 기마경찰 고지마(小島)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마음이 급해진 그는 군중 사이를 헤집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자 말을 달렸다. 군중들은 “저놈 죽여라!”라고 소리쳤고, 이에 최동수(崔東壽)가 말 위에 직접 뛰어올라 고지마를 끌어내렸다. 군중들은 그를 때려눕히고는 실컷 매타작하였다.

그렇게 시위대가 황성군청 앞에서 계속하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총소리가 연거푸 울려 퍼졌다.

‘탕! 탕! 탕!’

이미 황성 시장에서부터 시위대의 움직임이 주시하며 군청 뒷산에 잠복해 있던 일제 헌병과 군인들이 총을 쏘기 시작한 것이었다. 총소리에 두려움을 느껴 멈칫하거나 도망치는 사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10년 동안 쌓인 우리 민족의 분노와 울분을 그깟 총알 몇 발로 멈출 수는 없었다. 잠시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하여 재집결하기 시작했다. 황소 아줌마 김순이는 총소리에 놀라 도망 온 몇몇 남정네들을 꾸짖어 다시 시위대로 되돌려 보냈다.

군중들이 다시 집결하여 목이 터져라 만세 소리를 외쳤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해가 넘어가고 날이 어둑해져 갔다. 이제 시위대의 목표는 황성군청 뒤에 위치하였던 헌병분견소였다. 그동안 자신들을 억압하였던 일제 헌병들과 친일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시위대의 발걸음이 헌병분견소로 향하자, 아직 뒷산에 잠복해 있었던 헌병과 일본군은 다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날이 어두워지니 헌병과 일본군 입장에선 오히려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기 좋았다. 누가 총을 쏘았는지 책임 소재를 찾기 어려웠을 테니 말이다.

헌병과 일본군이 쏜 총에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오늘날 횡성군의회 앞 느티나무 자리 부근에서 강달회, 강성순, 전한국, 하영현 등 4명이 총에 맞아 즉사하였고, 김치정은 중상을 입고 집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 그 외에도 수십 명의 사람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 4·1 만세 운동 당시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재연한 것.(일러스트레이터 백지우)

군중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일제 헌병과 군인들이 뒷산에서 내려와 만세 운동 지도자들과 참가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해산되었고 군중들은 울음을 삼키며 집으로 도망가야만 했다. 사망한 4구의 시신은 거적때기로 대충 덮인 채 버려져 있었는데, 그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이웃들이 수습할 수 있었다.

4월 2일 날이 새자, 200여 명의 군중들이 다시 헌병분전소로 몰려갔다. 군중들은 독립운동을 허가할 것과 전날 시위에서 체포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요

구했다. 그러나 헌병분견소장은 강압적인 태도로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군 중들은 자신들도 체포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했다.

4월 2일에 황성분견소로 찾아가 항의한 사람들은 대부분 황성 시장의 상인들이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한 일제 헌병에 저항하는 의미로 그날부터 상점의 문을 열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4월 2일부터 7일까지 상점 문을 닫는 철시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의 철시 시위는 4월 7일 황성군수와 헌병분견소장이 제발 상점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고 나서야 중단되었다.

황성군민 만세운동 과정 중 수많은 사람들이 헌병에 붙잡혔다. 시위 도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도 있었고, 4월 2일부터 이루어진 헌병의 대대적인 조사로 발각되어 끌려간 사람도 많았다. 체포된 대다수의 사람에게 헌병은 태형을 부과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어떤 경우는 즉결 처분 최대형인 90대의 태형을 맞고 크게 다쳐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만세 운동의 주도자들은 모진 고문을 받은 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황성 감리교회 지도자인 정해경이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황성 천도교 대교구장 최종하 역시 체포되어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황소 아줌마 김순이도 3개월간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이때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인물들은 이후에도 일제의 철저한 감시와 괴롭힘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결국 고향을 떠나기도 하였다.

3단계: 황성군민 만세운동의 도내 확산-원주시 소초면과 평창군의 만세 운동

황성군민 만세운동은 총, 칼을 앞세운 일제 헌병과 군대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 이 과정 중에서 소중한 생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지만, 그들의 희생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다. 황성에서의 만세운동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변 지역에서도 연쇄적으로 독립 만세운동이 발생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황성

과 인접한 원주 소초면과 평창군에서 횡성군민 만세운동의 영향을 받아 독립 만세운동이 발생했다.

소초면은 지방행정 조직상으로는 1919년 당시에도, 그리고 현재도 원주에 속하지만 횡성 시가지와의 거리가 가까워 횡성읍과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3월 27일과 4월 1~2일 사이에 발생한 횡성군민 만세운동에 다수의 소초면 주민이 참여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소초면 둔둔리 출신의 강달회와 하영현이었다.

강달회는 3월 27일 횡성 만세 운동 때부터 적극적으로 시위를 주도하였고 4월 1일의 대규모 만세 시위에도 참여하였다. 하영현 역시 4월 1일 만세 운동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은 안타깝게도 4월 1일 밤, 나란히 일제 헌병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다.

횡성읍의 만세 운동이 진압된 이후, 소초면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만세 운동 움직임이 일어났다. 강달회와 하영현의 뜻을 이어 만세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이들은 강달회와 하영현의 삼일장이 끝나는 날에 맞추어 만세 운동을 일으키고자 했다. 이에 장례를 치르는 내내 비밀리에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였다.

4월 5일, 수백 명의 소초면 주민들이 소초면사무소 앞에 모였다. 주민들은 친일과 면장을 끌어내 분노를 표출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소초면에서 발생한 만세 운동 소식을 뒤늦게 들은 일제는 헌병을 파견하여 주도자들을 색출하였다. 많은 이들이 태형을 맞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평창군의 만세 운동은 횡성 천도교회가 평창에 독립선언서를 전해주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평창군에서는 천도교 계열과 유학자 계열 두 세력이 각자 만세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횡성 천도교회에서 평창 천도교회에 연락을 취한 것이었다.

이후 평창의 천도교 계열과 유학자 계열은 힘을 합쳐 4월 4~5일 평창 장날에

맞춰 만세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4월 3일에 이르러서는 태극기를 만드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3일 밤, 첩보를 접수한 일제 관리들이 주동자들의 거처를 기습함에 따라 만세 운동 지도자들은 체포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정으로 결국 평창군의 독립 만세 운동은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실패하고 말았다.

3) 4·1 횡성군민 만세운동의 의미

지금까지 4·1 횡성군민 만세운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만세 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영향을 알아보았다. 4·1 횡성군민 만세운동은 비록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에 진압되었지만, 그것이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먼저 횡성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한 만세 운동의 열기에 일제는 화들짝 놀랐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내 일제는 강압적인 무단통치 방식을 한계를 느꼈고, 1920년대에 들어서는 소위 ‘문화통치(文化統治)’라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였다. 횡성군민 만세운동을 비롯한 3·1 만세 운동은 분명 일제에 우리 한국인의 저력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둘째로 만세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3·1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였음에도 실패하였던 가장 큰 원인은 평화적 시위에 대하여 총·칼을 들이민 일제의 탄압에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을 이끄는 통합 정부가 존재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그리하여 3·1 운동 이후 민족지도자들은 산발적으로 존재하였던 정부들을 합쳐 단 하나의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자 했다. 그렇게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탄생하였다.

마지막으로 3·1 운동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제의 강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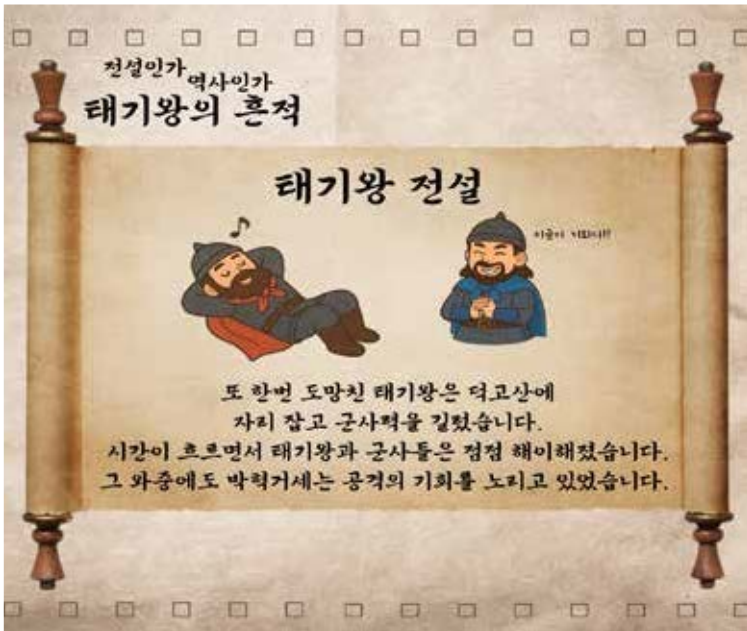
인 식민 지배에 대해 결코 한국인들이 순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린 계기가 된 것이다. 더불어 중국에서는 3·1 운동의 영향을 받아 5·4 운동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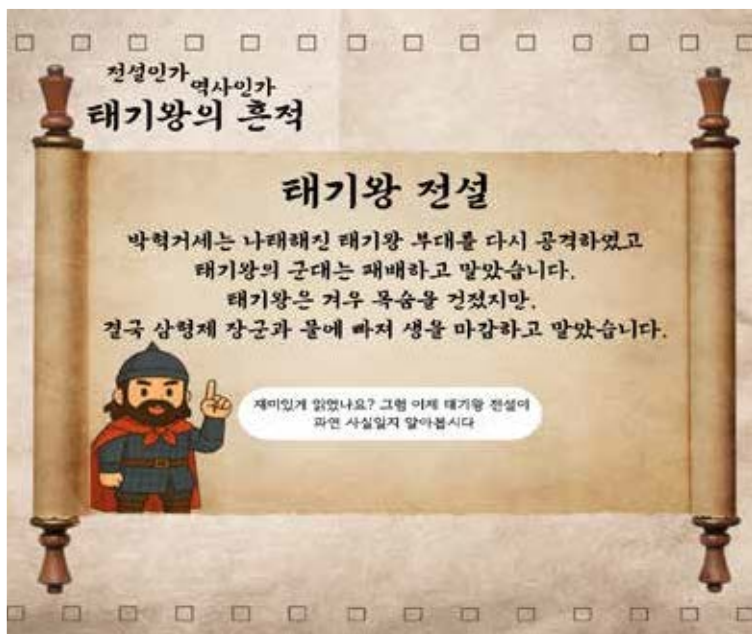
우리 선조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개와 의지를 잃지 않았다. 특히 황성인들의 활약은 대단했고, 황성군민 만세운동은 주변 지역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황성에 사는 우리는 황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다. 황성군민 만세운동 106주년을 맞아 순국하신 선열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전설인가 역사인가
태기왕의 흔적

2. 태기왕은 진한의 왕이 아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AD

황성처럼 태기산을 접하고 있는 평창에도 태기왕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전설에 따르면 태기왕은 진한이 아닌 '**예맥**'의 왕으로 전해집니다.
둘 중 무엇이 사실일까요?

역사학자들은 둘 다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설인가 역사인가
태기왕의 흔적

3. 애초에 황성은 진한이 아니다?



네! 삼한시대 당시 황성은 **한반도 남방 계열**로 구분됩니다.
이 지역은 **마한**의 영역으로
황성 역시 마한 계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기왕이 '진한'의 마지막 왕이었던 내용은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전설인가
역사인가
태기왕의 흔적

4.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운게 아니다?



당시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는 **사로국**이었습니다.
신라라는 나라 이름이 처음 사용된 시기는 사로국 건국 후 500여년이 지난 지증왕 시기였죠.

따라서 '**신라**'의 박혁거세가 공격했다는 전설의 내용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신라가 세운 나라는 '사로국'이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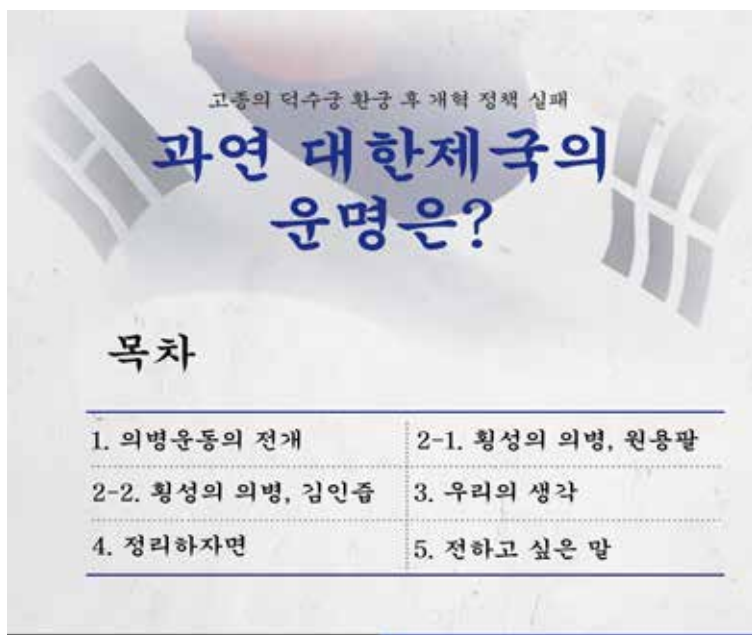
태기왕 전설에 대한 우리의 생각

첫째,

태기왕 전설은 실제 역사 기록이라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 **기억 속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태기왕 전설은 정확한 사실보단 민간 전승으로서 고대 사회의 정치 상황이나 갈등 구조를 간접적으로 알수있는 자료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태기왕 전설은 사실이라기 보다 전설로서 더 빛나는 이야기입니다."





01

1904 러·일전쟁 을사의병 전개 을사의병 특징

한반도 내 러시아와 일본 갈등 심화
러·일전쟁 발발(1904)

일본의 승리

러시아 내 사회주의 혁명,
일본의 전쟁 장기화의 부담감
↓
양국의 타협
↓
일본의 명목상 승리

02

1904 러·일전쟁 을사의병 전개 을사의병 특징

 한반도 내 일본 지위 확대

 이토히로부미 파견
for 을사늑약

 1905.11.17 을사늑약 체결
(by 을사오적)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 한국 정치 간섭

03

1904 러·일전쟁

을사의병 전개

을사의병 특징

을사의병의 특징

- 지도층 및 계층: 양반, 유생 + 평민
- 규모: 전국적
- 대표적 인물: 최익현, 신돌석



최익현



신돌석

04

한편 1905년, 을사의병 봉기 시기에
 황성 지역에서도
 활발한 의병 운동이 발생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원용팔

05

을사의병 이전 원용팔의 활약

- 을미의병 당시 여주 심상희 의병부대 **후군장**
- 제천 유인석 의병 부대 합류, **중군장** 직책
- 의병 해산 권고 조치 후 낙향

06

1905년 07월

원용팔은 다시 횡성·원주·영월 등지에서 **의병** 봉기를 일으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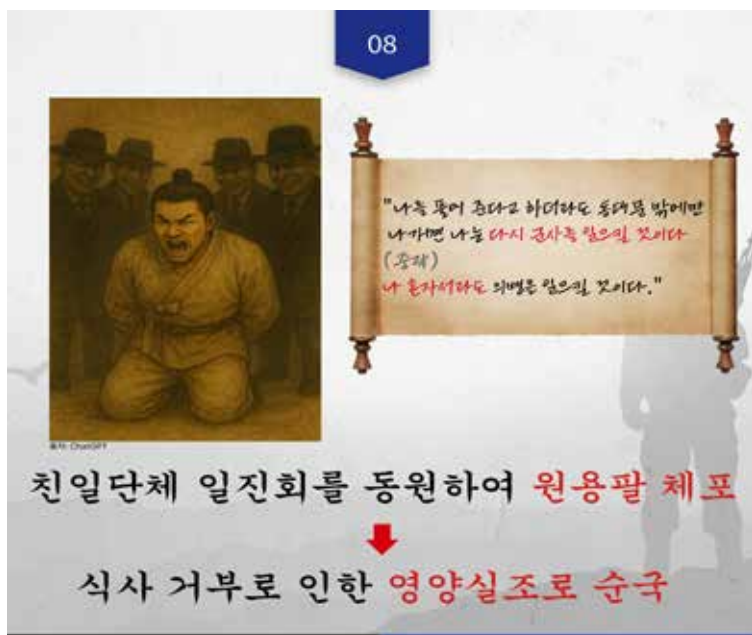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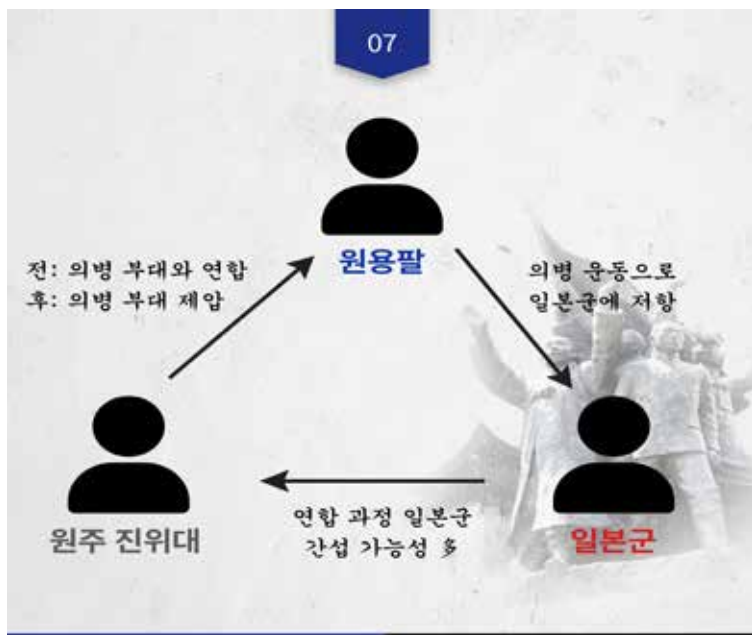
1905년 09월

각지에 **격문** 발송

1905년 10월

의병 부대 병력 **1천 여 명** 소집





09

목숨을 건 상소 운동
횡성 출신의

김인준



출처: Chalgil

10

1905년 11월 27일

을사늑약에 대한 상소문을 들고
동지들과 덕수궁 대한문으로 향함

을사늑약 파기, 을사오적 처형 요구 시위



출처: 제1회11월 국동유적전시회

11

목숨을 건 시위

일본 헌병 경찰대의 진압 작전 개시
김인준과 시위대는 돌을 던지며 저항
긴 저항 끝에 체포



출처: Olanoff

12

의병 운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

황성은 각 지역의 의병운동을 **선정하는** 역할을
했기, 중요한 사건들에서 옛 황성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므로
황성에서의 의병 운동은 기억되어야 한다

원용팔씨가 수감중에도 저항을 지키는 모습은
당시 일본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려는 의지가 느껴지므로
우리가 존경할만한 인물이라고 생각된다

술약독약 체절 후 분노해 시위를 한 김인준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의병분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3

횡성은 분명 의병 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다.
 뜻을 지키다 의병을 일으키고 순국한 원용팔 의사.
 분개해 상소 시위를 벌인 김인준 열사.
 그리고 이름조차 남지 못한 수많은 의병들의 **희생**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의병분들이 **우리의 어제**를 지켜내었습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내일을 가지 있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

횡성 군민 만세 운동

1919, 횡성의 외침

대동여중

3305 김유경

3307 서민경

3309 양가윤

3318 정은후

3319 조단비

지도 교사: 오경

이 | 3·1운동의 시작과 의미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대한독립 만세!” 외침이
한반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오늘날 이를 3·1 운동이라 부른다.



사진
「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당시의 3·1 운동 모습들

02 일제의 식민 통치 배경



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경술국치로 국권을 잃고 1945년까지 일제의 강압적 지배를 받게 되었다.



무단통치

1910년대 일제의 통치는 무단통치라 불리며, 한국인들에게 군대식 강압과 폭력을 동원해 억압을 가했다.



억압정책

일제는 한국인의 기를 꺾고 길들이기 위해 강압적 정책과 통제 수단을 계속 시행했다.

→ 이러한 억압 속에서 우리 민족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3·1 운동을 준비하고 거세게 저항하게 되었다.

1919, 황성의 외침

03 조선, 일본의 식민지 되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모습



당시 일본 헌병들의 모습

1910년 경술국치를 기점으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은 무력을 앞세운 **무단통치**를 시작했다.

조선총독부가 설치되고 입법권, 행정권, 군사권을 모두 박탈 당했다. 조선인은 자유를 빼앗기고, 일제의 폭압적 지배 아래 놓였다.

사진
KBS1 역사저널 그날,
「선생님이 들려주는 황성 역사」

04 일제의 경제 수탈

일제는 1911년 **‘조선교육령’**으로
한국인의 교육을 차별했다.

교내에서 교원들은 제복을 입고 큰 칼을 차고 다니며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또한 역사 교육을 금지하여
민족 정체성을 억압했다.



학교 교원들이 군인처럼 제복 및 칼을 착용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소지농의 불우한 생활 모습

1912~1918년 **토지조사사업**으로
농민들의 토지와 경작권을 빼앗아
자작농은 몰락하고 소작농이 급증했다.

1910년엔 **회사령**으로
한국인 기업 설립을 제한하여
민족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사진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05 일제의 비인간적 통치

일제는 헌병과 경찰을 통해
한국인들을 군대식으로 감압 통치했다.

헌병은 범죄즉결례와 조선태형령을 근거로
한국인에게 재판 없이 **즉결 심판**과
폭력적 형벌을 집행했다.

횡성 지역 역시 제외는 아니었다.



태형을 집행하는 모습



횡성 헌병분견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장소의 현재 모습
(보충 공원 주차장에서 3-1 공원으로 올라가는 언덕길)

횡성 지역에는
헌병분견소와 **헌병파견소**가 설치되어
군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사진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황성군민 만세운동 카드 뉴스

06

서울의 함성, 황성으로 번지다

01

독립 만세 운동 준비

1918~1919년,
종교계와 학생들이 힘을 모아
독립 운동을 준비했다.

02

3·1만세 운동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 선언과 함께
대규모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03

확산

만세운동은 전국과 해외로 번져,
3월 말 ~ 4월초
황성군민 만세운동으로 이어졌다.

1919, 황성의 외침

07

황성, 거사의 첫 걸음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 만세 운동의 소식이 황성에도 전해졌다.
이때 최중하를 비롯한 황성 천도교인들은 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1919, 황성의 외침

08 | 3월 27일의 만세 운동



당시 만세 운동을 벌였던 횡성 장터의 현재 모습

1919년 3월 27일 횡성 장터에서
태극기를 들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만세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일본 헌병들의 탄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사진
「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

09 | 다시 시작된 만세 운동

횡성 천도교인이 생각한 실패 원인

1. 헌병 경찰과 일본군이 만세 시위가 벌어질 것을 사전에 예측하였다.
2. 만세 운동의 참여한 민중 규모가 생각보다 적었다.
3. 만세 운동의 주도 세력이 완전히 통합되지 못했다.

최종하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만세 운동의 계획이 추진되었다.

3월 27일 거사의 실패 원인을 밝히고
계획을 보완하여,
4월 1일 장날을 다시 한 번 거사일로 지정하였다.

최종하의 생전 모습



사진
「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

10

4월 1일, 그날의 외침



시위대의 이동 경로



4월 1일 많은 사람들이 순국했던 장소의 현재 모습
(횡성군의회의 앞 노면차량)

1919년 4월 1일 시위대는 장터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횡성 군청으로 행진하였다.

하지만 잠복 중이던 일제 헌병과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연거푸 총을 쏘기 시작하며 군중들은 속속이 체포 되고 쓰러져갔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쳤다.

이튿날 군중들은 지난날 체포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모두 묵살 당하였고, 이것은 4월 7일까지의 철시 시위로 이어졌다.

사진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11

4월 12일, 서원면 분일리의 만세 운동

김옥봉의 생전 모습

근처 지역의 만세 운동 소식을 접한
송병기, 김옥봉 등은 이웃들과 함께
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서원면 분일리 주민들이 만세를 외친 동산

4월 12일
서원면 분일리의 주민 50여 명은
마을의 작은 동산에 올라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사진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12

횡성 만세 운동의 나비 효과



원주시 소초면 만세 운동 시작에 영향을 끼친
강달회의 묘소



횡성 만세 운동의 소식이 더욱 더 널리 알려지며
횡성만이 아닌 주변 도내 지역에서도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원주시 소초면의 청년층이 중심이었던 독자적인 만세 운동과
평창군의 만세 운동 계획이 있다.

사진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13

일제의 강압 속에서도 빛난 조선인의 끈기와 노력

일본은 우리의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주권을
무력으로 빼앗았다.

횡성 군민을 포함한
우리의 조상들
자유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였다.

.....

그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존경할
필요가 있다.

1919, 횡성의 외침

14

횡성군민 만세운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

1919년 횡성군민들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며 자유를 외쳤다.
하지만 그 외침은 일제 헌병의 탄압과 체포로 이어졌다.
비록 이 거사는 강제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용기는 헛되지 않았다.**

이 작은 불씨는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가
**또 다른 독립 만세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다.

우리 조상들의 희생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1919, 횡성의 외침

15

마무리

**" 횡성의 역사는
독립을 향한 외침에서 시작해,
전쟁의 아픔과
산업화의 변화를 지나
오늘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저항과 변화,
그리고 계속되는 도전이
곧 **횡성의 정신**입니다. "**

참고 문헌

* 선생님이 들려주는 횡성 역사 *



II 문화유산



성리학 심경(心經)의 마음 수양(修養)



현 원 명
황성문화원 이사

1. 들어가는 말

심경(心經)은 송나라 학자 진덕수가 경전과 도학자들의 저술에서 심성 수양에 관한 격언을 모아 1234년에 편찬한 수양서이다. 사서삼경과 『예기』 악기편에서 뽑은 29장의 경전 내용과 주돈이·정이·주희 등의 글 7편이 실려있고, 여기에 진덕수가 송나라 유학자들의 논의들을 붙여서 주석으로 삼고 자신의 「심경찬」 1편을 덧붙여 총 37장이다. 우리나라에는 중종 말 명종초에 김안국에 의해 전해졌는데, 이황은 초학자가 공부하는 자리에서 이보다 더 절실한 책은 없다고 심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행합일(知行合一) 양명학에서는 알고 태어났으니 실행하라! 선지후행(先知後行) 성리학에선 제대로 알고나서 실천하라는 것으로 심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심경의 수록된 내용은 먼저 경전에서 뽑은 것으로 『서경』(1장)·『시경』(2장)·『역경』(5장)·『논어』(2장)·『중용』(2장)·『대학』(2장)·『예기』악기(樂記)편(3장)·『맹자』(12장)의 29장이 실려있고, 다음에 송나라 도학자들의 글로는 주돈이(周敦頤)의 「양심설(養心說)」과 『통서(通書)」·「성가학장(聖可學章)」, 정이(程頤)의 「사잠(四箴)」, 범준(范浚)의 「심잠(心

箴)」, 주희(朱熹)주3의 「경재잠(敬齋箴)」·「구방심재잠(求放心齋箴)」·「존덕성재잠(尊德性齋箴)」으로 7편이 실려있다.

진덕수는 「심경찬」에서 인심도심장의 글, 곧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전해 준 16자의 말씀(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를 따르는 마음은 지극히 희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 그 중용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은 만세토록 전해오는 심학(心學 : 도학의 심성 수양 공부를 의미하며 양명학을 가리키는 ‘심학’과는 구별하여야 함)의 근원임을 강조하였다.

『심경』은 우리나라에 16세기 중엽인 중종 말, 명종 초에 김안국(金安國)이 이를 존송하여 그의 문인 허충길(許忠吉)에게 전수한 데서 전해지기 시작했다. 이 무렵 『심경』을 가장 중요시한 학자는 이황(李滉)이다.

이황은 1566년 『심경후론(心經後論)』을 지어서 『심경』의 비중을 사서와 『근사록』에 못지않게 존송함을 밝히고, 정민정의 『심경부주』와 관련, 작자인 정민정의 인물됨에 관한 논란을 변론하고 『심경부주』의 내용에 육구연(陸九淵)의 학풍이 섞여 있는지에 관해서도 변론하였다. 여기에서 이황은 명나라의 진건(陳建)이 정민정의 학풍에 주희와 육구연의 입장을 뒤섞으려는 태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적어도 『심경부주』는 도학의 정통성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황의 제자 황준량(黃俊良)은 “진덕수는 실상이 없고, 범준은 절실하지 못하며, 황간(黃幹 : 주자의 제자)의 소견은 두 사람보다 더욱 떨어지고, 정민정은 식견이 밝지 못하고 채택이 정밀하지 못하다”라 하여 『심경』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황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다. 이황은 『소학』·『근사록』·『심경』 가운데 초학자가 처음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심경』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고 『심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또한 제자들에게 만년까지 『심경』을 강의하여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까지도 계속하였다.

2. 마음 수양(修養)

수양(修養), 글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닦고(修) 기른다(養)”라는 말이다. 몸과 마음을 수양한다는 뜻이지만, 주로 마음을 수양한다, 수양을 쌓는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먼저 “닦는다(修)”는 뜻은 무엇일까? 예컨대 그릇에 붙은 먼지와 때, 기타의 이물질을 닦아 내어 본래의 깨끗함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다음 “기른다(養)”는 뜻은 무엇일까? 씨앗을 뿌리거나 새끼를 쳐서 크게 키운다는 뜻이다. “마음을 수양한다.

수양을 쌓는다” 함은 두 가지 측면의 뜻이 포함된다고 본다. 첫째는 마음통 속에 끼이고, 덮이고, 쌓인 생활에 나쁜 의식들을 먼지처럼, 때 처럼, 장애물처럼 “불필요하고 유해하다”, “쓰레기 청소하듯 무효화 하자” 하고 선언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통 속에 생활에 필요하고 유용한 평판(意)을 불일만한 정보(識)를 만들어서 실행, 실현을 지향하는 구상, 설계, 방법 등을 모색, 강구하는 일을 입력하여 시의적절하게 키움이다. 사람이 살아감에 필요한 일을 이루려면 첫째로, 불필요하고 유해한 의식이 없어야 하고(그래서 청소 및 정리 정돈과 같은 닦기(修)가 필요하다), 둘째로, 필요하고 유익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싹을 키워서 자라게 하는 일과 같은 기름(養)이 필요하다) 먼저 바탕을 닦아서(修) 깔끔히 정비한 다음에, 거기에 좋은(필요하고 유익한) 나무를 심고 키우기(養)를 하여야 한다. 공자는 학(學)과 습(習)을 강조하여 학은 배우이고 습은 익히는 것으로 마음 수양도 결국, 배우고 익히고 새겨 나가면 실천이 가능하다.

3. 제1장 인심 도심(人心 道心)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을 철저히 구분하여 항상 본래심, 즉 본심을 지키라는 뜻이다. 인심은 천리의 공명성을 따르고 도심은 육체의 주인이 되면 마음이 위태롭거나 두렵지 않다. 순임금은 사람의 마음이 위태롭기만 하고 도의 마음은 미묘하여 오직 정밀하게 탐구하고 한결같이 실천하면 중용(中庸)의 알맞은 도의(道義)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주자는 인심은 형체의 사육에서 생기고 도심은 타고난 성품의 본연에 근원하여 지각하게 되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심은 날로 위태로워지고 도심은 미묘해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4. 제5장 경이직내(敬以直內) vs 의이방외(義以方外)

주역의 경이직내(敬以直內)에서 경은 삼가하는 나의 마음 안을 곧게 하는 것이고, 의이방외(義以方外)는 의(義)로서 밖을 바르게 함이다. 이를 주장할 수 있게 되면 여기에서 도의가 나오게 된다. 퇴계 이황의 좌우명은 신기독(慎其獨) 혼자 있을 때 언행을 삼가는 것, 사무사(思無邪) 나쁜 생각을 하지 말 것, 독처무자기(獨處無自欺)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무불경(毋不敬) 남에게 무례함이 없을 것이다. 퇴계 선생은 敬 사상에 敬者, 一心主宰 而萬事之根本也. 敬(경) 하나의 마음으로 경건히 한 분야에 집중하면 만 가지 일의 바탕과 근본이 된다.

세상 비밀은 없다. 사지(四知) 하늘 땅 나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 견득사(見得思義) 옳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얻을 것이 생기면 옳고 정의로운지 생각한다고 했다. 島山 안창호는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正義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고 말했다.

居敬窮理(거경궁리) ---송나라 성리학자 정이(程頤)

거경: 나의 내면을 늘 공경하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함

궁리: 외부의 사물에 대한 이치를 연구하는 것.

5. 제6장 징분질욕(懲忿窒慾)

부정(不正)은 이(利)와 욕(慾)이다. 주역에 군자는 분한 마음을 경계하고 욕심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주자나 맹자가 말한 의(義)는 마땅함(宜) 옳은(正) 공정함(公) 정당함(正當) 도리(道) 등이다. 공명(公明) 공정(公正) 공평(公平) 시중(時中)이 있다. 공명이란 합리와 투명성이고, 공정이란 명분과 실리이고, 공평이란 조화와 균형이며, 시중이란 시기와 상황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부확실(不確實) 불공정(不公正) 불공평(不公平) 비상시(非常時)라는 부정사로 전락한다. 기회는 언제나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하겠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독립운동가는 “진리(眞理)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正義)는 반드시 이기는 날이 있다.”라고 말했다. 욕망 즉 탐욕은 불의(不義)를 낳는다. 의롭지 않은 것에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의로움의 실마리다. 이욕(利慾)으로 벽을 뚫고 담을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자제하는 것이 도의(道義)의 기본이다.

6. 제7장 개과천선(改過遷善)

바람 밑에 우리가 있는 형상이 익패이므로 군자가 이런 형상을 생각하고서 좋은 조짐이 있으면 시행하고, 과오가 있으면 즉시 고치면 사람에게 유익함이 더 클 수 없다(주역의 악패 상전과 정자 해설) 千兵萬馬(천명의 병

사와 만마리의 기마 부대)를 쳐서 승리함보다 나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 습관 개조는 인생의 지난사(至難事)이다. 춘추시대 위나라 영공(靈公)왕의 대부(大夫) 벼슬 지낸 거백옥은 50세에 49년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깨달았다. 60세까지 60번 잘못을 고쳐 변화하여 나이 벽을 넘어 인격이 높아졌고 새로운 성취를 했다.

7. 제10~11장 안연문인(顔淵問仁) 중궁문인(仲弓問仁)

顔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顔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顔淵曰 回雖不敏 請事斯語矣

안연문인 자왈 극기복례위인 일일극기복례 천하귀인언 위인유기 이유인 호재 안연왈 청문기목 자왈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 안연왈 회수불민 청사사어의 공문십철(孔門十哲) 공자의 제자중 덕행으로 유명한 안연이 인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를 이기고 예로 돌아감이 인이다. 어느 날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인 함은 자기로 말미암지, 남에게 말미암겠는가? 안연이 말했다. 그 조목을 여쭙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안연이 말했다. 제가 비록 어리석고 둔하여 민첩하지 못하지만 전념하여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仲弓問仁° 子曰:「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邦無怨, 在家無怨°」仲弓曰:「雍雖不敏, 請事斯語矣。」

“중궁문인. 자왈: ‘출문여견대빈, 사민여승대제. 기소불욕, 물시어인. 재방무원, 재가무원.’ 중궁왈: ‘용수불민, 청사사어의.’”

중궁이 인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문을 나서면 큰 손님을 뵈는 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하며,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에서도 원망이 없고 집에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중궁이 말했다.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이 말씀을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8. 제12장 천명위성(天命謂性)

天命之謂性(천명지위성) 하늘에서 부여받고 태어난 첫 마음, 본성(本性) 性(마음 심 + 날 생). 率性之謂道(솔성지위도): 본연의 성에 따르기 위해 길이나 방법을 찾는 것이 도(道). 修道之謂教(수도지위교): 그 길이나 방법을 성취시키는 것이 교(教) 교화(인격 쌓기)--중용

조선왕조의 궁궐 정문의 공통된 한 글자는 化(화)로 변화, 확장, 포용을 상징하는 유학의 핵심사상이다. 창덕궁의 정문은 돈화문(敦化門)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앞으로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창경궁의 정문은 홍화문(弘化門)으로 긍정적 변화를 궁궐에서 온 세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경복궁의 정문은 광화문(光化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따뜻한 빛으로 너그럽게 품어주는 포용이다. 변화, 포용, 확장이 가득할 때 공평하고 따뜻한 왕도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마음의 화합인 것이다.

9. 제14~15장 성의(誠意) 정심(正心)

大學之道의 3 綱領은 在明明德, 在親(新)民, 在止於至善이니라.

대학의 도는 재명명덕(인간이 타고난 밝은 덕을 더욱 밝게 밝히는 것)하며, 재친(신)민((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하며, 재지어지선(지극한 흠에 머

무는 것)으로 儒敎의 기본이념이다. 8조목은 인간의 수양을 거쳐외적 덕화(德化)의 과정을 명시하여 그 이상(理想)을 완수하게 하는 단계적 기본행위를 밝힌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이전에 반드시 성의 정심(誠意 正心)한 마음을 길어야 한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은 증자가 말하기를 10 사람의 눈이 나를 보고 있고 열 사람의 손가락이 나를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군자는 혼자 있어도 삼가는 마음인 신독(愼獨)을 지킨다. 수신은 우선 정심(正心)인 마음을 바로 잡아야 실천이 가능하다.

격물(格物): 모든 사물을 바르게 안다.

치지(致知): 끝까지 다하여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성의(誠意): 뜻을 성실히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정심(正心): 뜻이 성실하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수신(修身): 마음이 바른 뒤에 내 몸을 닦는다.

제가(齊家): 내 몸을 닦은 후 집안을 편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다.

치국(治國):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평천하(平天下):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천하를 화평하게 한다.

10. 제16장 예악(禮樂)

가. 예절의 개념

수기(修己): 자기관리(성찰), 홀로 있을 때 언행을 삼가는 신독(愼獨)

치인(治人): 대인관계, 상대방을 높이고 편안히 하며 나를 낮춤.

인간존중: 상대방의 인격 존중, 공동체 의식 함양

예절(禮節) = 예의 + 범절

예의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예로서 나타내는 말과 몸가짐.

범절이란 법도에 맞는 모든 질서나 절차.

나. 仁과 禮의 관계

- 예의 실현은 인(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됨.
- 예의를 갖춘 사랑,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예절.
- 사회 질서 회복의 두 가지 원리 : 상호 조화되어야 함.

예절은 올바른 길, 마땅한 이치, 알맞은 방법으로 가치 있는 삶의 등불이다. 사람의 성품은 한번 기울어지면 회복할 수 없어 제어하려면 예법으로 해야 한다. 사람됨의 길은 예절이다. 품격 있는 삶은 생활예절의 실천에서 나온다.

다. 예의 본질

1. 공경하는 마음
2. 배려하는 마음
3. 겸손한 마음
4. 사양하는 마음
5. 절제하는 마음.
6. 피해를 주지 않는 마음

라. 시서예악(詩書禮樂)

과거 우리 조선은 시경, 서경, 예절, 음악의 나라였다. 예절로서 中(옳고 예절바른 길), 음악은 和(화합)을 가르쳤다. 악기편에 군자는 예악을 잠시라도 내 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음악을 지극히 하여 마음을 다스리면 화평하고 정직하며 인자하고 진실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이루어 자연과 합치되어 신묘해진다. 음악은 속마음을 감동시키고 예의는 외모에 감동을 준다.

마. 가화만사성(歌和萬事成)

금슬부부(금: 거문고, 슬: 비파)란 좋은 부부로서 거문고와 비파가 각자 자신을 뽐내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어 내는 조화로운 소리와 같이 금슬부부라고 한다. 노래로 화합하면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미국 남북전쟁 중 북군에서 ‘Home sweet home’(즐거운 나의 집) 노래를 연주하자 남군, 북군 모두 한 목소리로 따라 불러 전의를 상실하여 그 날은 전투를 할 수 없었다. 가족 사랑의 노래는 전쟁보다 강하다. 다이돌핀 호르몬은 엔도르핀의 4000배 항암효과가 있다고 한다. 다이돌핀 호르몬은 음악을 들을 때,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 생성된다. 음악의 힘은 위대하다.

11. 제17장 성정(性情), 기질지성(氣質之性) vs 본연지성(本然之性)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기질지성(氣質之性)을 착하고 순수하며 안정적인 본연지성(本然之性)으로 전환하여 인(仁)을 실천함으로써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고, 치우치거나 기울음도 없는 적절하고 알맞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용(中庸)의 도(道)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에서 알맞은 상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화사상(中和思想)이다. 덕행(德行)으로 말하면 중용이고 성정(性情)으로 말하면 중화이다.

동양철학은 천지인(天地人)을 삼위일체로 간주하고 중용과 중화의 논리로 설명한다. 사람의 중용은 7정으로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악(惡) 욕(慾)을 절도에 맞게 하고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게 하며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가리지 못하게 해서 그 본연지성이 사람다운 도리를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천지(天地)간에 중화가 지극하게 되면 천지가 본 위치에 자리잡고 만물이 중화의 조화 속에서 생육한다. 사람도 중화가 지극하

면 인화(人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중용과 중화사상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정신이 된다. 군자는 성정을 바로 잡아 의지를 온화하게 하고 올바른 도리를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

12. 제19장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측은지심(惻隱之心)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은 남의 고통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 인간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뜻한다. 맹자는 인간이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본다. 맹자는 고자(告子)와 인성(人性) 문제를 논하면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한 마음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런 사유는 인본주의의 발단이며 그가 인정과 덕정을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맹자「공손추 상(公孫丑 上)」에 나오는 글로, “인개유불인인지심(人皆有不忍人之心), 인간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차마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선왕유불인인지심(先王有不忍人之心), 옛날의 왕은 다른 사람에게 차마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유불인인지정의(斯有不忍人之政矣),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시행했다. 이불인인지심(以不忍人之心), 다른 사람에게 차마할 수 없는 마음으로 행불인인지정(行不忍人之政), 다른 사람에게 차마할 수 없는 정치를 하게 되면, 치천하가운어장상(治天下可運於掌上).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손바닥에서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정치는 모름지기 이런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봤을 때 느끼는 놀라움과 측은한 감정을 예로 들었다. 맹자에 의하면, 아이를 구해 주려는 감정이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에게서 어떤 혜택을 얻고자 하기 때문도 아니고, 이웃 사람이나 친구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며,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려 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맹자의 사유는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며, 부끄럽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인간론으로 귀결된다.

13. 제20장 시인(矢人) vs 함인(函人)

시인(矢人)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고, 함인(函人)은 방패를 만드는 사람이다.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가 만든 화살이 사람을 상처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또한 방패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보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극단적인 비교이기는 하지만 직업 선택에 대한 맹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화살 장인과 방패 장인의 인간성은 모두 하늘로부터 착한 본성을 받았는데, 평소 하는 일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 의미 없는 일은 없다. 수만 가지가 넘는 직업들은 다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을 선택할 때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직업이 자신의 본성과 성격을 바꾸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세속의 기준보다는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인지, 사회에 기여할 만한 일인지를 고민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14. 제22장 우산지목(牛山之木), 구방심(求放心)

‘우산(牛山)에 있는 나무’라는 뜻의 이 말은 얼핏 들어 그 뜻을 헤아리기 쉽지 않은데 맹자(孟子)의 고자(告子) 상편(上篇) 8장에 나온다.

맹자는 인간의 본래 심성이 착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다. 어느

날 제자들이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혼탁해진 것입니까?’ 라고 묻자, 맹자는 ‘옛날에 어떤 큰 나라의 서울 근교에 우산(牛山)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의 나무들은 원래 아름다웠다.

그러나 도시의 많은 사람이 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대고 나무 짝이 새로 돌아나도 소나 양을 마구 데려와 먹이니 나무들은 다 없어지고 황폐한 산으로 되고 말았다. 그래서 민둥산이 된 우산을 보고 그 후 사람들은 원래 저 산에는 나무가 없었다고 말하게 되었다’ 라고 대답하였다.

‘원래 인간의 본성이란 우산의 나무처럼 착한 것이었으나 이기심, 탐욕, 시기, 질투 등의 도끼로 자신의 아름다운 본성을 계속 찍어대어 결국 악해질 수밖에 없다’ 는 것을 비유로 말한 데서 이 고사성어가 유래하게 되었다. 맹자는 또한 ‘사람이 집에서 기르던 개나 닭을 잃어버리면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라며 사람들의 마음이 오직 세속적인 것에만 팔려있고 원래의 착한 본성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것을 한탄하였다.

그는 사람이 본래의 선한 마음이 비록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정화하려 노력하면 본래의 심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15. 제24장 무명지애(無名指愛)

첫째 손가락 : 엄지손가락, 무지(拇指), 벽지(擘指), 대지(大指), 거지(巨指)

둘째 손가락 : 집게손가락, 검지, 식지(食指), 인지(人指), 염지(鹽指),
두지(頭指)

셋째 손가락 : 가운데손가락, 중지(中指), 장지(長指), 장지(將指)

넷째 손가락 : 약손가락, 약지(藥指), 무명지(無名指)

다섯째 손가락 : 새끼손가락, 소지(小指), 계지(季指), 수소지(手小指)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무명지(無名指)가 있어 굽혀져 펴지지 않아도 아프거나 일을 해치지 않지만, 만약 그것을 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진나라에서 초나라까지 길도 멀다 하지 않으니, 손가락이 남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남과 같지 않으면 그것을 미워할 줄 알지만 즉 내 몸에는 크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지만, 마음이 남과 같지 않으면 미워할 줄을 모르니, 즉 구방심(求放心) 놓아버린 마음을 찾을 줄 모르니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16. 제26장 대인 소인(大人 小人)

공도자(맹자의 제자 이름)가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그의 마음과 뜻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그의 감각과 욕망을 따르면 소인이 되네.”.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과 뜻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그의 감각과 욕망을 따르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귀와 눈이란 기관은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이므로 물건과 일에 가려지게 마련이네. 물건과 일이 계속 닥쳐오면 곧 그것에 끌리게 될 따름인 것일세. 마음이란 기관은 생각을 하네. 생각을 하면 물건과 일의 도리를 터득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터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세. 이것들은 모두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이는데, 먼저 그중 큰 것을 확립하면 곧 그중의 작은 것들이 그의 타고난 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걸세. 이렇게 되면 대인이 되는 걸세 [해설]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마음과 뜻을 잘 지키어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면 누구나 훌륭한 대인이 되고, 반대로 귀와 눈의 욕망 등에 먼저 끌려가면 소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맹자가 말하는 대인과 소인의 구분은 도덕이 기준이 되고 있다.

공도자(公都子)가 여쭙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인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대체(大體)인 심지(心志)를 따르는 사람은 대인이 되고, 소체(小體)인 이목(耳目)을 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되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대체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소체를 따르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귀와 눈의 기능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에 가려지니, 외물(外物)이 생각하지 못하여 한 물건에 불과한 귀와 눈에 접촉하면 귀와 눈은 외물에게 끌려갈 뿐이네. 마음의 기능은 생각하는 것이니,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네. 이는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니, 먼저 그 큰 것인 심지(心志)을 세우면 그 작은 것인 이목(耳目)이 빼앗지 못할 것이네. 이것이 대인이 되는 것일 따름이네.” (고자 상 15)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하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사랑한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별 없이 기른다. 한 자와 한 치의 살갓도 사랑하지 않음이 없으면, 한 자와 한 치의 살갓도 기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자신의 몸을 잘 기르는지 잘못 기르는지 살피는 방법은 어찌 다른 데 있겠는가? 자기에 게서 취할 뿐이다.

몸에는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으며 작은 것과 큰 것이 있으니,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해치지 말며, 천한 것을 가지고 귀한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小人)이 되고,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大人)이 된다. 지금 원예사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놓아두고 가시나무를 기른다면, 쓸모없는 원예사라고 할 것이다. 자신의 손가락 하나만 기르고 어깨와 등을 잃으면서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니, 작은 것을 기르고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 음식을 밝히는 사람이 입과 배를 기르면서도 큰 것을 기름

을 읽지 않을 수 있다면, 입으로 먹고 배로 소화시키는 것이 어찌 다만 한
자나 한 치의 살갓이 될 뿐이겠는가?” (고자 상 14)

17. 제27장 군자삼락(君子三樂), 기자 감식(飢者 甘食)

공자가 말한 군자삼락(君子三樂)이다. 배움의 즐거움과 멀리서 벗이 찾아오는 즐거움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의연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다. 그의 제자였던 맹자의 군자삼락은 무엇일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형제들이 무고한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요.(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부모구존 형제무고 일락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굽어보아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仰不愧於天 俯不?於人 二樂也, 양불괴어천 부부작어인 이락야) 천하의 영재들을 얻어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得天下英才 而教育之 三樂也, 득천하영재 이 교육지 삼락야) 라고 했다. 다시 말해 첫 번째는 하늘이 내려준 즐거움이고, 두 번째는 살면서 자기 통제와 부지런한 인격 수양으로 얻는 즐거움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은 어렸을 적 노닐던 곳에 어른이 되어 다시 오는 것이 첫 번째요. 곤궁했을 때 성장해온 곳을 성공하여 크게 된 후에 찾는 것이 두 번째이고. 홀로 외롭게 지나던 곳을 맘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찾는 것을 세 번째 인생삼락으로 꼽았다. 또 대표적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도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을 말했다. 그는 인생삼락을 ‘일독이색삼주(一讀二色三酒)’라 했다. ‘일독(一讀)’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항상 배우는 선비정신을 간직하는 일이고, ‘이색(二色)’은 사랑하는 사람과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며 고락을 같이하는 일이며, ‘삼주(三酒)’는 벗을 청해 술잔을 기울이며 인생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무와 풍류를 즐기는 일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 삼락도 결국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굶주린 사람은 달갑게 먹고 갈증나는 사람은 달갑게 마시는데 그것은 음식의 바른 맛을 얻지 못한 것으로 기갈이 입맛을 해친 것이다. 왜 입이나 배만 기갈의 해가 있겠는가! 사람 마음도 또한 모두 해로움이 있어서 사람의 기갈의 해로움이 마음까지 해롭개 하는 일이 없게 할 수 있다면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18. 제28장 사생취의(捨生取義)

맹자 고자 상 10/舍生取義也 사생취의야,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하다

孟子曰: “魚, 我所欲也; 熊掌, 亦我所欲也 맹자 왈 어, 아소욕야. 웅장, 역 아소욕야.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이자 불가 득겸, 사 어 이취 웅장자야. 맹자가 말하길. 물고기는 내가 바라는 바이나, 곰 발바닥 또한 내가 바라는 바이다.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겠다.

生, 亦我所欲也; 義, 亦我所欲也, 생, 역 아소욕야. 의 역아소욕야.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이자 불가득겸, 사 생 이취 의자야.

사는 것 또한 내가 바라는 바이고, 의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다면, 사는 것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

生亦我所欲, 所欲有甚於生者, 故不爲苟得也 생 역아소욕, 소욕유심 어생자, 고 불위구득야. 死亦我所欲, 所惡有甚於死者, 故患有所不辟也.

사 역소위오, 소오유심 어사자, 고 환유소불피야.

사는 것 또한 내가 바라는 바이나 사는 것보다 더 심하게 원하는 바가 있으니 따라서 구차하게 사는 것을 얻으려 하지 않겠다. 죽는 것 또한 내가 꺼리는 바이나 죽는 것보다 더 심하게 꺼리는 바가 있으니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재난이 있는 바이다.

如使人之所欲莫甚於生, 則凡可以得生者, 何不用也?

여사 인지소욕 막심 어생, 즉 범 가이 득생자, 하불용야?

使人之所惡莫甚於死者, 則凡可以得患者, 何不爲也?

사 인지소오 막심 어사자, 즉 범 가이 피환자, 하불위야?

사람으로 하여금, 사는 것보다 더욱 원하게 하는 바가 없다면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일이든 어찌 사용하지 않겠는가? 사람으로 하여금, 죽는 것보다 더욱 미워하는 바가 없다면 재난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일이든 어찌하지 않겠는가?

由是則生而有不用也, 由是則可以辟患而有不爲也.

유시 즉생이 유불용야, 유시 즉가이 피환이 유불위야

곧 살 수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까닭 곧 재난을 피할 수 있게 하는데도 하지 않는 까닭은

由其必有秉彝之良心 유기 필유 병 이지양심

그 까닭은 몇몇한 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是故所欲有心於生者, 所惡有心於死者,

시고 소욕유심 어생자, 소오유심 어사자

이처럼 사는 것보다 더욱 원하는 바가 있고 죽는 것보다 더욱 미워하는 바가 있으니

非獨賢者有是心也, 人皆有之, 賢者能勿喪耳.

비독 현자 유 시심야, 인개유지, 현자능물상이.

현자만이 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 모두 그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현자만이 잃지 않았을 뿐이다.

19. 제29장 순임금과 도척

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순임금의 무리요, 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이익을 추구하면 도척의 무리다. 순임금과 도척을 나누는 차이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차이일 뿐이라고 맹자는 말한다. 도척은 중국의 전설적인 도둑의 우두머리다. 무려 9,000명의 부하를 이끌면서 제후를 공격하고 백성들을 약탈하는 등 지극히 잔혹했던 인물이었다. 따라서 도척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충실했던 가장 반 유교적이며 비도덕적인 인물이었다. 순임금은 그에 반해 유교에서 가장 존경하며 추앙을 받는 인물로 공자와 맹자는 물론 유교의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였다.

순임금과 도척의 구분은 단지 의로움과 이익의 차이에 달려 있다. 그 차이는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아서 차이가 털끝만큼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의로움과 이익의 차이는 공(公)과 사(私)다. 조금이라도 의로움에서 벗어나면 바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정자는 이익을 위해 비교하고 계산하는 마음은 개인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마음이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바로 공익을 위한 마음이라고 했다. 도척이 되지 않으려면 탐욕과 의로움을 민감하게 구분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 제31장 주돈이의 마음수양

마음의 수양과 욕심에 대하여 맹자가 말하였다. “마음을 수양하는 데는 욕심을 적게 갖는 것이 가장 좋다. 그가 사람으로서 욕심이 적다면 비록 올바른 마음을 지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은 양일 것이다. 그가 사람

으로서 욕심이 많다면 비록 올바른 마음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은 양일 것이다” 올바른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욕심을 적게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이 올바른 마음을 지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욕심을 적게 갖는 것이라는 것이다. 후세 신유학의 개척자라고 알려진 주돈이도 무욕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무욕을 그의 사상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는 유가 쪽보다는 도가인 노자와 장자 쪽이 더욱 분명하다.

21. 제33장 극기복례(克己復禮)

“안연이 인(仁)에 대해 물으니 공자가 답하였다. 자아를 이기고 예로 돌아감(克己復禮)이 인이다. 한 날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인함은 자기로 말미암지, 남에게 말미암겠는가? 안연이 또 인(仁)의 조목을 물으니 공자가 답하였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顔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顔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논어 안연(顔淵) 1장〉.

‘극기복례(克己復禮)’란 자기의 욕심을 누르고 예의범절을 따르는 것으로, 욕심이나 충동을 이성적 의지로 눌러 이기는 것이며, 가장 밑바탕이 되고 중요한 예의범절(禮儀凡節)을 지키는 것인데, 그 실천강령은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는 것(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이다. 논어 학이(學而) 1장 집주(集註)에는 예(禮)에 대해 설명하기를 “예(禮)란 하늘의 이치(天理)를 성문화시킨 규정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서 따라야 할 규칙이다.[禮者 之節文 人事之儀則也]”라고 하였다. 결국 공자가 말한 인

(仁)은 극기복례(克己復禮)요 예(禮)는 하늘의 이치(天理)이니, 하늘의 이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인(仁)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노력하여야 할 바라고 한 것이다.

중국 북송 때 정명도. 정이천이 있었다. 전자는 형이요 후자는 동생으로 두 사람을 이정자(二程子)라 일컫는다. 정명도는 시잠(視箴), 청잠(聽箴), 언잠(言箴), 동잠(動箴)의 사잠(四箴)을 다(경계하라는 뜻).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쓴 잠언(箴言)이다.

* 시잠(視箴) 볼 때 지킬 일

心兮本虛 : 마음은 본디 형체가 없으니 應物無迹 : 외물에 응하되 그 자취가 없다. 操之有要 : 마음을 지키는 요령이 있으니 『맹자』 「고자 下」에 “공자께서도 말씀하셨다. ‘잡으면 있고 버리면 없어진다. 그 나가고 들어옴에 때가 없고 또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고 함은 바로 마음을 두고 이른 말이다.” 라고 하셨다. 視爲之則 : 보는 것이 법칙이 된다.

눈앞에 교차되는 여러 가지 바르지 못한 일에 눈이 가려지다. 『맹자』 「고자」에 “귀나 눈 같은 기관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물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외물이 섞이는 대로 귀와 눈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마음의 기관만은 사고하는 능력이 있다.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외물을 주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귀와 눈은 사고하는 능력이 없어 외물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꾸로 그것에 지배된다” 라고 하였다. 극기복례는 『논어』 「안연」에 공자가 제자인 안연에게 인(仁)을 실현하는 방법을 설명한 말이다.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감이 곧 인이다. 하루만이라도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였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충동적이고 감성적인 자아를 의지로 극복하여 예법을 갖춘 교육적 인간상인 군자(君子)의 이상으로 돌아감을 일컫는다.

* 청잠(聽箴) 들을 때 지킬 일

예가 아니면 듣지 말아야 한다. 생각하는 지각이 유혹되고 변해서 마침내 올바른 길을 잃게 된다. 위대한 선각들은 그쳐야 함을 알아서 안정할 수 있었는데 사특함을 막고 진실성을 보존하여 예의가 아니면 듣지 말아야 한다.

先覺(선각) : 중인(衆人)보다 먼저 도를 깨달은 사람. 『맹자』 「만장」에 이윤이 선각에 관해 이야기한 것이다. “하늘이 이 백성을 내심은 먼저 아는 자로 하여금 뒤늦게 깨닫는 사람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나는 하늘이 내신 백성 가운데에서 먼저 깨달은 자일 뿐이다.”

知止有定(지지유정) : 지극한 선에 머물 수 있어 마음이 평정되고 안존된다. 『대학』에서 취한 내용이다.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들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름에 있다. 머무를 때를 안 뒤라야 편함이 있고 정해진 뒤에라야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한 뒤에라야 얻을 수 있다.” 閑邪存誠 : 사악함을 막고 성심을 보존하여 非禮勿聽 : 예가 아니면 듣지 말지어다.

* 언잠(言箴) 말할 때 지킬 일

人心之動 : 사람 마음의 움직임은 因言以宣 : 말로써 나타나는 것이니

發禁躁妄 : 발함에 조급하거나 경망스럽게 하지 않도록 해야 發禁躁妄 (필 발, 금할 금, 조급할 조, 망령될 망) : 말을 하는 데 조망하지 않도록 하다. ‘조’는 침작하지 못한 것. ‘망’은 경망스럽고 절도가 없는 것. 內斯靜專 : 안이 이에 고요하고 전일(專一)해진다. 矧是樞機 : 하물며 이것은 중요한 것이. 樞機(지도리 추, 틀 거) : 가장 중요한 것. ‘추’는 여단이문의 돌쩌귀, ‘기’는 문지방. 문이 추기에 의해 열리고 닫히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역경』에 “언행은 군자의 추기이다. 언행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영예와 치욕이 초래되니 언

행은 영욕을 부르는 근본이다”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興戎出好(흥용출호) : 싸움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우호를 맺게 하기도 한다. 『서경』 「대우모」에 “입에서는 좋은 말도 나오지만 싸움을 일으키게 할 말도 나온다”고 하였다. 吉凶榮辱 : 길흉(吉凶)과 영욕(榮辱)을 惟其所召 : 오직 그것이 불러들이는(초래하는) 바이다. 傷易則誕 : 지나치게 쉬우면 허탄하고, 傷易則誕(상이즉탄) : 말을 가볍고 쉽게 하면 거짓말이 되기 쉽다. ‘이’는 경박하고 안이한 것. ‘탄’은 거짓말. 傷煩則支 : 지나치게 번거로우면 지루해진다. 傷煩則支(상번즉지) : 말이 너무 많으면 조리를 잃는다. ‘번’은 번거로움. ‘지’는 여러 가지로 갈라져 요령이 없는 것.

己肆物件 : 자기 멋대로 하면 남과 거스르고 出悖來違 : 나가는 말이 (도리에) 어긋나면 오는 말도 (도리에) 어긋나니 出悖來違(출패래위) :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면 내게 돌아오는 말도 그와 같다. ‘패’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 『대학』 10장에 “말이 거슬러 나간 것은 거슬러 돌아오고 재물이 거슬러 들어온 것은 거슬러 나간다”고 하였다. 非法不道 : 법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서 非法不道(비법부도) : 법도에 맞는 말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효경』에 나오는 말. “도에 맞지 않는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도가 아닌 것은 행하지 말라.” 欽哉訓辭 : 이 훈사(訓辭)를 삼가 공경하여 지키도록 하라. 欽哉(공경할 흠, 어조사 재) : 삼가 공경하여 지키다. 이 ‘欽哉欽哉(흠재흠재)’라는 표현은 『서경』 「우서」에서 볼 수 있는데, 정약용의 1表2書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저서 중 하나인 『흠흠신서(欽欽新書)』도 바로 이 표현을 따서 지은 것이다. 이 책은 정약용이 해배된 이듬해인 1819년에 저술한 형법서로, 당시 조선의 형사 재판의 대한 비평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欽欽(흠흠)’이란 삼가하고 삼가하란 뜻인데, ‘죄수에 대해서 신중히 심의한다’는 흠휰(欽恤)사상에 입각하여 재판하라는 의미로써 이 책의 제목을 『흠흠신서』로 지었다.

* 동잠(動箴) 움직일 때 지킬 일

哲人知幾 : 철인(哲人)은 기미(일의 조짐)을 알아서 幾(기) : 일의 조짐. 아직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희미한 징조. 誠之於思 : 생각함에는 그것을 성실되게 하고 志士勵行 : 뜻있는 선비[志士]는 행함에 힘써 守之於爲 : 행할 때에 그것을 지킨다. 順理則裕 : 이치를 따르면 여유가 있고 從欲惟危 : 욕망을 따르면 오직 위태로워지는 것이니 造次克念 : 짧은 순간[造次]에도 참고 생각하여 造次克念(조차극념) : 아무리 급한 때라도 잊지 않는다. 『논어』 「이인」에 “군자는 비록 밥 먹는 사이에도 인을 어겨서는 안 되며, 아무리 황급한 때에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라 하였다. 戰兢自持 : 전전긍긍 스스로 지켜나가라. 戰兢自持(전궁자지) :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다. ‘전궁’은 전전궁궁을 약화한 것. ‘자지’는 경솔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을 잘 보존한다는 뜻. 習與性成 : 습관이 성(性)과 더불어 잘 이루어지면 習與性成(습여성성) : 좋은 습관이 자연히 천리와 합하게 되다, ‘습’은 후천적인 습관으로 밝은 도리를 실천하기 위해 매사에 조심하는 것. ‘성’은 도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간의 천성. 『서경』 「태갑」에 “그의 불의는 습성이 되어 고칠 수 없게 되었으니 나는 의를 좇지 않는 그와 가까이하지 않겠다.”라 하여 이 악습이 고질화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좋은 습관이 천성화된다는 좋은 뜻으로 쓰였다. 聖賢同歸 : 성현들과 함께 돌아가리라.(성현들과 같이 훌륭하게 되리라.

22. 제34장 범준의 심잠(心箴)

남송 무주(婺州) 난계(蘭溪) 사람. 자는 무명(茂明)이고, 호는 향계(香溪)다. 고종(高宗) 소흥(紹興) 원년(1131) 현량방정(賢良方正)으로 천거되었지만 진회(秦檜)가 정권을 쥐고 있어 나가지 않았다. 문을 단아걸고 강학

(講學)했는데, 제자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 양시(楊時)의 문인 반묵성(潘默成)과 교유했다. 학문적 성향은 심학(心學)이 중심이었는데, 존심양성(存心養性)과 신독(愼獨), 지치지회(知恥知悔)를 강조했다. 저서에 『향계집(香溪集)』이 있는데, 주희(朱熹)가 그 가운데 실린 제34장 범준의 심잠(心箴))」을 대단히 존중했다.

범준이 말하기를 사람의 육체는 미미하지만 천지간에 참여해서 삼재(三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마음 한가지뿐이로다. 예로부터 누구나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육체에 사역을 당한 결과 짐승처럼 되기도 하는구나! 한 조각의 미미한 마음을 여러 가지 욕심이 공격해서 진실한 마음을 보존하려 해도 얼마 남지 않으려니 군자들이여! 진실한 마음을 보존해서 생각하고 매사에 삼가야 하니 그리되면 마음이 태연해져 육체가 마음의 명령을 따르게 될 것이다.

23. 제35장 주자의 경재잠(敬齋箴)

주문공이 말하였다. “자신의 입을 단속하기를 마치 병마개를 막는 것처럼 하고 자신의 뜻을 방비하기를 마치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라.” 주문공은 ‘신유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성리학의 창시자이자 집대성자라고 할 수 있는 주희를 말한다. 문공(文公)은 주희가 사망한 후 그의 문덕(文德)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내린 시호이다. 이 때문에 문헌과 기록상 그의 호칭은 주희 혹은 주자 혹은 주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 “守口如瓶(수구여병)하고 防意如城(방의여성)하라”는 구절은 주희가 지은 『경재잠(敬齋箴)』에 나오는 일부 내용이다. 성리학에서는 ‘정기(正己)와 정심(正心)’, 즉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공부를 실천하는데 있어 ‘주일(主一)’과

‘주경(主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주일(主一)은 ‘마음이 한 가지로 집중되어 어지럽게 흩어지지 않는 공부와 실천’을 뜻하고, 주경(主敬)은 ‘공경하고 삼가며 조심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공부와 실천’을 뜻한다.

실제 『경재잡』 역시 주희가 ‘주일’을 주제로 삼은 장경부(張敬夫)의 〈주일잠(主一箴)〉을 읽고 난 후 크게 감동하여 거기에 담긴 뜻을 모아 ‘주경’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밝히기 위해 지은 잠언(箴言)이다. 장경부는 이름이 식(栻)으로 주희와 절친한 사이였는데, 당대 최고의 사상가였던 주희가 아주 존경할 만큼 학식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았다. 특히 주희는 『경재잡』을 자신의 서재 벽에 써 붙이고 보면서 스스로 경계로 삼았다고 한다. ‘주일’과 ‘주경’을 근본으로 삼아 죽을 때까지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고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경재잡이 성리학사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는 일찍이 퇴계 이황이 17세의 나이 어린 임금 선조(宣祖)를 계도하기 위해 올린 『성학십도(聖學十圖)』에 이 글이 실려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주희는 『경재잡』에서 일상생활에서 ‘주일’과 ‘주경’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놓고 있다. 한 번 음미해보도록 전문을 소개한다.

“의관(衣冠)을 바르게 하고, 시선을 존엄하게 하고, 마음을 잠잠하게 가라앉히고 거처하기를 마치 상제(上帝)를 대할 때처럼 하라. 발걸음은 반드시 무겁게 하고, 손가짐은 반드시 공손하게 하라. 길을 갈 때는 땅을 가려서 밟되 개미집조차 함부로 밟지 않고 돌아서 가야 한다. 집 밖에 나가서는 마치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일을 맡아서는 마치 제사를 모실 때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자신의 입을 단속하기를 마치 병마개를 막는 것처럼 하고, 자신의 뜻을 방비하기를 마치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라. 성실하고 진실하여 혹시 조금이라도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동쪽으로 간다

하고 서쪽으로 가지 말 것이며 남쪽으로 간다 하고 북쪽으로 가지 말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일에 정성을 다하고 다른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 두 가지 일을 가지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말 것이며, 세 가지 일을 가지고 세 가지 마음을 가지지 말라. 오직 마음을 한 가지로 집중하여 모든 사물의 변화를 헤아리고 살피도록 하라. 이렇게 실천하며 그치지 않는 것을 ‘공경함을 유지한다(持敬)’고 말하니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서로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겉과 속이 서로 바로잡아 주도록 하라. 잠깐 동안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사사로운 욕심이 만 가지로 일어나는 실마리가 되어서 불이 붙지 않았는데도 뜨거워지고 얼음이 얼지 않았는데도 차가워질 것이다.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고 삼강(三綱)의 도리가 사라지고 구법(九法) 역시 몰락하고 말 것이다. 아! 젊은이들이여!! 깊이 생각하고 또한 공경할지이다. 먹을 갈아 경계하려고 글로 써서 감히 마음에 고하노라.” 이 가운데 여기 『명심보감』의 엮은이가 인용하고 있는 “守口如瓶(수구여병)”에 대해 주희는 “망령되게 함부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한 “防意如城(방의여성)”에 대해서는 “사악하고 잡스러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24. 제37장 주자의 존덕성재명(尊德性齋銘)

“황상제께서 내려주신 것은 인(仁)과 의(義)로구나. 인의는 상제의 법칙이니 인의를 공경하고 받들어도 잘못될까 두려운데 어떻게 어둡고 광란하며 구차스럽게 살겠는가! 듣고 사지를 게을리해서 하늘의 공명성을 더럽히고 사람의 계율을 업신여기면서 하류에 거처하여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나는 이점을 귀감으로 삼아 내 마음을 삼가면서 두려워하고 어두

운 방에 있어도 남들이 보는 방에 있다고 생각하고 큰 백옥을 받드는 듯, 가득담은 물을 받드는 듯 조심하면서 창졸시간 넘어지는 순간에도 책임은 막중하고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하니 감히 혹시라도 게을리 할 수가 있겠는가!” 주자의 어록을 인용한 것이다. 심경 마지막 구절 송대의 선비 진덕수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스승들이 남긴 글 가운데 37편을 가려 수록한 것을 후대의 선비들이 읽고 주석을 단 것이 수백 편에 이른다.

25. 내 마음의 팡세

“세세년년화상사(世世年年花相似) 세세년년인부동(世世年年人不同) 해마다 꽃은 똑같이 피는데, 사람은 똑같지 않네.” 자연은 변하지 않지만 인생은 무상하여 언제나 변화한다.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높은 것은 모두 내려오게 되었으니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 아무리 바닥을 치더라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라. 내려가기만 하는 것은 없다. 언젠가 반드시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다. 이것이 주역의 가르침이다. ‘세상 모든 것은 극점에 이르면 반드시 되돌아간다’는 극즉반(極卽反)이 있다. 정점에 도달하면 내려올 일밖에 없고, 반대로 최저점으로 추락하면 올라갈 일만 있게 된다. 언제나 마음의 태양을 가져라! 심전개발(心田開發) 내 마음의 밭을 갈아야 인생의 풍성한 수확을 한다.

평정심이란 나를 지키는 마음의 힘이다. 그 힘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정신의 안온함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근심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족히 5분에서 10분 정도는 평온하게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일순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닥치면 평정심은 바로 무너져 버린다.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일상에서 복잡한 일, 자신을 짜

증나게 하는 일들을 접했을 때 이것은 자신을 단련시키는 트레이너로 생각한다면 평정심에 이르는 길이 좀 더 즐거워질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수오재기(守吾齋記) 글에서 나 자신을 잡기란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마음이 내 몸에 붙어있어서 당연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고 가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항상 고요히 혼자 있을 때 마음속에 정갈한 유리 그릇 하나를 연상하고 그 속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다고 연상해보자. 그리고 그 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이 바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삶이라고 그는 표현했다.

맹자(孟子)의 역경이론이 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로 인도할 것이고, 편안하고 즐거운 현실이 나를 죽음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한다. 하늘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려면 반드시 역경을 주어 견디게 한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사람의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하며, 그 사람의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사람의 신세를 궁핍하게 하여 그 사람이 그 역경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26. 심경(心經) 마음 수양(修養)의 기대효과 및 시사점

심경(心經)은 중국 송나라 시대의 학자인 신덕수가 사서육경(四書六經)과 송대 도학자들이 저술한 마음 수양에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만든 책으로 총 37장이다. 다산 정약용은 오직 소학(小學)과 심경에 침잠하여 소학으로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 내면을 다스렸고 몸으로 체험과 체득을 하여 스스로를 경계하였다. 특히 퇴계 이황은 정계 은퇴 후 말년까지 심경을 애독하며 가르쳤고, 조선조 역대 왕(효종 숙종 영조 정조)들도 경연(經筵, 왕의 학문기구)을 통해서 대신들과 강론하면서 정성을 다했다.

수양(修養), 글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우고(修) 기른다(養)”는 말이다. 몸과 마음을 수양한다는 뜻이지만, 주로 마음을 수양한다, 수양을 쌓는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먼저 “닳는다(修)”는 뜻은 무엇일까? 예컨대 그릇에 붙은 먼지와 때, 기타의 이물질을 닳아 내어 본래의 깨끗함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다음 “기른다(養)”는 뜻은 무엇일까? 씨앗을 뿌리거나 새끼를 쳐서 크게 키운다는 뜻이다. “순임금이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위태롭고, 도(道)의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 공자는 마음을 붙잡으면 보존되고 놓으면 잃는다고 말했다. 마음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 우리의 것이다. 잃어버리기는 쉽지만 설사 잃었다고 해도 다시 찾아오면 된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옳고 그름을 무엇으로 보는가? 눈으로 보는가 마음으로 보는가? 이미 눈과 마음은 욕망, 분별심, 악으로 물들어 있다. 태어날 때의 청정한 마음인 본성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래의 마음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진정한 공부를 해야 한다. 인간에게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중용(中庸)에 실려있는 중(中)은 회로애락의 감정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으로 천하의 근본을 가리킨다. 즉 그 무엇에도 침해받지 않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의 근본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세상의 근본 도리는 지나침도 미치지 않음도 없고,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가장 적절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중(中)은 지극히 선(善)한 것이고, 용(庸)은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지극히 선하면서 오래 지속할 수 있으면 중용이다. 잠시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면서 선을 사랑하여 실천하는 데 이 때는 그 마음이 맑아서 성인이 될 기틀이 있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오래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고 만다. 사람이 선한 본성을 지키지 못하는 까닭

은 먼저 이욕(利慾)에 빠지는 마음 때문이다.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가 완성된 사람에 대해 묻자 공자는 대답했다. “이익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오래된 약속일지라도 평소에 했던 말처럼 잊지 않는다면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다. 도덕경 49장에 성인무상심(聖人無常心)이 있다. 성인(聖人)은 항상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마음인 상심(常心)이 없다. 상심은 고정된 마음,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아집 고집 편견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모두 부정하고 욕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특히 모든 방향으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지도자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는 사람이다.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면 모두를 얻을 수 있다.

III

황성사람, 황성이야기



나의 지나온 길, 나아갈 길



민 준 식
황성문화원 사무국장

6.25 한국전쟁중인 1952년 나의 조부(故 민 인호)께서는 황성전통시장 한켠에 고무신과 종이장판 장사(‘동광상회’)를 시작하셨다. 작은할아버지(故 민 봉호)께서는 건어물, 제수용품, 생선 등 생활 식재료를 판매하는 ‘해륙상회’를 운영하셨고, 고모할머니(故 민 인순)께서는 의류판매업인 ‘만복상회’(현재 ‘대도양행’ - 아드님이신 장태중님 경영)을 운영하셨다.

할아버지께서 1974년 세상을 떠나시고, 뒤를 이어 아버지(故 민 영석), 어머니(故 이 영자)께서 ‘신광지물’로 상호를 바꾸시고 30년 가까이 가게를 운영하셨다. 선친께서는 1970년대 말 황성전통시장이 목조건물에서 콘크리트 건물로 새로 지어질 때부터 10여년간 ‘황성시장 조합장’과 ‘황성새마을금고 이사장(1979 ~ 1991년)’을 역임하셨다.

강원대학교 재학중인 1990년부터 주말과 방학이 되면 가게일을 도와드렸는데 당시만 해도 추석 또는 설날이면 집집마다 도배 장판을 교체하여 상당히 호황을 누렸다. 1980~90년대에는 장사가 잘돼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다. 대학을 졸업한 뒤 5년간 직장(삼양식품 연구원 1년, 황성새마을금고 4년)생활을 하던 나는 2000년 3월부터 아버지와 일을 함께 했는데, 1년만에 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셔서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맡게 되었다. 그렇게 가업은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게 3대(代)째 이어졌다.



2015년 9월 '신광지물' 에서 작고하신 어머니와 함께

우리집에는 보물이 3개 있다.

첫 번째는 한국전쟁 때 얻어 돈통으로 사용했던 ‘탄약통’ 이다. (“탄약통에 현금을 넣으면 돈이 화약처럼 터져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다.) 지금은 카드체크기나, 계좌이체로 현금사용이 현격히 줄었지만 2000년대 초까지는 현금거래가 많아 가게마다 돈통을 많이 사용했다.

두 번째는 할아버지, 어머니께서 쓰신 60년 정도의 나이를 먹은 ‘주판’ 이다. 어머니께서는 셈(계산)을 하실 때 전자계산기 대신 꼭 주판을 이용하셨다. (결혼전 직장생활하실 때 주판과 타자를 많이 사용하심)

세 번째는 장판을 길이에 맞게 자르던 가위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손잡이에 천을 덧 댔지만 쇠가 좋아서 인지 기름칠 한번 안해도 아직까지도



집에서 잘 사용하고 있다.

장사를 하던중 우연한 기회로 2016년 6월 황성문화원 ‘사무국장’ 으로 입사하였다.

전 사무국장이셨던 홍성진님(현재 황성문화원 부원장)께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어 후임으로 오게 되었다. 당시 박순업 황성문화원장님은 ‘황성초등학교’ 5학년때 담임선생님이셨다.

처음 3개월 수습기간 중 문화(文化)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원장님의 지도아래 ‘황성군지’, ‘황성의 지명유래’, ‘황성과 3.1운동’, ‘황성의 문화유산’ 등 황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많은 책을 읽고 나의 뇌 한쪽 부분에 저장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집에서는 아내와 아들 둘이 평소에 공부하는 모습을 못 봤던 아빠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더본 코리아’ 백종원대표께서 초급 장교일 때 병사들에게 흠 잡히지 않게 요리하고 새벽과 일과 후에 혼자 병사식당에서 요리연습을 하셨다는 방송인 터뷰를 봐서인지 나 역시 문화원에서 직원들, 300여명 회원분들, 300여명 수강생분들에게 나름 사무국장으로써의 면모를 보이려고 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는 말이 있는데 올해로 벌써 만 10년째 근무중이다. 어머니께서 혼자 가게를 보시기에 무리가 있어 2018년 5월을 마지막으로 ‘3대(代) 67년’ 의 장사를 마감했다.

문화원 사업은 크게 4가지이다. 문화학교, 문화행사, 문화탐방, 지역학(향토사)연구이다.

첫 번째 문화학교는 1999년 시작하여 19개 프로그램, 300여명의 수강생들이 주 2회 2시간씩 1년에 8개월 출석하여 자기계발 및 취미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부 수강생들은 기량을 쌓아서 전국 휘호대회 또는 각종 전국대회에 나가 입상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문화행사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4.1 황성군민 만

세운동, 어르신 노래자랑, 전통혼례,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산사음악회 등이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우리민족의 세시풍속으로 횡성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전통민속놀이 재현과 체험을 통하여 고유의 민속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통문화를 보존 ·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 하고자 매년 정월 대보름(음력 1월 15일)이면 횡성읍 읍상리 앞내다리 둔치에서 개최한다.

4.1 횡성군민만세운동은 강원특별자치도내 최대인원의 3.1독립만세운동 발생지인 애국의 고장 횡성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횡성 만세공원에서부터 삼일공원 기념식장까지의 시가행진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진혼무, 만세삼창등의 기념식을 하고, 관내 중학교 1학년(200명)을 대상으로 ‘역사 토크쇼’ 를 진행한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4.1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 시가행진



전통혼례(회혼례)



산사음악회

어르신 노래자랑은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숨겨진 끼와 장기를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고령 친화도시’인 횡성군 관내 주소를 둔 만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래자랑을 하고 있다.

산사음악회는 항일의병의 발자취를 찾아 그녘을 기리며, 지역의 역사를 바로알고자 천년고찰이며 1907년 항일 의병의 주둔지인 횡성군 청일면 봉복사(선덕여왕 16년인 647년 자장율사 창건)에서 진행하였다.

전통혼례는 신식 결혼이 보편화 되어있는 요즘, 전통혼례를 재현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고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결혼 60주년이 되신분들을 선정하여 회혼례를 해 드렸다.

세 번째 문화탐방은 내고장 문화탐방, 관외문화탐방, 해외문화탐방이 있다.

회원 및 수강생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역사를 알리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 인기가 많아 접수시작 하루만에 마감이 된다.



관내 향토문화탐방



관외 문화탐방 1일



관외 문화탐방 1박 2일

내고장 문화탐방은 관내 학생, 저소득층, 노인대학, 귀농귀촌인, 지역아동센터, 농아인 협회분들을 모시고 횡성뿐 아니라 인접시군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우리것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한다. 탐방후 횡성문화원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횡성시네마’에서 영화 한편을 보고 귀가하신다. 점차 신청하시는 단체가 많아 지금 신청하시면 앞으로 5년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관외문화탐방은 1일 탐방(100명씩 봄, 가을 년 2회 진행한다.), 1박2일 탐

방(70명 선착순 모집)이 있다.

지역문화 발전과 향토문화진흥을 위하여 타 지역의 문화유산을 폭 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다. 갈수록 신청자들이 많아져 문화원을 알리는데 중요한 사업이다.

해외문화탐방은 2019년 4월 4.1횡성군민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덕혜옹주와 면암 최익현선생의 한과 숨결을 찾아 일본 대마도로 첫탐방을 시작하였다. 40명의 회원이 심야 전세버스를 타고 (새벽 1시 출발) 횡성문화원에서 부산항으로 출발하여 배를 타고 1박 2일의 일정으로 (다음날 밤 11시 도착) 다녀왔다. 만 47시간의 일정이었지만 누구하나 힘들다고 하지 않고, 다음에 또 가고 싶다고 하셨다. 물론 코로나-19 로 인하여 4년동안 이어지지 않다가 2023년 일본 대마도에 회원 40명이 1박2일, 2024년 베트남 나트랑 달랏에 36명이 3박 5일, 2025년 베트남 사파(3박 5일 일정)에 3회에 걸쳐 100명이 다녀왔다.



2019 해외문화탐방(대마도)



2023 해외문화탐방(대마도)



2024 해외문화탐방(베트남 나트랑, 달랏)



2025 해외문화탐방(베트남 사파)

저렴한 경비와 문화원 직원들의 계획성 있는 인솔로 인하여 편한 탐방이 된다고 신청일 새벽부터 오픈런으로 대기하고 계셔서 1시간이면 접수가 조기 마감되었다.

네번째 황성문화원의 지역학 연구 역할은 향토사료 조사 및 자료 수집·보존·전시 활동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학 사료집’, ‘황성문화’ 단행본 등 총 20여권(1년에 2~3권 정도)을 발행하였다.

2025년 3월 초 황성신헌 장태종 이사장님(내종숙 內從叔, 아버지의 고종 사촌 동생)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

“내년이면 황성신헌협동조합 50주년이 되어 지난날의 기록을 한권의 책으로 만들고 싶다. 같이 책을 만들어 볼까?”는 전화내용이었다. 평소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받았던 나였기에 흔쾌히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씀드릴었다.

7분의 편찬위원분들과 같이 2025년 3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편찬위원회를 열고, 자료를 수집, 원고를 받고, 토론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처음에는 편찬위원분들과 신헌 직원들이 “엄두가 안난다”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며 원고가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 편찬위원님들과 신헌 임·직원들도 열정을 다해 노력했다. 시간이 갈수록 편찬위원님들의 얼굴빛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9월말 원고수집을 마감하고 미진한 자료를 보완 두달간 교정작업후 출판사 선정을 하였다.

책이란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해하게 도와줘 자신의 뿌리를 알고 나아갈 바를 정립해 준다고 생각한다. 50년사가 만들어져 황성신헌협동조합의 ‘앞으로 100년’을 나아가는데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내나이 55(쉰 다섯)이다.

1996년 7월 첫 직장에 발을 디딘 후, 30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하며 내 삶의 기반을 다져왔다.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성실하게 키워내어, 이제 그들도 대학졸업 후 사회의 일원으로 우뚝 서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횡성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지역 문화의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시간들은 나에게 큰 보람이자,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었다. 이제는 내 삶의 경험과 지혜를, 우리 지역사회에 돌려주고자 한다.



IV
문예마당



크로아티아 여행기



이 병 곤
황성문화원 부원장

여행기를 시작하며

나는 EBS1의 〈세계 테마 기행〉을 즐겨 본다.

앉은 자리에서 세계 곳곳의 관광지를 생생하게 구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크로아티아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나라로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영국에 살고 있는 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더위를 피할 겸 놀러오라는 초대를 받았다.

영국 방문 중 가고 싶은 곳이 있느냐는 딸의 물음에 크로아티아를 가보고 싶다고 말했더니, 딸이 4월 달에 호텔 예약을 미리 해둔 덕분에 마침내 그곳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황성 지역에서는 이곳을 방문한 분들이 드물 것 같아, 이번 여행의 경험을 나누고자 기행문을 쓰게 되었다.

2025. 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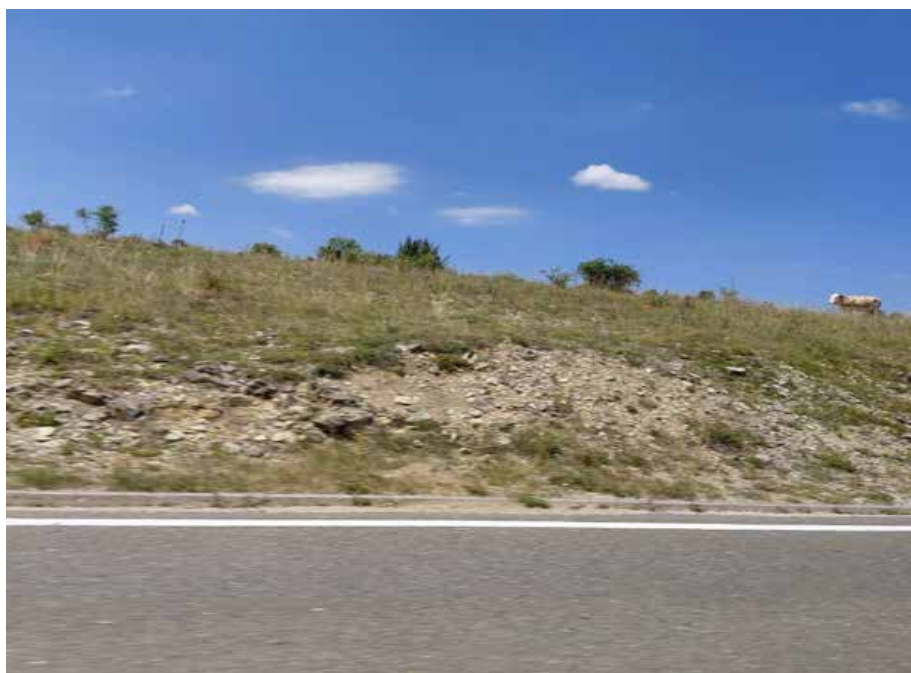
크로아티아 제다 공항 도착 30분전에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끝없이 이어지는 높은 산들이 펼쳐졌다. 이곳저곳에 눈이 쌓인 모습으로 보아, 아마 이탈리아 북부의 알프스 산맥일 것으로 짐작되었다. 크로아티아 영공에 가까울수록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고, 크고 작은 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제다공항 앞 -



- 제다공항 앞 -



공항에 착륙한 뒤, 미리 예약해 둔 렌터카를 찾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 멀리 지평선 쪽으로는 거대한 산맥이 좌우로 펼쳐져 있었고, 그 산맥의 80%정도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었다.

“저쪽은 길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어느새 졸음이 밀려와 잠시 눈을 붙였다. 잠에서 깨어보니 자동차는 그 거대한 돌산을 향하고 있었고, 도로는 4차선에서 상·하행선이 분리된 각각 2차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몇 개의 터널을 빠져 나오니 내리막길이 이어졌고, 멀리 큰 산들이 보였다. 그 후로도 20분정도 더 내려가자 좌우로는 구릉지대가 펼쳐지며, 소를 키우는 목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 목장의 사일리지 -



- 플리트비체 호수에서 -

더 아래로 내려오니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졌고, 목초지에는 사일리지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밭으로 사용하기에는 척박해보였고, 주로 목초지로만 사용 가능한 것 같았다.) 조금 더 내려오자 울창한 숲과 함께 민가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플리트비체 호수를 품고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은 ‘비하치(Bihac)’로, 국립 공원에 자리 잡은 도시이다. 호텔에 도착하자 피로가 몰려와 두 시간 정도 잠을 청했고, 저녁 7시경 식사 후 주변을 살펴보기위해 30~40분 정도 산책을 하고 호텔로 돌아와 숙면을 취했다.

2025. 7. 20.

아침 식사 후 영화 아바타 촬영지이자 여러 방송에 소개된 플리트비체 호수를 보기 위해 출발했다. 전동 셔틀버스 출발지인 St2(셔틀버스 정차장)에서 셔틀을 타고, St1에서 내려 P3(선착장)방향으로 향했다.

호수의 경관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웠다.

특히 에메랄드빛으로 반짝이는 호수는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냈고,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우리는 호수 하류 쪽에서 상류 방향으로 걷는 코스를 선택했는데, 시작점의 언덕에서 바라본 건너편 폭포는 규모도 크고 장관을 이루어 절로 탄성이 나왔다.



- 온 가족이 호수에서 -



- 플리트비체 호수 폭포 -



- 플리트비체 호수에서 -

산책로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굵은 나무로 만들어 졌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붐볐다. 산책로는 물이 흐르는 지형을 고려해 설계되어, 걷는 동안에도 폭포와 호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중간중간 이름이 붙은 폭포들도 있었지만, 이름이 다소 어려워서 기억에 남기진 못했다.

아름다운 호수의 약 60% 정도를 구경하고 유람선 선착장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건너편 호텔이 있는 방향으로 향하는 유람선(P3)을 타고 내려와,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했다.



- 호수 위의 유람선에서 -



- 폭포 아래에서 -

2025. 7. 21.

어제는 피로가 심해 오후 3시부터 호텔에서 쉬었기 때문에, 남은 구역은 오늘 관람하기로 했다. 지도를 참고한 뒤 호텔 안내원에게 문의를 하니, St2에서 셔틀 버스를 타고 St3까지 이동한 후 산책로를 따라 가면 좋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며 적극 추천했다.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내려오는 코스라 걷기 수월하다고 했다.)

3량으로 구성된 전동 셔틀버스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경치는 인상적이었다.

약 4m정도의 좁은 도로를 아기자기하게 운행하면서, 에메랄드빛 호수와

오래된 나무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다.

셔틀 버스에서 내린 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근처 매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물과 빵으로 에너지 충전을 했다. 이후 산책로를 따라 약 1km정도를 걷자, 아내가 어제 무리를 했는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 도저히 못가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포기하기로 하였다. 딸과 아내는 함께 되돌아가기로 하고, 나와 사위, 외손녀 셋은 계속 걷기로 하였다. 산책로는 대부분 호수 위나 주변에 흐르는 물 위를 건도록 설계 되어 있었다.



- 안내판 -



- 셔틀버스 -



- 플리트비체 호수 산책로 -

안내로는 두께가 약 10cm~20cm정도의 나무 윗부분을 약 1/3정도 도려내 깔았는데, 주변 나무를 활용하여 물 위나 땅에서 30~50cm정도 높여서 설치하여 자연과의 조화가 좋았다. 시멘트는 전혀 사용되지 않아, 인위적인 느낌이 없이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었다.

걷는 동안 산 아래로 연결된 길은 나무 그늘이 많아 여름임에도 더위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들은 계곡을 따라 하나로 합쳐지며 호수를 형성하고, 하류의 낮은 지형에서는 흙, 나무, 풀잎들이 쌓여 자연스러운 독을 만들어낸다.

물이 고인 호수는 넘쳐 흐르기 마련인데, 독이 낮은 곳에서는 졸졸 흐르다가 절벽과 만나면 폭포를 형성한다.

이러한 자연 현상들이 반복 되며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각 나라에서 몰려 든다.

상류지역은 어제 본 하류지역 보다 더욱 아기자기한 폭포가 많아, 이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상류까지 둘러보시길 권한다.

‘한국에도 이런 자연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산과 숲, 에메랄드빛 호수를 마음껏 감상한 뒤, P2에서 유람선으로 P1로 와 아내와 딸을 만나 시원한 냉커피로 피로를 풀었다. 이후 자동차를 타고 다음 여행지인 스플리트(Split)로 향했다.

스플리트는 크로아티아 남부 중간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만든 도시로 ‘황제의 도시’라고도 불린다.

국도를 따라 1시간 30분을 달린 후,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넘게 내려오니 산등성 곳곳에 풍력 발전 단지가 나타났다. 해안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이용해 풍차가 잘 돌아가고 있었고, 이 지역의 전력 생산에 풍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로 옆 창밖으로는 돌산과 경사진 구릉지대가 이어졌는데, 사람이 살 정도가 아닌 토지로 구성되어 있다.

스플리트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 시내로 진입하자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항구와 오래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시내 중심부, 옛 성벽 옆에 위치한 ‘코르나로 호텔’ (CORNARO Hotel)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6층 전망대에 올라 시내 전경을 내려다보며 음료수를 마신 뒤, 저녁식사를 예약해둔 ‘피쉬마마(Fish Mama)’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규모가 컸고, 식당 앞 도로는 수많은 관광객이 북적였다.



-피쉬마마 식당에서-



-해안방면 상점-



-식당 건너편 해안 방면에서-

도로 끝은 에게해와 이어지는 해안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건너편은 이탈리아 해산물이 매우 풍부하다고 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해산물을 주문해서 맛있게 먹고, 바닷길을 산책하고 시내상점을 구경한 뒤 호텔로 돌아왔다.

2025. 7. 22.

아침식사를 위해 식당에 내려가보니, 국립공원에 위치한 호텔보다 훨씬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풍성한 식사를 마친 후, 고성 해설을 맡은 가이드와 미팅을 하고 함께 성곽으로 향했다.

성벽은 도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질 무렵 석양이 비치면 황금빛으로 물들어 ‘골든게이트(Golden Gate)’ 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성벽 안내판-



-궁전 내 병사들과-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서기 305년에 이곳에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축하였다. 해설에 따르면, 황제는 이곳에서 약 5km 떨어진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노예 출신으로 해방된 신분이었다. 황제는 자신의 신분을 높이고자 군대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진급하여 장군이 되었고, 그 후에는 황제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로마 제국을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었고, 가장 가까운 친구를 서로마 황제로 임명하고, 자신은 고향인 이곳에 머물며 동로마 황제로 지냈다.

또한 양쪽에는 지금의 총리 격인 인물을 각각 1명씩 두어 총 4명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했다.

성의 규모는 가로 200m, 세로 180m로, 성벽 안에는 주요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으며, 모든 건축 자재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돌을 사용해 지어졌다고 한다. 황제의 무덤 앞에는 왕의 수호신으로 여겨진 스팅크스 조각상이 함께 세워졌지만, 훗날 외세의 침입으로 무덤이 도굴당하고, 황제의 유골

은 바다에 뿌려졌다고 전해진다.

황제가 죽은 후 도시는 점차 폐허가 되었지만, 중세에 이르러 다시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근위병이 지키던 문과 창문은 적군의 침략을 막기 위해 돌로 봉쇄되고, 성벽은 높아졌다.

1500년대에서부터 약 300년간 이 도시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침략을 받았는데, 성 안의 양질의 석재가 베네치아로 반출되어 교회를 건축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레고리우스 닌의 동상-



-왕의 동상-

성곽 바로 옆에 청동으로 만든 대형 동상이 있는데, 이는 10세기경 크로아티아 출신 추기경 ‘그레고리우스 닌(Gregory of Nin)’의 동상이다.

그는 라틴어 대신 크로아티아어로 미사를 하여, 당시 교황의 미움을 사 시골 교회로 전출되었다. 이후 국민들의 추앙을 받아 동상이 세워졌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 무솔리니 치하에서 파손을 염려한 주민들이 동상을 세 조각으로 나눠 은밀히 숨겼고, 전쟁이 끝난 뒤 다시 복원했다고 한다. 가까

이서 보니 이어붙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이곳의 모든 건물은 유적으로 지정되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성 안 거리의 인도 블록은 1700년 전의 것부터 수백 년 된 것들까지 다양하게 남아 있다.

그 표면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발길로 닳아서 반들반들하고 미끄럽다.

성 안 거리에는 관광객이 넘쳐나며, 상점마다 손님들로 활기가 넘쳤다.

2025. 7. 23.

낮에는 날씨가 제법 더워 시내를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엔 무리가 있을 듯 하여, 미리 톡톡이를 예약해 놓았다. 예약한 장소에 도착하니 대략 오전 10시 30분쯤 되었다. 이곳 성 중심부는 자동차가 전혀 다닐 수 없도록 통제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구경할 수 있는 구조다.

대신 안쪽까지 들어가려면 400~500미터 정도는 걸어야 한다. 상점에 물건을 나를 때는 소형 전동 운반차가 따로 있어, 그것을 타고 배달을 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을 태운 톡톡이의 운전사는 올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8살 청년이었다.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열심히 돈을 모아 형과 함께 장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대견하고도 기특하게 느껴졌다.



-클리스요새 성벽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해안도로에서 보이는 호텔들-

바닷가에는 요트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고, 그 옆으로는 크루즈선과 페리선 몇 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선박이 주로 교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해안도로를 따라가 보니, 인공으로 만든 해수욕장에 많은 피서객들이 모여있었다. 도로 오른편으로는 바다가 잘 보이는 언덕에 3층짜리 주택들이 즐비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축구선수들의 별장이라고 한다. 집 한 채에 약 100만 유로(약 16억)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축구경기장을 보게 되었는데, 크로아티아 제2의 도시인 스플리트 인구가 약 17만 명인데 경기장 규모는 5만석이라고 한다. 이 나라가 얼마나 축구 열풍이 대단한지 알 수 있었다.

전체인구가 약 35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지만, 월드컵 등 세계 축구대회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잠시 시내가 잘 내려다보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 시내 경치를 감상하며 시원한 음료도 마셨다. 이후 다시 툽툽이를 타고 내려왔다.

이곳에서 벌써 3일째 관광을 하고 있는데, 느낀 점이 하나 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관광객들의 90%정도는 젊은이들이고,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여행객도 많다. 반면에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기가 어려웠다. 확실히 유럽 관광이 젊은 층이 중심이 되는 모양이다.

저녁 7시에 출발하는 요새 탐방 투어를 신청하였기에, 이른 저녁식사를 마치고 6시 30분에 호텔을 나서 집합장소로 향했다. 버스를 타니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있었고 함께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여기서 다시 느껴진 건, 몇몇 가족과 함께 온 팀을 제외하면 대부분 20대 초반의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은퇴한 사람이 대부분 여행을 떠나지만, 이곳에서는 젊은 층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다.

버스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려, 스플리트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우리를 내려주었다. 클리스 요새 정상까지는 약 200미터를 걸어 올라가는 길이다.

클리스 요새는 ‘왕좌의 게임’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라 한다. 예전에는 입장료를 받았으나, 지금은 무료로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오를 수 있다.

이 요새는 7세기부터 달마티아 지역을 지켜온 요충지로, 해발360미터 높이에 있다. 크로아티아 왕국, 템플기사단, 베네치아 공화국 등 수 많은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성 내부는 협소하여 거주할 공간이 크지 않았다. 어둠이 짙은 오후 9시경, 다시 버스에 올라 시내로 돌아왔다. 시내 골목은 관광객들로 붐볐고, 거리에는 활기가 넘쳐났다.

스플리트 인구 17만 명 중에, 여름방학 기간에는 10만명 이상이 늘어난다고 하니, 학생이 아닌 분들은 이 시기를 피하여 방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

2025. 7. 24.

오늘은 머물던 호텔에서 11시까지 체크아웃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짐을 미리 정리하고 전날 시간상 들어가지 못했던 박물관과 교회 내부를 구경하기로 하였다. 입장은 별도의 관람료를 내고 표를 구입해야했다.



-박물관 전시품-



-교회 내부 건축물-



-박물관 전시품-

박물관 안에는 황제 시절과 번성하던 시절 사용되던 미술품과 각종 생활용품, 발굴된 석조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오래된 것들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고, 그런 물건들이 아직도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교회 내부는 천 년 이상 된 건축물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특히 종탑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 하여, 그 전망을 보기 위해 올라가 보려고 했지만, 계단이 너무 좁고 가팔라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서로 순서를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한참을 오르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내려왔다.

광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연 내용은 황제 시절의 장면을 재현하는 것으로, 당시 복장을 한 병사들이 주변을 경계하

고, 황제가 시민들앞에 나와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며 잠시 연설을 하고 내려가는 장면이다.

외손녀가 해안가에서 해수욕을 하고 싶다고 해서 미리 바닷가에 있는 Radisson 호텔을 예약해두었는데, 오후 2시쯤 도착하니 호텔 바로 앞이 해수욕장과 연결되어 있었고, 호텔 내부에도 대형 풀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오후에는 주변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고, 저녁식사 후에는 오랜만에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였다.

2025. 7. 25. ~ 7. 26.

점심 전에 운동 삼아 바닷가 해수욕장 구경을 하기 위해, 사위와 단 둘이 약 2km 정도 이어진 해변 산책로를 걸었다. 걷는 내내 느낀 것은 이곳의 공공시설이 참 잘 정비되었다는 점이었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같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산책로도 걷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공간, 앉을 수 있는 자리, 야자수 그늘, 간단히 맥주와 음료를 살 수 있는 판매대도 있었다. 그 중 자릿세를 따로 받는 곳은 호텔 앞에 설치된 시설뿐이었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여름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해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바다를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호텔 내에 있는 마사지 샵에 갔다. 그런데 이곳의 마사지 방식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것과 꽤 달랐다. 오일을 잔뜩 바르고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압을 강하게 주며 자극점을 찾아 꼭 누르는 방식이었다.

전체 시간의 약 80%는 목과 어깨, 등, 엉덩이 부위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20%정도는 팔과 다리였다. 복부나 가슴 쪽은 전혀 하지 않았다. 마사지를 받고 큰 시원함을 느끼긴 어려웠고, 개인적으로는 동남아식처럼 주무르고 두드려 주는 시원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이라 조금 아쉬웠다. 추후 나라를 방문해 마사지를 받을 분은 이 점을 알아두시기 바란다.



2025. 7. 27.

오늘은 크로아티아에서 지도 맨 남쪽 끝에 위치한 두브로브니크(Dubrovnik)로 이동하는 날이었다. 호텔을 출발하여 일반 도로를 약 40분 정도 달려 고속도로에 진입하니, 남쪽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길이 펼쳐졌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오직 돌산뿐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이 많아 쓸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다고 불평을 하지만, 이곳에 와보니 한국은 복 받은 땅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곳의 산은 거의 돌로 이루어져 있어 농사짓기도 어렵고, 개발하기도 쉽지 않아보인다.

고속도로는 비교적 건설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모습이고, 안내판에는 ‘보스니아’와 ‘사라예보’ 방향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 도로는 유럽연합 자금으로 건설된 발칸 반도 국가 간 연결고속도로라고 하고, 주변의 돌산에는 별다른 광물 자원도 없다고 한다.

두브로브니크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다시 10여 분쯤 달리니 어느새 해안이 나타났다. 커다란 교량을 건너니, 양 옆으로는 주택과 농민들이 키운 농산물을 판매하는 노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수박과 복숭아 등을 진열해두고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우측으로 넓은 평야가 펼쳐졌고, 각종 과수원과 채소밭이 널찍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크로아티아에 와서 이렇게 큰 밭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그곳을 지나 다시 산길과 해안도로를 따라 약 1시간을 더 달리니, 두브로브니크 시내가 나타났다. 바다를 아래에 두고 경사진 산비탈을 따라 지어진 집들은 흰색 또는 회색 돌벽에 붉은 기와지붕을 얹고 있어, 마치 그림엽서속에 나오는 풍경처럼 아름다웠다.





예약해둔 힐튼 호텔은 구시가지 고성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고,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 반쯤이었다.

약 세 시간정도 쉬고 난 뒤 고성 구경을 시작하니, 예상보다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 였다. 근처 아시안 식당에서 이른 저녁을 먹고, 다시 투어를 하던 중, 고성 건너편에 위치한 자연 보호구역 섬을 둘러보는 선셋 보트 투어가 있어 참여했다.

배를 타고 해안가를 다니면서 보니, 바다를 내려볼 수 있는 절벽 위에 호텔들이 즐비했고, 그 아래쪽엔 해수욕장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중 제일 좋은 호텔은 하루 숙박료가 300만원 이라고 한다.

이지역 호텔은 여름 휴가철에는 방이 없어서 난리라고 한다.

자연보호 구역으로 이루어진 섬은 해안 절벽쪽을 제외하고는 오래된 나무로 숲을 이루어 아름다움을 뽐내며 버티고 있다. 해지기 전 까지 이섬에서 물놀이 해수욕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탄 배는 밑바닥으로 바다 속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바다 속은 너무 큰 돌들이 깔려 있었다.

섬주변을 관광하는 배는 여러 가지인데 5분에 한 대 정도로 주변을 운행한다. 저녁 어둑직전에 고성에 상륙하여 즐비된 점포사이에 꼭 들어차 오가는 손님 사이에 한국인 몇 명을 보니 속으로 반가웠다.

지금이야 관광객으로 가득 하지만 천 년 전에는 고기잡고 항해하는 뱃사람 뿐일텐데 고성내에 큰 도시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의문이다.

2025. 7. 28.

두브로브니크성 투어는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전 덥지 않은 시간이 좋을 것 같아, 성벽 투어를 8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입장료 40유로(약 65,000원)를 내고 성벽으로 올라갔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오니 주변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와서 관광하기에는 좋은 날씨다. 성벽 위를 걷는 길은 폭이 1~2미터 정도이며, 평지와 언덕, 계단길, 그리고 망루 주변의 작은 광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넓은 구간에 커피와 음료를 파는 작은 점포도 있다.

이곳에서는 시청에서 각 점포마다 설치할 수 있는 테이블 수를 지정하여 주고, 테이블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질서가 잘 잡혀 있는 느낌이다.

두브로브니크의 인구는 약 4만명 정도라고 한다. 관광 중에 느낀 점은, 이 도시에는 돌이 참 많다는 것이다. 그 돌로 쌓은 담장, 높고 똑바른 집들, 성벽의 구조물이 무척 아름답다. 아무리 높게 지었어도 빼들지 않고 곧게 쌓은 것이 인상 깊었고, 아름답게 지은 것에 감탄이 나올 뿐이다.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붉은 지붕들과 건물들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 사람들이 이 곳을 찾아오게 만든다. 유럽의 유명한 고대 도시들은 이렇게 오래된 역사와 미관을 가지고 있어 덕분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조상들 덕에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같다.

오후에는 자녀들이 수영을 하러 갔지만, 나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수영복을 준비해왔지만 그냥 호텔에 남아 쉬었다. 나이 탓일까?

저녁에는 이곳에 하나뿐이라는 한국 음식점 “본토”에 가서 이것저것 골고루 시켜 먹고 돌아왔다. 들어보니 이 나라도 EU에 가입 이후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한다.

2025. 7. 29.

오늘은 오후에 영국으로 돌아가는 날이라, 오전 시간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두브로브니크에서 가장 높은 산 전망대에 가기로 했다.

케이블카 탑승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도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어 케이블카를 타고 산으로 올랐다.

차창 밖으로 내려다보이는 산이 온통 울퉁불퉁한 바위와 돌들뿐이었다. 나무도 거의 없어, 괜히 떨어지면 계속 굴러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쓸데없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어느덧 정상에 도착해있었다.



정상에는 이미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니 두브로브니크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 바다 위로는 유람선이 조화롭게 떠다니며 바다와 도시, 집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려 놓은 듯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전망대 뒤편으로는 끊임없이 돌산이 이어져있었고, 그 뒤로는 자동차가 올라오는 도로와 주차장도 자리 잡고 있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많은 것 같다. 산 중턱, 9부 능선 즈음에는 계단식으로 식당이 준비해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식당에 앉아있으니 시원하고,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휴식을 취했다. 그러다 문득 이제는 나이도 있고, 이렇게 먼 곳까지 여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나도 꽤 나이를 먹었구나 싶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호텔로 돌아가 가방을 찾아 공항으로 갔다. 그리고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다. 10일간의 크로아티아 여행을 마무리했다.

나이(만 77세)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찾아와 늙음을 안겨준다. 젊을 때는 멀리 외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좋고, 나이가 들면 가까운 국내를 여행하는 것이 더 나을 거 같다.

길을 걷다, 사람을 만나다, 나를 만나다.



김 은 화
한문서예반

2025년 여름, 올해 장마가 막 시작될 무렵, 철원으로 황성문화원이 주관하는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을 떠나게 되었다. 참가신청서를 내고 주변에 얘길 할 때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네가 어떻게?라며 의아하게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럼 나는 아주 당당하게 자격이 된다고 외쳐댔다. 암! 되고말고. 무려, 내가! 황성문화원 한문서예반 이년차 수강생이라고!

그리하여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연가까지 쓰고 간 공적인 듯 그러나 지극히 사적인 황성문화원 학우들과 나의 철원 여행기를 끄적거려 본다.

이른 아침 등교하는 두 아이의 등교 셔틀을 마치고 나는 예상보다 일찍 집결지에 도착했다. 주차 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동안 우리의 설레는 마음을 가득 싣고 갈 관광버스가 도착하고 일찌감치 집을 나선 학우님들도 한 분 두 분 속속 도착했다. 가만히 보니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할 학우들의 평균연령이 어림잡아 75세 전후가 될 것 같다고 가늠해 본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예상이 현실이 되고 보니 그래도 아직까진 40대의 꼬트머리에 간신히 발을 담그고 있는 나는 이번 여행은 문득 시쳇말로 뭔가 ‘웃픈’ 여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게 이번 여행에 문제가 될 건 전혀 없었다. 다행히도 나란 인간은 현실 적응력이 아주 뛰어난 인간이기 때문이다.



철원 드르니교



철원 주상절리길

어쨌건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행 날은 운이 좋게도 날씨가 좋았다. 횡성을 벗어나 차창 밖으로 변해가는 바깥 풍경들을 구경하며 첫 번째 여정지인 주상절리길에 도착했다. 잔도를 걷기 전, 작년 12월에 개통한 두루미교를 위밍업 삼아 다녀왔다.

다리를 건너며 문득,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본 한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인 우리나라의 여러 다리를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와우~ 한국 사람들은 다리에 정말 진심인 것 같아!” 예사로 넘겼던 그 장면이 두루미교를 건너는 순간 왜 떠올랐는지... 그때 그 외국인 여행객은 듣지도 못하겠지만 가만히 속으로 뒤늦게 맞장구쳐 본다. ‘맞아요. 당신 말에 격하게 동의해요. 한국인들은 정말 다리에 진심인 것 같아요.’ 라고. 계절이 계절인지라 두루미를 탐조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지만,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겨울 철새인 녀석들을 붙잡아 둘 수 없진 않는가. 대신 다리를 건너며 두루미의 날개 위에 올라타 한탄강 위를 유유히 날고 있는 나



철원 주상절리길

의 모습을 상상하며 만족해 본다.

다리를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드르니게이트에서 출발하여 순담게이트로 도착하는 잔도를 걷는 여정을 시작했다. 몸이 불편하거나 컨디션이 저조한 사람들은 관광버스로 돌아가서 차로 이동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출발했다. 출발 전, 나는 일단 아까부터 궁금한 ‘드르니’라는 단어를 찾아봤다. ‘드르니’는 ‘들르다’의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라고 한다. 후고구려의 왕 궁예가 왕건에게 기던 중 이곳에 잠시 들렀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이것이 나중에 순담게이트에서 봤던, 전 국민이 알만 한 애꾸눈의 궁예가 무시무시한 철퇴를 내려놓고 세상 해맑은 표정으로 <I LOVE CHEORWON>라는 문구를 들고 거기서 있던 이유였다.

각설하고 내친김에 한문서에반답게 한탄강은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기로 했다.아...설(說이) 너무 많다. 그중 가장 유력한 설은 크다는 의미의 순우리말 한과 여울 탄(灘)의 조합인 ‘큰 여울이 있는 강’이라는 것이



철원 주상절리길

다. ‘여기서 하도 한탄을 많이 해서 붙여진 이름인가?’ 하며 아주 직관적이고 일차원적인 생각을 한 내가 참 한심스럽기도 하지만, ‘괜찮아! 이러면서 알아가고 배우는 거지 뭐!’ 셀프 격려 후 자! 나도 이제 출발~

주상절리길은 총연장 3.6 km, 폭1.5m의 잔도로 구성되어 있고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사진에서나 보던 멋진 풍경을 쫓기듯 보면서 놓치고 싶지 않던 나는 풍경 하나하나를 눈에 꼭꼭 담을 요량으로 서두르지 않고 무리의 맨 뒤에서 천천히 걸었다. 아직까진 그렇다 할 풍경들은 나오지 않아 살랑살랑 부채질하며 느릿느릿 걷고 있는데, 출발 시점에서 300m쯤 갔을까? 우리 서예반 어르신 한 분이 앞서간 무리에서 쳐져 벤치에 앉아 쉬고 계신다. 이미 땀을 많이 흘리고 계셨다. 혹시 도움이 필요할까 하여 다가가니 괜찮다고 조금 쉬었다가 천천히 따라갈 테니 먼저 가라고 손짓하신다. 괜히 더 물어보면 불편하실까 하여 알았다고 하고 먼저 앞서본다. 조금 걷다가 마음에 걸려 다시 발길을 뒤로 돌렸다. 힘드시면 돌아가는 게 어떨까 싶어 조심스레 권

유해 보지만 이왕 나선 거 걸어 보시겠다고 다짐하신다. 그렇다면야~ 까짓 거! 가야지! 그래서 출발한 지 10여분 만에 한문서예반 학우님 김OO 어르신, 황성문화원 김 부장님, 그리고 나. (그리고 보니 우리 셋 다 김가(家)라는 걸 지금 알게 되었다.)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날은 장마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날이었다. 이 말은 비가, 아니 비만! 안 왔다는 뜻이다. 이날 철원의 수은주는 32도를 찍었고, 이번 여름 들어 제일 더운 날씨였던 게 아닐까 싶다. 게다가 어마어마한 습도는 내가 한탄강 잔도를 걷고 있는 건지 한탄강 물속을 걷고 있는 건지 헷갈리게 할 정도였다. 그런 무더운 날씨에 김OO 어르신이 걷고 계신다. 이미 출발부터 몸이 많이 무거워 보였기 때문에 행여나 다치진 않을까 조심조심 살피며 뒤따라 걷는다. 김OO 어르신은 당신 때문에 처지는 게 미안하신지 연신 내 걱정이다. “아유~ 나 때문에 미안해서 어떡해..” “괜찮아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발걸음은 더 무거워 보인다. 온몸이 흠뻑 젖은 김OO 어르신이 쓰러지시진 않을까... 걱정돼 연신 부채질을 하고 톱툰 얼음물을 드리며 조용히 뒤따른다. 시간이 지체된다. 버스가 기다리고 있어 조바심이 나지만 서두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조바심을 낸들 걸음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축지법을 쓸 수 있는 능력도 내겐 없으니 ‘Que sera sera!’.

사실 이건 딱 나의 여행 스타일이기도 하다. 모든 계획이 오픈 되어있는 무계획이 계획인 여행. 그런데 이게 단체여행에서도 가능하게 될지는 물론 상상도 못 한 일이긴 했지만! 마음을 비우니 실없는 너스레도 피우게 된다. “천천히 가셔도 돼요~ 오늘 일정 보니까 우리가 타고 온 버스가 네다섯

시까지는 철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만나면 되니까 천천히 걸어요!”

사실 이런 느긋함을 가질 수 있게 한 건 우리와 함께 묵묵히 걷고 있는 김부장님에 대한 무한신뢰 때문인 것 같기도 했다.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배짱이 생기니 그제야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신기한 암벽이 지천에 있다. 가늠할 수도 없는 수천 년이라는 시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주상절리 협곡과 절벽의 웅장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넓은 한탄강의 굽이굽이 흐르는 물소리와 쉼 새 없이 지저귀는 새소리,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 소리의 완벽한 하모니의 협연이 들리기 시작했다. 기암절벽에 자리 잡은 소나무와 아기 단풍나무는 애뜻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하다. 어쩌다 저기에 자리를 잡은건지...

걷는 내내 보이는 풍경은 같은 듯 하지만 다채로운 모습으로 나를 멈춰세웠고 연신 카메라에 담게 만들었다. 멋진 배경으로 김OO 어르신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다. 경이롭다. 세월과 자연이 만든 저 풍경도 경이롭지만 저 나이에 “할 수 있다”를 외치며 더디지만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더 경이롭고 아름답다. 카메라의 담긴 모습을 살펴본다. 자연과 그녀의 모습이 묘하게 닮아있다.

잔도길 쉼터에서 쉬는 동안 안내요원에게 궁금한 질문을 쏟아냈다.

“저 건너편 주상절리 위로 떨어지는 건 폭포인가요? 아무리 봐도 산이 아닌데..?”

미소를 머금은, 아니 꼭 참는 웃음이라 해야 할 것 같은 표정에 돌아온 대답은 심플하시다.

“논 이에요”

“아, 논. 그럼 저건 폭포가 아니라 논물인가요?”

“그렇죠. 장마철이라 미리 논에 물을 빼는거예요”

“그럼, 강물이 황토색인 건 논물을 흘려서 그런건가요?”

“그렇죠”

“네....그런데 저기 왜 <골프공 조심>이라는 안내판이 있는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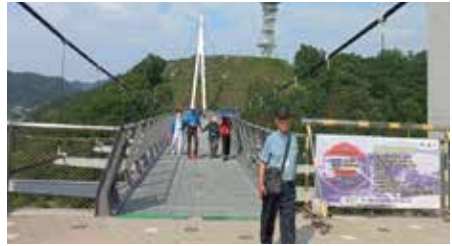
“아, 그건 여기 절벽 위가 골프장이라 그래요?”

“네???”

상상도 못했던 그림이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 강 건너 절벽 위는 비지땀을 흘리며 논에서 일하는 농부들, 이쪽 절벽 위는 골프장에서 타수를 줄여보려고 연신 땀을 흘리며 열심히 골프채를 휘두르는 골퍼들, 바로 그 아래 아찔한 절벽에선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자신과의 사투를 벌이며 잔도를 걷고 있는 우리들. 내가 봐도 이 흥미롭고 재밌는 장면을 지나칠 수 없어서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우리를 말려 버리기로 한 장난을 치기라도 하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한게 인간이던가? 각자의 상황에서 끈질기고 강한 생명력으로 이글이글 타는 저 불덩이와의 싸움에 마침내 이길 거란 확신에 이질적이지만 희안한 연대감에 마음속으로 응원도 해 본다.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 철원 햇불전망대

다시 일어서 한탄강의 풍경 속으로 몰아일체가 되어 긴 호흡으로 걸어본다. 가야할 길이 멀다. 은하수 전망대도 가야하고, 노동당사도 가야한다. 그렇지만 늦어도 괜찮다. 우리는 가장 늦은 걸음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볼 수 있었던 늦게까지 피어있던 하얀 산목련을 함께 보았고, 생강나무, 산초나무, 밤나무, 단풍나무의 이름들을 불러보았다. 물론 틀려도 괜찮았다. 우리 셋, 모두는 웃프게도 자연의 까막눈이라. 누군가가 감나무를 밤나무라 해도 그냥 믿었을 것이다. 나중에 틀린 걸 알게 돼도 그냥 깔깔거리고 웃으면 끝인 마음만은 아주 가볍고 유쾌한 시간들이었다. 김OO 어르신과, 김 부장, 나. 우리 셋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속을 걷고 있지만 각자 다른 체험의 추억을 갖게 된 건지도 모를 일이다.



점심식사 - 철원 '불고기 백반'



저녁 - 문막 '소고기 샤브샤브'



철원 노동당사



찬찬히 지나간 시간을 음미해 보니 이번 여행은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할 거라는 믿음이었다. <함께>라는 믿음이 우리의 여행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깨닫게 되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벌써부터 다음번 여행은 어떤 이야기들이 나를 기다릴까 기대하게 한다.

2025 황성문화원 관외문화유적지 답사



김 영 배
황성문화원 회원

행사명 : 2025년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 (참가인원 : 74명)

기 간 : 2025. 10.14.(화)~10. 15.(수)

답사지 : 진주시, 합천군, 고령군 문화유적지 일원

- 진주시 : 청동기문화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축석루, 남강유등축제
- 합천군 : 해인사(대적광전, 팔만대장경판, 장경각)
- 고령군 : 대가야 유적지,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 박물관

가을 하늘이 깊어가는 10월 14일

황성문화원에서 회원과 수강생, 직원 등 74명이 함께하는 1박 2일 문화유적 답사에 나섰다. 관광버스 두 대가 나란히 문화원의 마당을 떠날 때, 평소처럼 몇몇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다.

해마다 익숙한 풍경이다.

선거철을 앞두고 얼굴을 비추는 후보자들과 단체장들,

그리고 의원들...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조용하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의원들도 일본 홋카이도로 연수를 떠났다고 한다.

1.진주의 시간, 청동기 문화를 걷다

첫 여정, 진주로 향하다

이번 답사의 목적지는 경남 진주와 합천 해인사, 그리고 고령 일대다. 진주는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도시라 황성에서 출발해도 제법 먼 길이다.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한 버스는 두 번의 휴게소 정차를 거쳐 오후 1시에야 진주에 도착했다.



진주 명물 하연옥 냉면, 투명한 육수 위에 오이채, 달걀지단, 육전, 실고추 등이 어우러져 눈으로 먼저 입맛을 돋운다. 홍합과 멸치, 밴댕이, 다시마, 그리고 소뽕을 함께 우려낸 육수는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진다.

첫 식사는 진주의 명물, ‘하연옥 진주냉면’ 이다.

하연옥은 1945년 문을 연 이후 3대째 이어온 냉면 전문점으로, 진주냉면의 전통을 지켜온 곳이다. 식당 이름은 안주인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투명한 육수 위에 오이채, 달걀지단, 육전, 실고추 등이 어우러져 눈으로 먼저 입맛을 돋운다. 홍합과 멸치, 밴댕이, 다시마, 그리고 소뽕을 함께 우려낸 육수는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진다.

육수를 끓일 때 400도 이상의 무쇠를 넣어 해산물의 비린내를 잡는다는 설명이 흥미롭다. 평양냉면이나 함흥냉면과는 전혀 다른, 남쪽 도시의 풍성한 맛이다.

두 번째 여정,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식사 후 버스는 진양호 방향으로 향했다. 약 20분 남짓 달리자 오늘의 첫 문화 탐방지인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에 도착했다.

이곳은 1967년 남강댐 건설 공사 중 발견된 대평리 일대의 청동기 유적을 바탕으로, 2009년에 개관한 전문 박물관이다.

대평리 유적에서는 무려 400여 동의 집터와 국내 최대 규모의 청동기시대 발터, 옥과 석기 제작 공방, 그리고 방어용 목책과 환호시설이 함께 확인되었다. 농경과 기술, 신앙이 어우러진 거대한 마을이 한눈에 그려지는 규모다. 남강은 예로부터 진주의 젖줄이었다. 비옥한 충적지를 품은 이 강가에서 선사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잉여 생산물과 옥을 교역하며 번성한 삶을 일구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터전은 남강댐이 세워지면서 진양호의 물 아래로 사라졌다. 박물관은 그렇게 사라진 마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세워진 공간이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단체 기념사진



남강댐을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진양호

박물관의 구성

상설전시관에는 ‘가라앉은 비밀’에서 시작해 ‘농경과 기술’, ‘무덤과 의례’, ‘옥 공방’ 등 주제별로 전시가 이어진다. 실감형 영상과 AR·VR 체험 공간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움집과 목책, 저장 창고, 밭, 야외 아궁이 등 당시 마을의 모습을 복원해 두었다. 숯대 위의 새 모형은 영혼의 안내자로서, 방문객을 3천 년 전의 시간으로 이끈다.



박물관 전시 유물



박물관 전시 유물 및 야외 조형물

비록 일정상 오래 머물지는 못했지만, 남강의 물결과 진양호의 풍광 속에 자리한 박물관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역사화처럼 고요했다.

횡성의 청동기 시대 유물

횡성에도 청동기 시대 유물이 많지는 않지만 소중하게 남아있다.

국립춘천박물관에 보존 전시되고 있는 ‘강림 청동거울’ 과 갑천 ‘매일리 고인돌’ 이 바로 청동기시대 유물이다. 청일 유동리 고인돌과 율동리 등의 고인돌이 관리 부실로 없어진 것은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https://m.blog.naver.com/kyb2884/223439346578>

횡성 ‘강림리 청동거울’

<https://m.blog.naver.com/kyb2884/223412679296>

‘갑천 매일리 고인돌’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창밖으로 진양호의 물결이 반짝였다. 수몰된 대평 마을의 흔적은 이제 남강 아래 잠들어 있지만, 그들의 삶과 기술은 이곳 박물관에서 다시 숨을 쉰다.

오늘의 첫 답사지는 그렇게 과거와 현재가 맞닿은 시간 여행의 출발점이 되었다.

2. 진주성을 둘러보며 육절려를 생각하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을 관람을 마치고 우리는 진주성으로 향했다.

버스로 25분 남짓, 창밖으로 스쳐 가는 남도의 가을빛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우리가 향하는 진주성은 그 평화와는 달리 400여 년 전, 임진왜란의 격전이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이었다.

진주성은 옛날을 기억하며 볼 것들이 참 많다. 임진왜란의 치열했던 전쟁터 진주성과 적장을 끌어 안고 남강에 몸을 던졌다는 논개의 의암, 임진왜란을 특화했다는 국립진주박물관 그리고 남강유등축제까지 그야말로 이곳은 역사문화 유적의 보고이다. 진주성을 향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우리 고장 공근면 매곡리에 있는 육절려(六節閘)였다. 육절려는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왜적과 싸우다 순절한 제2대 진주목사 서예원(1547년~1593년)과 그의 일가족의 충·효·열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려각이다. 공근면 매곡리 ‘베이스볼 파크’에서 수백리 방면으로 1km쯤 가면, 마을을 가로지르는 중앙고속도로의 교량이 나온다. 그 아래를 지나 왼편 마을 길로 다시 다시 1km쯤 더 가면 수령이 400년이 넘는 느티나무 고목이 서있고, 오른쪽으로 정면 4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인 ‘육절려’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65호이다.



횡성 공근면의 ‘육절려’ 외부 전경



육절러 내부 전경

서예원은 이천서씨 시조 서신일의 16세 손이며, 고려조 서희 장군의 13대 손이다. 27세에 무과에 등과(1573년)하여 선전관, 나주관관, 도총부도사 겸 비변랑, 보성군수, 광산군수를 역임했다. 1591년 김해부사로 임명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이 김해성을 공격하자, 초계군수 이유검과 함께 성을 지키며 적의 공격을 세 차례나 격퇴하였으나, 계속되는 왜군의 물밀듯한 공격으로 하는 수 없이 성을 수호하지 못하였다. 그는 곧바로 의병장 김면에게 달려가 중군사가 되었으며, 성산을 거쳐 거진에 들어갔으나 우리 군이 모두 패한 뒤였다. 그후 지례 전투에서 공을 세웠으며, 거창 우지현 전투등 여러 전투를 거치며 용인에 이르러 갈천 전투에서 잡혀갔던 사람과 우마 및 군수물자를 노획해 찾은 것이 많았다. 이 무렵 임진왜란 제 1차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목사 김시민이 총상으로 위독해지자, 1592년 순찰사 김성일은 서예원으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게 했으며, 다음 해(1593년) 4월 15일 정식으로 진주목사에 임명되었다.

서예원은 진주목사로서 1593년 (선조26년) 왜군의 제2차 침공을 맞아 부족한 병사와 무기를 가지고 진주성을 굳게 지키다 전사하였다. 또한 그의 부인 전주 이씨와 큰아들 서계성, 며느리 풍천 노씨 그리고 어린 딸도 밤낮

을 가리지 않고 군사들을 도와 항전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둘째 아들 서계철도 강물에 몸을 던졌으나,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13년 뒤에야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 육절러는 이곳에서 사시던 서예원의 6대손인 서탁심(1765~1834)과 아들 서유(1789~1843)가 서예원 일가의 진주성 전투에서의 순결과, 당시의 상세한 행적을 들어 포증과 정려를 조정에 상소한 끝에, 1817년(순조 17) 서예원과 그의 처 전주 이씨 2인에게 최선을 다한 노력의 명이 내려져, 서탁심의 집 대문에 정문이 세워졌다. 다시 6차례에 걸쳐 상소하여 1832년(순조 32) 큰아들, 며느리 풍천 노씨 및 어린 딸 3인에게 최선을 다한 노력의 명이 내려졌다. 그해 10월 오정려를 건립하고, 그 안에 오정각판을 모시고, 자헌대부 원임 공조판서 홍문관 직제학(후에 영의정) 조인영과 정홍순은 이러한 내용을 현판에 약기하여 좌우에 걸어 놓았다. 서탁심과 아들 서유가 5차례에 걸쳐 서예원의 둘째 아들 서계철의 정려를 청원하였으나 일가 6절러는 불가하다고 끝내 정려를 내리지 않았다.

그 후 1945년 3월 큰댁 문중인 밀양 문중은 황성의 오정려와 같은 여각을 짓고 최선을 다한 노력을 받지 못한 서계철을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여각의 이름을 ‘육절각’이라 지었다. 밀양문중의 「오정려 이진 고유문」을 살펴보면, 밀양 문중은 황성을 방문하여 ‘오정려’ 현판을 내리고 ‘육절러’ 현판으로 바꾸어 단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황성문화원

진주성으로 향하는 길에 이 이야기를 되새기니, 서예원 일가의 충절이 단순한 지역의 전설이 아니라 황성과 진주를 잇는 역사적 인연임을 새삼 느끼게 됐다.

진주성의 시작, 공북문(拱北門)에서

진주성 답사는 북문인 공북문에서 시작됐다. ‘공북문’은 ‘북쪽 임금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공경한다’는 뜻이다. 성문 이름 하나에도 임금에 대한 충성과 예가 깃들여 있다. 우리는 공북문을 들어서자마자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현재시간 오후 3시 20분, 5시까지 공북문 앞으로 모이란다.



진주성의 관문 공북문

공북문을 뒤로하고 곧바로 가면 남강이 나오고, 왼쪽으로 가면 축석루와 논개의 의암, 의암 의기사, 김시민장군전공비, 임진대첩계사순의단 등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김시민 장군 동상, 영남 포정사, 진주박물관, 창열사, 서장대, 포루, 북장대 등이 있다. 남강이 바라보이는 성곽에 서니 남강 위에 떠있는 배다리과 유등 조형물, 강 건너 가랑 별빛 길의 다양한 축제 시설물 등이 볼거리다.



진주성곽에 서니 남강 위에 떠 있는 배다리와 유등 조형물,
강 건너 가랑 별빛 길의 다양한 축제 시설물들이 볼거리다.

축석루와 의암, 그리고 논개의 혼

성곽을 따라 축석루로 간다.

남강(南江)가 바위 벼랑 위에 장엄하게 높이 솟은 축석루는 영남(嶺南) 제
일의 아름다운 누각임을 자랑한다.



영남 제1의 아름다운 누각 진주성 '축석루' 전경

고려 고종 28년(1241)에 창건하여 8차례의 중건과 보수를 거쳤던 이 누각은 진주성의 남장대(南將臺)로서 장원루(壯元樓)라고도 하였다. 전쟁이 일어나면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였고, 평화로운 시절에는 향시(鄉試: 初試)를 치르는 고시장(考試場)으로 사용되었다. 6·25 때 불탄 것을 시민들의 힘을 모아 진주 고적 보존회를 만들어 1960년에 복원하였는데 건물은 팔작지붕에 다락루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누각 밑의 돌기둥은 창원의 축석산에서 채석하였고 목재는 강원도 오대산에서 가져왔으며 누각에는 4개의 현판과 시인 묵객들의 시판이 걸려있다. 매년 가을 진주성에서는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개최되어 독특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축석루에서 남강 주변을 내려다보면 물 위에 또 있는 다양한 유등축제 조형물들이 정말 아름답다.

축석루 뒤 대문을 열고 강가로 내려가면 논개가 왜장을 끼고 물에 투신했다는 의암이 나온다. 그런데 안전상 문제인지 문을 자물통으로 굳게 잠가 놓았다.



논개의 전설이 깃든 의암

의기사는 임진왜란 때 제2차 진주성 싸움에 패한 뒤 왜장을 꺼안고 남강에 투신한 논개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다산 정약용의 중수기, 매천 황현 및 진주 기생 산홍의 시판이 걸려있다.

의암은 진주성 축석루 암벽 아래 남강 물속에 있는 바위로서 임진왜란 전에는 위험한 바위라 하여 위암이라고 불리었으며, 임진왜란 때 논개가 이 바위에서 왜장을 꺼안고 투신한 후 의리를 세운 바위라 하여 의암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바위의 크기는 가로 3.65m, 세로 3.3m이며, 오랜 시일을 두고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움직여 암벽 쪽으로 다가섰다가, 때로는 강 쪽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며 진주 8경 중 제2경에 속하는 관광지이다.



논개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 ‘의기사’

축석루 뒤로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시민 장군의 공적을 새긴 김시민장군전공비와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1,2차)에서 순절한 7만 민·관·군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1987년 건립한 임진대첩계사순의단이 있다.

그리고 호국의종, 축석 정충단비, 쌍충사적비 등도 자리하고 있다.



진주성 전투(1,2차)에서 순절한 7만 민·관·군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1987년 건립한
‘임진대첩계사순의단’

김시민 장군의 충의와 진주대첩

이제 공북성 오른쪽에 있는 김시민 장군상, 영남 포정사, 국립진주박물관, 서장대, 북장대 등의 유적지를 향해 간다.

진주성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김시민 장군이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끌며 왜군의 침입 경로를 봉쇄하고 큰 전사자를 내며 패퇴시켰다. 김시민의 활약 덕분에 이순신은 해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왜군들은 보급에 직격타를 맞아 큰 손실을 보았다. 그야말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구국(救國)의 영웅, 사후 그의 충정과 공로를 기려 이순신과 같이 ‘충무공’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김시민 장군 동상을 지나 오른쪽으로 가면 조선 시대 경상남도 관찰사가 업무를 처리하던 영남 포정사의 정문이다. 경상남도 도청을 부산으로 옮기기 전까지 도청의 정문으로 사용하였다. 영남포정사를 지나니 오른쪽이 진주성 비석군이다. 조선 선조 37년(1604) 함포(마산)에 있던 경상도우병영을 진주성으로 옮긴 병사 겸 목사 이수일의 유애비를 비롯, 효종10년(1656) 목사 성이성의 청덕 유애비 등 조선시대 세워진 30여기의 비석군이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상

이 비석은 진주성 또는 시내 각처에 있던 것을 1973년 문화재보호협회 진주지부에서 모은 것이다. 이곳을 지나면 고려조 충절신 하공진 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경절사다. 안으로 들어가니 후손부로 보이는 분들이 반겨주시며 차를 대접해 준다. 그들의 따뜻한 정성과 은은한 미소 속에서 조상의 뜻을 잇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하공진 사당 경절사로 들어가는 '열일문'



고려조 하공진 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경절사'



영남포정사



진주성비석군

국립진주박물관과 서장대에서 본 남강

이어서 조선시대 통제사와 병사의 집무실이었던 운주헌터(운주는 군막 속에서 전략을 세운다는 뜻이다)를 지나니 국립진주박물관이다.



조선시대 통제사와 병사들이 전략을 세웠던 ‘운주헌터’ /국립진주 박물관 전경
국립진주박물관 안내도

진주박물관은 진주대첩의 현장 임진왜란을 특화한 박물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실은 조선과 명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임진왜란을 집중 조명해서 보여줬다. 7년에 걸친 전쟁의 전개 과정과 영향을 당시의 무기와 역사 기록으로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

역사문화홀에서는 경남지역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움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고 두암실에서는 경남 사천 출신의 재일교포 두암 김용두(1922-2003) 선생이 일본에서 수집하여 기증한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었다. 보물로 지정된 서화와 도자기, 공예품을 감상하면서 선생의 높은 뜻을 되새겨 본다.



임진왜란실 전시물



진주박물관 전시유물



진주박물관 두암실 전시유물

박물관에서 나와 강가로 가면 서문의 지휘 장대 서장대다.

이곳에 서니 남강 천수교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다리를 건너 소망진산 방향으로 조금 걸으면 진주남강유등전시관과 물빛나루 쉼터가 있다. 서장대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임진왜란 때 승병들의 근거지였다는 호국사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창렬사(彰烈祠)다. 창렬사(彰烈祠)는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한 순국 선인들의 신위를 모시기 위해 경상도 관찰사 정사호가 건립하여 1607년(선조 40년) 사액을 받은 곳이다.

이제 다시 진주성을 방어하는 포진지 포루를 지나 북장대로 올라간다.

북장대는 진주성 내 북쪽 제일 높은 그곳에 있는 진주성의 북쪽 지휘소로 전시에 성내와 외성의 군사를 지휘하던 곳이다. 진남루라고도 부른다.

바쁘게 진주성을 둘러보았다. 여러 사람이 여행이나 답사를 하다 보면 늘 시간에 쫓긴다. 보고 생각하며 여행과 답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늘 내게 불만이다.

이제 진주 시내로 가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다시 이곳으로 유등축제를 보러 올 예정이다.



진주성 서쪽 지휘소 서장대



진주성 북쪽 지휘소 북장대



진주성 방어 포진지 포루

3. 빛의 강 위에서 —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보다

남강으로 향하는 길, 저녁의 설렘

진주시내로 들어서니 가을 저녁의 공기가 부드럽다.

소고기 뷔페에서 푸짐하게 저녁을 먹으며, 오늘 밤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진주성 일원에서 펼쳐지는 ‘진주남강유등축제’로 향한다. 올해 축제는 10월 4일(토)부터 10월 19일(일)까지 열리고, 주제는

“물과 빛, 우리의 소망”이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에서 유래했다.

왜군의 남강 도하를 막고,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던 등불 한 자루가 세월을 넘어 지금의 축제로 이어진 것이다. 그 등불의 마음이 오늘날엔 세계로 뻗어가, 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축제이자, 5년 연속 글로벌 육성 축제로 자리 잡았다.



2025 진주남강축제 주제 “물과 빛, 우리의 소망”

첨단기술이 더한 새로운 빛의 예술

올해의 유등축제는 단순히 ‘불빛의 향연’을 넘어,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무대였다.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하모’와 ‘아요’, 움직이는 무빙유등, 그리고 3D 홀로그램이 어우러진 장면들은 마치 꿈결 같았다.

소망등을 달고, 직접 유등을 띄우며, 야외 방 탈출 게임에도 참여할 수 있어 관람객들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었다.

관람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

올해 축제는 ‘스마트 축제’라 불릴 만큼 시스템이 꼼꼼했다.

실시간 혼잡도 알림, 간편 결제 서비스,

그리고 CCTV와 방송시설이 연계된 통합 상황실 운영까지.

AI 챗봇이 안내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축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세심한 준비 덕분에,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진주성의 밤, 남강 위에 피어난 불빛들

진주성에 다시 도착하니 밤 7시 40분.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남강 위로는 이미 수많은 유등이 반짝이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들이 물결 위에 부서지며, 닛과는 또 다른 황홀한 진주의 밤이 펼쳐졌다.

주어진 자유시간은 1시간 20분, 밤 9시까지였다.

축제 기간 동안 숙박비가 평소의 세 배 가까이 올라, 오늘 밤 숙소는 부득이하게 인근 사천시로 정해졌다.

그래서일까, 이 짧은 시간이 더욱 아쉽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진주성의 밤, 남강 위에 피어난 불빛들

배다리를 건너며 만난 빛의 터널

나는 뉴 배다리를 건너 남강 남원동 둔치 쪽으로 향했다.

배다리 입장료는 성인 편도 2,000원, 65세 이상 어르신은 50% 할인으로 1,000원이다.

왕복 이용권은 따로 없어, 돌아올 땐 다시 표를 사야 한다.

배다리 자체도 하나의 거대한 유등이 되어 있었고, 물 위에 설치된 각종 각색의 조형물들이 반짝이는 남강을 수놓았다.

강 건너 진주성의 조명까지 어우러지니, 그야말로 ‘빛의 강’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길게 이어진 소망등 전시 터널을 따라 걷는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등불처럼 반짝였다.



배다리 빛의 터널



소망등



축석루 야경



진주성 조형물

빛에 취해, 시간도 잊다

유등의 아름다움에 취해 카메라 셔터를 누르다 보니 특산품 판매장도, 풍물식당도 둘러볼 겨를이 없었다.

다시 배다리를 건너 축석루 주변으로 돌아오니 진주성의 야경이 남강의 불빛과 어우러져 더욱 깊고 고요했다.

짧은 시간 속에서도 마음 한켠이 환해지는 경험이었다.

‘빛’이라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힘이라는 걸 느꼈다.



남강유등축제 빛의 예술

횡성의 축제를 떠올리며

처음으로 찾은 진주남강유등축제,

자연스럽게 우리 고장의 횡성한우축제가 떠올랐다.

규모나 성격은 다르지만, 진주가 오랜 역사와 이야기를 축제로 녹여낸 방식에서 우리 지역도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다.

축제란 결국 사람이 중심이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지역의 자부심과 따뜻한 마음이 진짜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빛의 강 위에서, 나는 또 하나의 이야기와 만났다.

남강의 등불처럼, 우리 마음에도 작은 불빛 하나가 오래 남기를 바라며.

4.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해인사 팔만대장경 - 가야산 품 안에서 만난 천 년의 숨결

사천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이번 여정의 숙소, 브라운 도트 호텔은 깔끔하고 아늑했다.

게다가 답사기 작성자에게 주어진 ‘독방 혜택’ 덕분에, 오랜만에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 여행 중 이런 고요함은 참 귀하다.

아침 8시 20분쯤, 체크아웃을 위해 내려가니 홀에는 셀프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갓 구운 식빵, 상큼한 샐러드, 노릇하게 부친 달걀부침.

버스 출발은 8시 30분.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나서니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발걸음을 재촉해 버스에 오르니 8시 31분. ‘역시 나는 시간에 맞추는 사람’이라며 혼자 웃었다.

삼천포에서 합천까지

삼천포 유람선 주차장 근처의 횃집에서 황태미역국으로 속을 달랜 뒤, 버스는 2시간 남짓 달려 합천 해인사로 향했다.

멀리서부터 느껴지는 가야산의 품은 묵직하고 넉넉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관’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이를 보관하는 장경관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명소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만 있던 그곳, 이제야 발을 들이니 설렘이 차올랐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고작 40분.

‘대적광전, 팔만대장경, 장경관전, 목조비로자나불, 그리고 6·25 전쟁의 김영환 대령 이야기까지...’

보고 들을 것이 너무 많았다.



해인사 일주문 및 대적광전

팔만대장경, 나라의 혼을 새기다

팔만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총서인 경(經)·율(律)·논(論)의 삼장을 모두 아우르는 방대한 지식의 집약체다.

고려 고종 때인 1236년부터 1251년까지, 무려 16년에 걸쳐 새겨졌다.

그것은 단순한 신앙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불타자, 고려는 불교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재조대장경’을 다시 만들었다. 국가 차원의 임시 기관인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경남 남해에는 분사대장도감을 두어 제작을 이어갔다. 그 결과 84,128장의 나무판 위에 새겨진 5,200만 자의 글자 하나하나가 나라의 위기 속에서 태어난 정성과 신앙, 그리고 과학과 예술의 결정체가 되었다.

나무와 과학의 만남

팔만대장경판은 흔히 자작나무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졌지만, 경북대 박상진 명예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산벚나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조사된 244점 중 산벚나무가 64%, 돌배나무 15%, 그리고 거제수나무·층층나무·고로쇠나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나무들을 무려 3년 동안 바닷물에 담가 습기를 제거하고, 음지에서 말린 뒤 소금물에 찌서 다시 건조시켰다.

그 후 각수(刻手)들이 구양순체 한문으로 정교하게 새기고, 방부 처리를 거쳐 구리판과 마구리로 단단히 고정했다. 그 덕분에 팔만대장경은 750년이 넘도록 단 한 장의 부패도 없이 보존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그 글자들은 선명하며, 새긴 이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싶었다.



팔만대장경판

장경관전, 과학이 깃든 건축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장경관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공학 작품’이다.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전면과 후면의 창문 크기를 달리 설계하고, 바닥에는 석회·찰흙·숯·소금을 층층이 깔아 자연적인 제습 효과를 냈다. 현대의 공조 시스템이 없던 시대에 만들어진 이 건물은 천 년의 숨결을 지켜낸 천재적인 과학 건축물로 평가받는다.



팔만대장경이 보관 된 장경각

해인도, 깨달음의 길을 걷다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 외에도 또 하나의 볼거리가 있다. 바로 ‘해인도(海印圖)’다. ‘해인’은 화엄경의 ‘해인삼매’에서 비롯된 말로,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경지를 뜻한다. 해인도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길로, 일주문에서 봉황문과 해탈문에 이르는 길과 함께 해인사의 가람 배치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야산을 배경으로, 바다로 나아가는 배의 형상을 닮은 해인도는 불교의 깨달음과 인간의 마음을 상징한다. 현재는 사전예약 탐방제로만 관람할 수 있고, 내부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팔만대장경이 전하는 지혜처럼 ‘내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비로자나삼존불과 전쟁의 기억

장경관전을 나와 대적광전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높이 235cm의 목조비로자나불, 그리고 문수보살·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었다. 이 불상들은 원래 성주의 금당사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절이 폐사되며 해인사로 옮겨온 것이라 한다. 목조불임에도 세월의 흔적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 위엄은 조용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지금 보이는 불상은 금색으로 도색해 마치 금동불상처럼 보인다.



해인사 대적광전 및 목조 비로자나불



고 김영환 대령

그리고 이곳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다.

바로 김영환 대령이다. 6·25 전쟁 중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여기는 해인사다!”라며 항명을 택했다. 그의 결단 덕분에 팔만대장경과 장경관전은 오늘날까지 온전히 남아 있다.

해인사를 나서며

짧은 40분의 관람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오래 남는 울림이 있었다.

팔만대장경은 단지 불경이 아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이자, 사람의 손으로 새긴 희망의 기록이었다.

버스 창밖으로 가야산 능선이 멀어질수록, 나는 천 년을 버텨온 나무와 글자, 그리고 믿음을 떠올렸다.

시간은 흘러도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해인사 답사를 마치고 버스로 20여 분, 합천 시내의 ‘금관가야식당’에 도착했다. 메뉴는 이름만큼이나 상징적이었다. 가야의 유물을 닮은 둥근 떡 갈비와 뜨끈한 한우국밥. 고된 일정에 출출했던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주는 한 끼였다. 이제 식사 후, 오늘 답사의 마지막 목적지인 고령 대가야 유적지로 향한다.

5.천년의 시간을 걷다 - 고령 대가야 유적 답사

한때 한반도 남부를 호령하던 철의 왕국, 가야.

지금은 역사책 속의 이름으로만 남았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경북 고령의 산자락과 마을 사이에서 숨 쉬고 있다.

이번 여행의 종착지는 바로 그 대가야의 옛 수도, 고령이다.

고령으로 가는 길

아침 햇살을 받으며 버스가 달린다.

창밖으로 펼쳐진 들녘과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 물길에 어우러지며 ‘이곳이 바로 가야의 땅이구나’ 하는 느낌이 자연스레 밀려온다. 고령 시내에는 아담하고 조용했다.

길가 곳곳에 ‘대가야의 고장’ 이라 적힌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역사가 일상이 된 도시, 바로 그곳이 고령이었다.

지산동 고분군 - 언덕 위의 왕국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지산동 고분군.
완만한 언덕을 오르니 수십 개의 봉분이 줄지어 서 있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 앞 기념촬영



지산동 고분군

멀리서 보면 고요히 누워 있는 작은 산 같고,
가까이 다가가면 천년의 시간이 이끼처럼 덮여 있었다.
이곳은 1,500여 년 전, 대가야의 왕과 귀족들이 잠든 무덤터다.
복원된 무덤 안 전시관에서는 당시의 매장 구조와 부장품이 실물 크기로
재현되어 있었다.

금동관, 철제 갑옷, 토기, 말갖춤 등 찬란한 유물들은
대가야가 얼마나 강력한 철기 문화를 꽃피웠는지를 보여준다.
“가야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기술과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구나.”
전시관을 걸으며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다.

대가야박물관 - 잊힌 왕국의 기록

언덕 아래에는 대가야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잊힌 왕국의 기억’ 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입구의 문구, “가야, 철과 바다의 왕국.”



대가야 박물관



대가야 박물관 전시 유물

그 한 문장이 가야의 정체성을 단숨에 드러냈다.

전시실에서는 가야가 단지 한반도의 소국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잇는 해상 네트워크의 중심지였음을 일깨워준다.

가야에서 제련된 질 좋은 철은 일본 야마토 왕권으로 건너가 무기 제작에 쓰였다고 하니, 이 작은 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새삼 놀랍다.

특히 ‘철의 길’ 전시실이 인상적이었다.

철을 캐고 제련하며 무기와 농기구를 만드는 과정을 모형과 영상으로 생생하게 구현해 놓았다.

아이들은 토기 조각 맞추기 체험에 빠져 있었고, 어른들은 전시품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대가야 박물관 전시 유물



대가야 박물관 전시 유물

왕릉전시관-대가야의 왕을 만나다

다음은 대가야 왕릉전시관.

지하 전시관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무덤 내부를 비추며 시간이 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듯했다.

발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내부에는
왕의 곁을 지키는 철제 무기, 말갖춤, 토기, 장신구가 정갈히 놓여 있었다.
함께 부장된 사람들의 흔적도 보여, 왕을 끝까지 따르던 신하와 시종들의
충절이 느껴졌다.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말없이 천년의 세월을 마주한 듯한 시간이었다.



대가야 왕릉전시관



유물 발굴현장 재현 왕릉전시관

여행의 끝, 그리고 여운

562년, 신라 진흥왕의 공격으로 대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

신라 문화 속에 스며들어 새로운 꽃을 피웠고, 오늘날 우리의 철기 기술
과 토기 양식에도 그 흔적이 이어진다.

언덕길을 내려오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철의 왕국 가야 유물



철의 왕국 가야 유물

가야의 역사는 짧았지만, 그 문화의 깊이는 길었다.
고령의 언덕 위에 서면 바람이 천년의 시간을 건너와 속삭인다.
“여기, 가야가 있었다.”

1박 2일 답사의 마무리

고령 대가야 유적지를 끝으로 1박 2일간의 답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여정은 내게 각별했다. 평소 꼭 가보고 싶었던 진주성과 유등축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 그리고 잊혀져 가는 가야의 숨결까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한 행운이 있을까 싶다.

몇 해째 역사와 국가유산을 배우는 늦깎이 학생으로서도 이번 답사는 특별한 공부의 장이 되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말을 떠올린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우리 문화유적을 사랑하고, 배우고, 답사한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그 순간을 만나기 위해.

2025년 횡성문화원 해외문화탐방 수기

베트남 사파



이 행 복
횡성문화원 팀장



베트남은 인구 약 1억명(세계 16위), 면적은 331,212km² (세계 68위)로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인구는 약 2배, 면적은 약3배에 해당한다. 베트남 정부가 공인한 민족의 수는 54개 이고 85%가 비엣족이다. 나머지 민족은 소수민족으로 분류되며, 베트남 헌법에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자연환경은 남북으로 길쭉한 지리적 특성으로 서쪽으로는 높고 험준한 산맥, 동쪽으로는 국토의 대부분이 바다와 인접하여, 해안선을 따라 주요 도시들이 형성되어 해상 무역이 활성화 되어 있다. 북부에 해당하는 수도인 하노이와 주변지역은 아열대 기후에 속하며, 남부 호찌민은 열대기후에 속한다.



사파는 베트남 북서쪽 중국과의 국경 근처인 라오까이성, 해발 1,650m에 위치한 고산지대에 위치한 마을이다. 면적은 681km²로 행정구역상 한국의 읍·면에 해당한다. 높고 험준한 산맥으로 이루어져서 면적의 76%는 삼림과 임업지이고, 전체 면적의 13%만이 농업 생산이 가능하다. 인구는 약 66,588명으로 주요 6개 민족-흐몽족, 다오족, 킨족, 타이족, 싸포족, 자이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흐몽족이 53.43%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높은 해발고도 때문에 드물지만 베트남에서 눈이 내리는 마을이라고 한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

과 소수민족 문화로 프랑스 식민지 시절 휴양도시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고 외국인에게는 트레킹으로 베트남 현지인들에게는 서늘한 기후로 달맞이와 함께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곳이다. 그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여행지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인기 있는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1 일차

한국에서 베트남 사파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소수민족의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였으나, 그 값어치만큼 사파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이동을 각오해야만 한다. 이번 횡성문화원 해외문화탐방은 문화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1, 2차에 나뉘어 진행되었다. 내가 속한 2차 탐방단은 2025년 4월 14일(월) 오전 4시 30분 횡성문화원에 집결하였다. 인천공항까지는 버스로 약 3시간, 간단한 아침식사와 출국수속 안내



인천공항 출국준비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하노이의 교외 풍경

사항을 전달하였다. 베트남국영, 비엣젯항공으로 10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비행기로 약 4시간의 비행을 마친 끝에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공항을 나서며 사파로 향하는 버스가 기다리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느낀 동남아 특유의 날씨를 접하니, 비로소 해외문화탐방의 3박5일 일정의 시작을 체감할 수 있었다.



베트남 하노이 공항 도착



하노이 쌀국수

본격적인 사파로의 출발에 앞서, 점식식사를 위해서 쌀국수 집으로 이동했다. 당일, 중국 시진핑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공항과 하노이 주요 도로가 통제되었다고 한다. 당초 계획한 식당은 아니었지만, 담백한 고기육수에 듬뿍 들어간 고수의 향, 매콤한 고추, 그리고 입맛을 살려주는 새콤한 라임을 즙을 짜서 넣으니 베트남 특유의 풍미가 온 몸에 스며드는 것만 같았다. 비행기 탑승 전, 아침식사와 기내식을 먹기는 했지만, 2차 탐방단의 인솔자로서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여 베트남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동안을 긴장하고 있어서이었을까. 따뜻한 쌀국수 한 그릇이 마음까지 풀어주는 것 같았다.

사파는 베트남 하노이 북서부 직선 거리는 315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보다는 짧으나 5시간이 훌쩍 넘는 버스 이동은 각오해야 한다. 사파가 산악마을인 것을 감안하면 5시간을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는 힘든 일정일 것 같지만, 라오까이에서 사파까지의 마지막, 약 30분 고갯길을 제외하고는 뽕 뚫린 베트남에서 비교적 새로 개통된 CT05 고속도로, 잘 정비된 도로를 달리며 베트남의 농촌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과거 하노이에서 라오까이 가려면, 기차를 8시간 타거나 슬리핑버스로 10시간 넘게 걸리던 길이 어지지만, 2014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기존의 1/2로 소요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한다. 특히 고속도로 주요 8개 공사 구간 중, 6 곳을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건설하여 참여하였다고 한다. 고속도로 개통 이전부터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길 이었고, 사파를 가기 위해서 거쳐 가는 라오까이는 예부터 실크로드의 일부로 지금도 베트남-중국 국경도시로 중국 원난성과 이어지는 관문으로 국경도시의 활기가 넘친다고 한다.



고속도로 옆에서 풀을 뜯는 물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바라본 풍경

우리가 라오까이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해가 서쪽 산기슭을 넘어 가고 있었다. 저녁식사로 베트남식 철판스테이크인 빗뻏(bit tet)을 먹었다. 늦 쇠에 지글거리는 고기와 함께 신선한 샐러드, 반미(베트남식 바게트빵)가

함께 나왔다. 모두들 반미가 맛있다고 극찬하였다. 저녁식사 전, 사파 도착까지의 마지막 고갯길이 구불구불해서 멀미를 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다. 이미 깜깜한 밤이라 반대편에서 오는 자동차 불빛 밖에 볼 수 없었지만, 버스가 좌우로 크게 도는 것을 느낄 때면 어두운 차창 밖으로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 잠도 멀미도 오지를 앓았다. 과거 대관령 옛길을 떠올린다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하지만 미지의 차창 밖 풍경이 계단식 논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조금 뒤의 일 이었다.



1일차 저녁 첼판스테이크와 반미

어두운 산길을 지나 사파에 도착하니 수많은 조명과 여행객으로 분비는 별천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사파는 고산마을인 만큼 대형 버스가 다닐 수 없는 좁고 가파른 길이 대부분이라서 숙소까지는 미니밴 2대로 나눠 움직였다. 숙소에 도착하니 현지 시간으로 시계는 8시였다. 횡성에서 출발하

여 약 17시간. 장시간의 이동 끝에 마침내, 베트남 사파에 도착한 것이다. 방 배정을 끝내고 짐을 풀 후에는 여독을 풀기 좋다고 1차 탐방단이 알려진 숙소 앞에 위치한 마사지샵을 확인하고 변화가 방향으로 나가 보았다. 연중 서늘한 기후 때문에 프랑스 식민지 시절 휴양도시로 발전한 만큼, 유럽풍 건축물에 소수민족 전통 문양이 들어간 간판과 조명등에 바람을 타고 향신료 냄새 가득한 맛있는 음식 냄새, 늘어선 가게들 앞을 지나 칠 때 마다 들리는 음악에 이국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숙소 주변을 돌아보니, 피곤은 사라지고 새로운 장소와 현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구름처럼 밀려 왔다. 어둠 속에서도 이처럼 빛나는 관광도시 사파에 온 것이 실감이 될 즈음, 다음날이 보게 될 사파의 진면목을 기대하며 해외문화탐방 첫째 날 밤이 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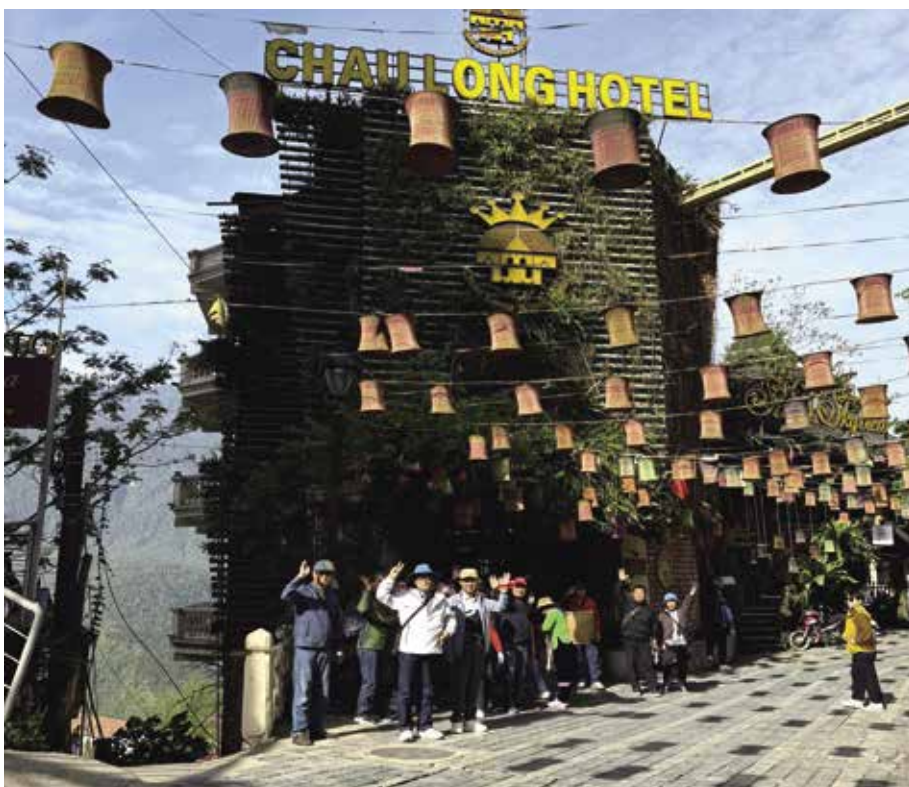
사파의 이국적인 밤의 풍경

2 일차

본격적인 사과 회외문화탐방이 시작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저절로 발걸음이 창가로 향했다. 그 앞에는 어제 칠후 같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판시판의 장엄하고 웅장한 산세가 병풍처럼 드리어져 있었다. 잠시 발코니에 나가 경치를 조망하다, 숙소 식당으로 향하니, 이미 식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모두들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저마다 촬영한 사진을 보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김복기님께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시다가 ‘아무리 열심히 사진을 찍어도 실물이 너무 뛰어나다’ 고 하셨다. 나도 이 말에 동감을 한다. 기행문을 쓰고 있는 지금도, 판시판의 자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직접 마주하한 느낌을 수많은 미사어구로 표현해 보고자 했지만, 지우고 쓰기를 반복할 뿐이다. 사진으로나마 판시판의 장대함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아침 숙소에서 바라본 판시판산



모닝커피 한잔을 들고 베트남 북부 산악지대, 대자연의 풍경을 눈과 마음에 담으며 산의 능선을 따라서 보고 있으니 저 멀리, 가장 높은 봉우리에 전망대가 보였다. 그렇다. 해외문화탐방 사파의 목적지 판시관 전망대가

그 곳에 있었다. 가이드 설명에 의하면, 사과는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평소에는 안개와 구름에 가려서 10일 중, 8일 정도는 판시판 산이 보이지 않고 오전에 산이 보여도 막상 전망대에 오르면 구름이 몰려와 풍경을 보는 것은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깻깻마을

2일차 첫 행선지는 ‘깻깻마을’이다. 영어로는 Cat Cat Village, 고양이-고양이 마을이 되는 셈이다. 깻깻마을은 블랙흐몽족이 19세기 중반부터 살았던 전통마을로 민족의 뿌리가 중국의 묘(猫)족에서 기원하였기에 붙여진 마을 이름이라고 한다.



깻깻마을 단체사진

소수민족 마을이라 우리의 복춘 한옥마을을 생각했는데 관광지로 관리되고 있었다. 입장료는 15만동(한화 약 7,500원)으로 현지 물가를 생각한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 관광지인 만큼 매표소 앞에는 전통의상을 대여해 주는 상점들이 많았다. 특히 여성의 복장이 화려한 문양과 장식구로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도 경복궁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관



깃깃마을 입구



깃깃마을로 향하는 돌계단

광을 하는데, 깃깃마을도 외국인을 포함해 베트남 자국 관광객들이 소수민족 전통의상을 입고 마을 곳곳에 있는 포토존에서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있었다. 매표소는 산중턱에 있는 반면 핵심 볼거리는 계곡 아래에 있기에 한참 동안 계곡 능선의 계단을 내려가야만 한다. 계단 양 옆에는 매표소를 지나쳐 왔음에도 주민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즐비해있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현지인들의 생활공간이 섞여있는 독특한 모습이었다. 그래서일까? 마을사람들을 위한 생필품과 관광객 대상의 기념품과 먹거리까지 다양한 물건을 한 곳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그렇게 현지의 생활상 속에서 사진도 찍으며, 한참을 내려가면 목적지인 전통마을이 눈에 들어온다. 계곡의 물소리와 폭포, 전통가옥과 커다란 물레바퀴, 계곡을 가로지르는 나무다리가 마치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진풍경을 자아냈다. 특히 시간을 잘 맞춰서 호몽족의 공연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의 고무줄놀이와 같은 대나무를 이용한 베트남의 전통놀이, 나이삽(nhay sap)공연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공연은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닌 원하는 관객들 모두가 직접 놀이에 참여해 볼 수 있었다. 고무줄놀이와 비슷

해서 여성분들이 즐겁게 참여 하시고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대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계곡에 울리며 경쾌함을 자아냈다. 내려온 계단만큼을 다시 올라가야하나 모두들 걱정하고 있었는데 출구까지는 전기카트를 서틀처럼 운영하고 있었다. 짹마을 출구를 나와 신선하고 달콤한 사탕수수 주스 한 모금마시는데 빨간색의 귀여운 열차가 지나가는게 보였다. 다음 행선지인 판시판산 전망대, 케이블카 정거장으로 향하는 피크트램이었다.



베트남 전통놀이 나이사ப்



시원한 사탕수수 주스





판시판산

베트남 사파 대표 관광 명소인 판시판산은 베트남의 초고봉 이자, ‘인도 차이나 반도의 푸른 지붕’ 이라고도 불린다. 그 이름에 걸맞게 해발고도는 3,143m의 높이를 자랑한다. 약 1,600종이 넘는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울창한 산림과 험준한 산세로 도보로 등반 하려면 편도로 최소 3일은 걸린다고 한다.



판시판산 등반의 시작 관문인 사파스테이션

판시판산 여정의 첫 시작은 사파 광장에 위치한 사파스테이션, ‘썬플라자’에서 피크트램을 타고 시작된다. 입구에는 놀이공원처럼 키를 쥔 수 있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베트남은 성인, 어린이 요금을 키 140cm를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한다. 피크트램을 타고 가파른 계곡 풍경을 마주하다 보면 하차하게 되는데, 케이블카 정거장까지 어덕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정원과 전통마을을 재현해 두었는데 계속해서 꽃밭을 가꾸고 조형물을 만들며 관광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었다.

케이블카는 판시판산 전망대 반대편 계곡에 위치해 있었다. 케이블카 정거장에는 ‘썬월드’라고 적혀있어 태양과 관련된 전설이 있을까 궁금하여 찾아보니, 베트남 경제계 5위의 ‘썬’ 그룹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베트남의 다낭과 푸꾸옥 같은 주요 관광지 및 공항,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개발 회사라고 한다. 베트남 내에서 6개의 관광 케이블카 노선 건설 및 운영을 하고 있다.



요금 확인을 위한 줄자



피크트램 내부에서

판시판 케이블카는 2016년 2월에 개통되어 정상에 위치한 전망대까지 총 6.3km를 연결하고 있다. 1대에 최대 35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며, 발 아래로 계단식 논과 울창한 정글과 폭포를 볼 수 있었고 한번 탑승에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케이블카가 출발하고 가파른 계곡이 보일 때면 그 높이에 현기증이 났으나, 점점 지면이 멀어져 고도를 가늠할 수 없게 되니 자연스레 풍경에 눈이 들어왔다. 정글 깊숙한 곳에 드문드문 집들이 보였는데, 꿀과 약초 채집꾼들의 쉼터라고 한다. 케이블카로 판시판 전망대에 도착하여 밖을 나오니, 한 낮인데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 한국의 가을 날씨와 비슷했다. 구름이 당장이라도 머리를 스칠 것만 같았으나 발아래는 구름 한 점 없기에 지평선 너머 시야가 닿는 곳까지 화창한 날씨로 웅장한 산세가 절경을 이루었다.



피크 트램 내부에서 바라보는 사파의 풍경



피크트램 하차 후, 케이블카로 이동



케이블카 이동경로에 위치한 썬월드 정원



가이드 얘기로는 자기는 수십 번을 올라와 봤지만, 오늘처럼 맑은 날씨에 탁 트인 경관은 처음 본다고 한다. 비경의 감상도 잠시 얼마 안가서, 단시간에 1.5km의 고도차가 생기니 몇 걸음만 걸어도 급하게 숨이 차올랐다. 가벼운 고산병 증세라고 한다. 다행히 탐방단 모두가 가벼운 증상만 있어서 개개인의 편차에 맞게 판시판산을 관람하였다. 판시판 산 전망대 일대에는 켜 왕조 시대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2개의 사원과 11층 석탑, 31m의 대형 불상과 관음보살상 등이 세워져 있었다. 산 정상에는 거대한 베트남 국기가 펄럭이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최고봉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었다.



지속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파 썬월드의 모습



재미있는 점은 협소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일까. 표지석이 한 개가 아니라는 점 이었다. 관광객 모두가 인증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한다.



판시판산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사파의 다랑이 논



판시판산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는 사파의 다랑이 논

판시판을 조망하고 있으니 점심시간을 훌쩍 지나 오후 2시에 가까워 갔다.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하산하여 정거장에 내려와 베트남 음식 중심의 뷔페식당으로 향하였다. 앞서 언급한 ‘썸’ 그룹에서 운영하고 현지에서도 음식이 맛있고 고급 뷔페로 알려져 베트남 자국민들에게도 판시판을 방문한다면 꼭 들리는 맛집이라 한다. 베트남 현지요리 외에도 외국음식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과반이 한국요리였다. 그 만큼 한류에 힘입어 베트남에서 한식이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탁박폭포

점심을 든든히 먹고 탁박폭포로 향하였다. 한국어로는 ‘은빛폭포’라고 한다. 높이는 200m에 산 정상 절벽 위에서부터 흰 포말을 내뿜으며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은가루를 흩날리는 것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사과지역에는 탁박폭포 관련 전설이 전해진다고 한다. 판시판 산맥에는 은을 다스리는 신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신은 사람들에게 물을 내려주며 생명을 보살폈으나, 산 아래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탐욕을 부리자 크게 노하여 은빛 폭포수를 쏟아내 땅을 씻어내었다. 그 뒤로 이 폭포를 ‘은폭포’라 불렀다 한다. 그래서 사과에서는 기념품으로 은 세공품을 많이 팔고 현지의 구전이나 프랑스 탐험가들의 탐사 보고서에 은광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대규모 은광이 발달한 지역은 아니다. 다만, 사과의 소수민족에게 결혼지참금, 조상 숭배, 병을 쫓는 부적으로 은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전통적으로 은세공에 능했다는 점에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폭포까지는 계단을 통해서 15분 정도를 올라가게 된다. 계단이 가파르고 부분적으로 흩날린 물보라에 미끄러운 구간이 있었다. 폭포에 다다르면 다리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코스여서 앞서 계단만 조심한다면 관광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탁박폭포에서 숙소로 돌아오니 시간은 어느새 오후 5시, 잠시 재정비를 하고 저녁식사 장소로 향했다. 여행 계획으로는 송어와 철갑상어 샤브샤브가 예정되었으나 최근 사과에서 한국인들이 꼭 찾아가는 맛집이 있다고 가

이드가 안내 하였다. 탐방에 함께 동행한 섬강여행사 성락 대표님께 물어 보니 샤브샤브가 1차 탐방단에서 호불호가 있었다고 한다. 반신반의로 좁은 계단 골목길을 따라서 올라가니 유럽풍 내부의 식당에 들어섰다. 자리에 앉으니 같이 바삭하게 구워진 큼지막한 족발, 볶음밥, 공심채 볶음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우광수 문화원장님의 건배사와 함께 2차 탐방단에 참여하신 분들 각자의 소개 자리를 가지며 즐거운 분위기에 식사를 마치고 사파의 야시장을 잠시 둘러보고 숙소로 돌아왔다. 사파에서 마지막 밤인게 아쉬워 첫째 날 눈여겨봤던 현지 식당에 들러 시원한 맥주 한잔으로 하루를 마무리 하였다.

3일차



사파에서 아침은 항상 창밖을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날씨의 변화 탓에 판시판의 자태는 매일이 새롭다고 한다. 어제는 그 웅장함에 눈을 뗄 수 없었다면, 이 날은 시야를 넓혀 사파 현지인들의 삶도 눈에 담는 즐거움이 있었다. 건물 밖이 아이들의 재잘대는 소리로 떠들썩하여 내려다보니 수많은 아이들이 줄지어 등교를 하고 있었다. 숙소 주변을 산책할 때, 학교를 보지는 못하였는데 나이를 짐작해보면 근처에 유치원이 있는 듯싶다. 탐방 3일 차 일정은 오전에 함룡산을 조망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하노이로 귀환하는 일정인지라 하루만 사파에 더 머문다면, 지역민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서고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함룡산

함룡산 등산의 시작은 프랑스가 1900년대 초 세운 석조 성당, 사파 중심 광장의 상징인 사파 성당 앞에서 시작하게 된다. 프랑스가 1900년대 초 세운 이 석조 성당은, 사파 중심 광장의 상징이다. 황성의 풍수원성당과 비슷한 규모였지만 흰색 벽면의 차분하면서도 경건한 느낌이 들었다. 고딕 양



함룡산 초입이자, 사파의 중심에 위치한 성당

성당을 지나 도보로 향한 곳은 함룡산, ‘용의 입’이라는 이름답게 산세가 용이 승천하는 듯 구불구불하다. 입구부터 꽃들이 심어진 정원이 있었고 동물 십이지(띠)를 표현한 장식들이 곳곳에 숨어있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띠가 아니라 그 자리를 고양이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십이지가 처음 언급된 것은 중국 후한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지나서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고양이가 전파되어 우리에게 친숙한 고양이가 아닌 토끼가 포함된 십이지 이야기가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과 교류가 있는 베트남은 왜? 고양이띠가 있냐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쥐를 잡아 농작물을 보호하는데 유용했던 고양이가 토끼보다 베트남인들에게 친숙했다 것이다. 두 번째는 토끼 묘(卯)가 고양이 묘(猫)로 혼동되어 사용된 것이 고착화 되었다는 것이다. 고양이 외에도 양은 염소띠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문화의 전파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에 맞게 이야기가 변화하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계단을 오르다보면 기암괴석 사이를 오가는 길을 지나게 되는데 중간에 함롱산을 한 눈에 보이는 넓은 뜰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에서 바라본 산의 양 봉우리와 그 사이의 깊은 협곡은 단번에 용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판시판산이 없었다면 이것이 사파 최고의 관광지였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충분히 멋진 장소였고 베트남 산악지대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곳 이었다. 다시 걸음을 재촉하여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사파 시내를 전부 조망할 수 있는 정상에 도착하게 된다. 약간 흐린 날씨였지만 시내 중앙의 작은 호수를 중심으로 빨간 지붕의 건물들이 주변의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사파를 보고 있으니 베트남이 숨겨두던 보물 같은 여행지를 알게 되었다는 즐거움이 샘솟았다. 함롱산을 내려가면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하노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었다.

하노이로 출발하기 전 점심은 사파에서 코코넛카레와 반썰오, 분짜로 구성된 한상 차림이었다. 이제는 한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친숙한 요리이기 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 코코넛의 속을 파고 그 안에 카레를 넣어 직화로 익혔는데 시각적으로 인상적이고 은은한 코코넛향이 오전부터 등산



을 해서 일까 식용을 더욱 돈왔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에 나와 잠깐 서 있으니 노점상이 호객행위를 하였다. 사과에서는 대부분 노점상은 전통복장을 입은 다양한 연령의 여성들이 주를 이룬다. 이 또한 장사의 전략인 것 같다. 평소대로 안산다고 단칼에 거절하는데 한국인인 것 같아 말을 걸었다고 한다. 물건을 안사도 되니까 몇 마디 대화해 보고 싶다고 했다. 들어 보니 최근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궁금해서 몽족이냐고 물으니, 다오족이라고 한다. 강하게 부정하는데 같은 지역에서도 차이를 확실하게 두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니 괜찮다고 한다.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K-POP 때문이냐고 물어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짧게 몇 마디 주고받다 나의 이름과 뜻을 알려주고 ‘당신이 행복을 찾았다’고 농담을 하니 환하게 웃는다. 차량이 출발할 시간이 되어 뒤 돌아 서는데, 고맙다며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한다. 잠깐이지만 이야기도 나눠서 돈을 지불한다고 하니 오히려 극구 사양하며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짧은 대화였지만 사과를 더욱 좋은 여행지로 기억하게 만들어 주었다.



첫날의 여정과 마찬가지로 5시간을 달려 하노이에 도착하니 퇴근 시간과 겹치며 시내 모든 길이 오토바이로 넘쳐나고 있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6,446,531대, 전기오토바이 178,203대가 하노이에



만 등록되어있다고 한다. 실제 미등록 오토바이를 포함하면 어림잡아 7백만대 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매연과 공해 문제로 전기 오토바이를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



하노이에 도착하여 여독을 풀 필요가 있어 우리는 전신 지압 마사지에 들었다. 장시간의 이동으로 중간마다 휴게소에 들릴 때면, 스트레칭을 하였는데도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와 골반이 많이 뭉쳐 있었다. 개운하게 마사지를 받고 나오니 이미 해는 지고 저녁시간으로 식사 장소로 이동하였다. 메뉴는 불고기정식이었다. 식당은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었고, 하노이 미딩지역에 있어서 베트남에서는 ‘미딩송다’라고 불리는 지역이다. 최근

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베트남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지역이 되었다고 한다. 식사를 하며 둘러보니 가족 또는 친구끼리 오는 베트남 손님들이 눈에 들어왔다.



3일차 점심 코코넛 카레와 베트남 현지식



사파의 전통복장과 수공예



하노이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보는 사파의 자연과 다람이 눈



하노이 도로를 가득 매우고 있는 오토바이

하노이사람들, 특히 젊은 연인들에게 최고의 인기장소 데이트 장소는 2014년 개장한 하노이 롯데센터로 도시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로 사무, 호텔, 백화점과 전망대가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사랑 받고 있다고 한다. 하노이를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흔히 하노이 필수 쇼핑 장소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노이 초고층빌딩 1, 2 위는 모두 한국기업이 건설하였다고 하는데, 방금 얘기한 롯데센터가 높이 267m로 하노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첫 번째로 높은 건물은 350m의 2011년 완공된 ‘랜드마크72’로 경남기업에서 건설하였는데 건물 이름에 72가 들어간 이유는 지상 72층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4 일차

하노이 호텔에서 간단히 조식을 해결 하고 잠깐의 침향쇼핑 관광을 한 후, 우리는 닌빈(Ninh Binh)으로 향했다. 버스에 탑승하니, “이번에는 얼마나 이동해야 하나”는 질문이 먼저 튀어 나오는 분들이 계셨다. 가이드가 2시간이면 된다는 말에 대부분 ‘이번에는 짧네?’ 라고 삼삼오오 얘기들을 하신다.

닌빈은 베트남 북부 홍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성으로, 유적과 자연 경관이 풍부한 곳입니다. 특히, 닌빈은 베트남 최초의 장기 집권 왕조인 대월



닌빈의 카르스트 지형

(大越) 리 왕조(1009~1225) 이전, 대구월(大瞿越) 딘 왕조(968~980)와 전(前)레 왕조(980~1009)의 수도였던 호아루(Hoa Lu)를 품고 있다. 리 왕조의 대월을 중국 송나라 때에 ‘안남’ 이라고 칭하였고 한국어로 ‘월남’, 베트남어로 ‘베트남’ 으로 불리게 된 것이 베트남 국호의 기원이라고 한다. 리 왕조 시대 이전 까지 닌빈은 과거 베트남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리 왕조는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데 ‘화산 이씨’의 시조, 이용상이 리 왕조 5대 황제 영종의 아들로 전 왕조의 제위와 함께, 리 왕조가 멸망 하던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고려로 망명, 귀화 하였다고 한다. 1996년에 베트남에서는 770년 만에 리 왕조의 후예들이 베트남에 돌아왔다고 화제가 된 적도 있다. 현재의 베트남 정부에서는 ‘화산 이씨’를 리 왕조의 후예로 공식 인정했으며, 베트남에서 살 경우 출입국 관리, 세금, 사업권 등에서 베트남인과 동일한 특혜를 주고, 리 왕조가 출범한 음력 3월 15일이면 공식 행사까지 연다고 한다.



산 사이로 보이는 거대한 콘크리트 공장

차창 밖으로 서서히 풍경이 변화하여,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니 닌빈은 하노이의 남쪽 약 9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바다에 하룻배가 있다면 육지에는 닌빈이 있다고 하며,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특히 이번에 가는 짱안은 영화 쿵:스킬 아일랜드 촬영지로 더욱 유명해진 곳이라고 한다. 특산물로는 염소가 한테, 닌빈에 가까워지니 석회암 절벽 위로 드문드문 염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매우 신기하였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치는 닌빈의 마을 집들에는 유독 성모마리아 조각이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정보를 찾아보니 닌빈은 베트남 천주교의 최초 전파된 곳, 베트남 최초의 성당이 위치한 지역으로 베트남 천주교 전파 역사의 중심지라고 한다. 아름답고 웅장한 성당 건축물 들이 많으며, 닌빈 지역은 특히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높고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한다.

창밖으로 보는 풍경은 카르스트 지형 특유의 거대한 기암절벽을 품은 거

대한 산들이 드넓은 평야와 어우러지며 아름다움을 자아내었다. 그러나 버스가 도로를 따라서 가까이 갈수록, 거대한 산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깎여 있거나 사방에서 파헤쳐지고 있었다. 님빈은 석회암 지대인 만큼, 베트남 시멘트의 주요 생산지라고 한다. 특히 베트남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것에 맞물려 시멘트 채취를 위하여 경관 중간 중간 산과 맞먹는 크기의 거대한 시멘트 공장들이 함께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근처 마을에는 분진이 수북이 내려앉은 모습을 심시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저렇게 무분별하게 파헤칠 거라면 근사한 봉우리 하나 정도 잘라서 섬강에 하나, 황성호에 또 하나 던져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님빈 현지의 염소요리



님빈 식당 앞의 절벽과 기암 괴석

닌빈에 도착하니 시간은 어느새 점심시간으로 염소고기 식당으로 우리는 향하였다. 처음 식사 메뉴를 들었을 때는 염소고기라고 하여, 염소탕을 생각했는데 막상 식당에 가보니 볶음과 구이, 신선한 채소, 분짜와 누룽지탕 등 다양한 요리가 한상 가득 채워졌다. 평소 염소요리 특유의 냄새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는데, 막상 음식이 나오니 어떤 게 염소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물어보니 철판에 양파와 함께 지글지글 소리 내며 구어지고 있는 것이 메인 염소 요리이고 양념에 볶은 것도 염소라고 한다. 우선 선입견을 깔끔하게 날려주는 맛있는 냄새에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어 보니, 은은하게 코코넛의 달콤한 향기가 입맛을 자극하였다. 싱싱한 상추에 고기 넣고 쌈을 싸서 먹으니, 염소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았다.

짱안의 삼판배 투어

오늘의 목적지인 닌빈, 짱안에 도착하니, 기암괴석의 절벽 사이로 옥색의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그 물 위로 수많은 나로 만든 배들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수가 족히 400대는 될 것 같았다. 이 나무배를 삼판배(Sampan Boat)라고 부른다고 한다. 배의 길이는 4~5m 정도로 폭은 성인 두 명이 나란히 앉기에는 불편함은 없었다. 인원은 뱃사공을 포함하여 5명이다. 특징이라면 모든 뱃사공이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지역 관습으로 오래전부터 남성은 농사와 외부 노동을 담당했고, 여성이 마을과 가까운 수로에서 주로 종사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삼판배는 좁고 굴곡진 동굴을 통과해야 함으로 섬세한 손놀림과 균형 감각이 필수라고 한다. 여기에 맞물려 유네스코 등재 후에는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을 단위’로 운영된다. 삼판배는 마을의 소유이며, 수입은 공동 분배되고 여성들이 지역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한다

고 한다. 그래서 인지 뱃사공 아주머니들 모두 초록색으로 옷을 맞춰 입었지만, 자세히 보면 옷의 디자인이 다르거나 현대에 맞게 개량된 아오자이를 입은 그룹도 눈에 들어왔다.



닌빈 짱안의 삼판배 투어 관광지의 모습



삼판배 뱃사공의 모습

점심 시간이 지난 오후여서 햇살을 따가웠지만, 유속이 거의 없는 푸른 강물 위에 떠 있으니 4월 봄바람에 뱃놀이로는 더 없이 좋은 날씨였다. 뱃사공이 노를 저을 때 마다 배는 수면을 미끄러지듯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 녹음 짙은 절벽과 푸른 하늘 물 위에 비친 구름과 바위가 한데 어우러져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드노라면 짱안 삼판배 하이라이트인 석회암 동굴이 앞에 나타난다. 배들이 줄지어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천장에 머리가 다 올 것처럼 낮아서 자연스레 핸드폰 플래시를 켜게 만든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뱃사공 아주머니가 연신 머리를 숙이라고 경고한다. 동굴에 들어서면



자연스레 숨소리까지 고요해졌다. 환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배의 노 젓는 소리와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깰 때, 배가 동굴 밖으로 나가니 눈부신 초록 속에서 웅장한 고대 건축의 건물이 나타났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모험가가 된 기분이 들었다.

수로의 몇몇 섬들은 잠시 내려서 둘러볼 수 있었는데, 하나 같이 고대 건축물과 사원, 사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육로로 오기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건물을 지은 건지 불가사의할 뿐이었



다. 이렇게 삼판배를 타고 동굴과 물길 사이를 지나다 보면, 왜 육지의 하룻배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다. 오히려 배를 타고 천천히 둘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하룻배와 비교할 수 없는 ‘짱안’ 만의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한동안 풍경에 심취해 있으니, 뱃사공 아주머니가 작은 노를 하나씩 건내 준다. 이 때 부터는 레프팅을 하듯이 직접 노를 저어 볼 수 있다. 앞쪽에서는 전성표님께서 ‘뱃노래’ 를 부르신다.

짱안 관광구역에는 약 50개의 동굴이 분포하고 있으며, 관광용으로는 15개 동굴이 개방되어 있다. 수로는 대부분 동굴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총 길이는 30km 정도 된다고 한다. 간혹 함께 가던 다른 그룹의 배들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삼판배 코스가 3개나 된다고 한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계절, 코스도 경험해 본다면 좋을 것 같다. 어느새 삼판배 선착장이 가까워졌다. 시계를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간 걸 그제야 알 수 있었다.

공식적인 2025년 해외문화탐방의 주요 행선지는 닌빈, 쩡안의 삼판배로 마무리가 되었다. 저녁식사와 공항으로의 이동을 위해 하노이로 다시 이동 하였고 잠깐의 현지 기념품점을 방문하고 저녁식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베트남 한국 대사관 앞을 지나게 되었다. 현대적인 건축양식에 곡선이 두드러져 보인다. 가이드의 설명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실내에서 쓰던 관모인 ‘정자관’의 형상과 기와지붕의 곡선을 조화롭게 표현하였다고 한다.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여 인원 점검, 출국 수속, 탑승까지 인솔자로 정신이 없다가 비행기가 지면을 박차고 날아오르니 5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됨을 느끼게 되었다. 여행은 항상 마지막에 여운과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웅장한 자연과 소박한 소수민족의 삶을 볼 수 있었던, 베트남 북부 사파

25년 해외문화탐방을 마치며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초봄의 쌀쌀한 새벽공기를 마시니 한국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느끼며, 피로가 몰려 왔다. 횡성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모두들 피곤하셨는지 조용함 속에서 베트남에서 촬영한 사진을 정리하고 있으려니, 벌써 여행기간의 일들이 그리워지는 것만 같았다.

2025년 베트남 해외문화탐방 내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줬다. 여행은 단순히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사람, 자연이 서로 얹히며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체험’하는 값어치를 가늠할 수 없는 소중한 이라는 것. 사파의 구름 위 풍경, 짹 마을의 사람들, 판시판 산의 거친 바람, 탁박 폭포의 물소리, 함롱산에서 내려다본 풍경, 닌빈-짱안의 신비로운 물질.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남았다.

황성에 살다



구 태 숙
황성문화원 문예창작반

무심코 지나치던
고속도로 표지판

우연히 방향 틀어
자리 잡은 십여 년

내 노년 정착한 곳은
읍마북로 13번지.

바람이 말을 걸고
별빛이 속삭인다

섬강이 손짓하고
태기산이 부른다

내 어찌 떨쳐 버리고
벗어날 수 있을까.

청태산 숲



만초 박성건
황성문화원 문예창작반

새들의 노래소리 아침이 열리면서
풀벌레 짝을찾아 사랑놀음 한창이니

바람도
가지를 스치며 결눈질로 보고간다.

잎들이 춤을 추고 풀들도 노래하게
누구나 환영하는 청태산 숲속에서

어느새
바람이 되어 오는손님 맞는다

도라지 꽃

영롱한 흰색 종과
요염한 보라색 종

바람에 흔들려서
아름답게 울린다

종소리
울리는 산골
물소리도 곱구나



변 경 수
횡성문화원 문예창작반

솔향기



윤 현 수
횡성문화원 문예창작반

솔향기 내몸속에
나쁜기운 몰아내고

그윽한 하늘나가
꿈처럼 느껴지네

언제나
우리 곁에서
너의 향을 펼치거라

우리마을



하 봉 수
횡성문화원 문예창작반

주천강 안개속에
빛나는 노들 교각

지장사 풍경소리
노스님 염불소리

강림숲
삼형제 바위
이웃들도 화목해

지렁이 농부



손 평

황성문화원 문예창작반

지렁이 농부가 산밭을 갈았나 봐
들풀도 들꽃도 소담하게 피어났네
아무도 모르게 살짝
산밭을 갈았나 봐.

보섭보다 더 깊게 땅속을 갈았나 봐
척박한 묵정밭을 옥토로 만든 농부
그리곤 피곤하다며
잠시 쉬고 있나 봐.

가을들판

누구의 작품인가

누구의 피땀인가



황 정 열

횡성문화원 문예창작반

저 넓은 초원 위에

저 넓은 대기 위에

눈으로

보기만 해도

행행한 오곡백과

노을



박 기 순
형성문화원 문예창작반

색 바랜 단풍잎이 책갈피에 꽂혀있네
울긋불긋 화려한 색 어디로 날아갔나
서편에
노을이 되어 나를 보고 있구나

수많은 오묘한 색 모이고 모여들고
저마다 앞다투어 치장하고 있기에
이토록
휘황한 빛으로 유혹하고 있구나

저녁놀 바라보니 온갖추억 보인다
무슨장면 봤기에 쿵쿵뛰는 이 가슴
야릇한
마음이 들어 흥시되는 내얼굴

노을은 불타버리고 밤의 적막 오리니
하나 둘 내려놓아 가벼워진 이 마음
그리워
그리워해도 다시 올 수 없어라

바람의 심술



진 광 수

횡성문화원 문예창작반

달님이 길을 가다
감나무 과수원에서
홍시의 고운 얼굴
미모에 반해 버려
나무에 몰래 올라가
홍시볼에 뽀뽀뽀

질투심 많은 바람
어디서 보았는지
말없이 달려와서
가지를 흔들 흔들

그것을 본 달님은 바람을
멈추라고 애원합니다

빙열



이 정 례
횡성문화원 문예창작반

열기에 냉기 타며 몸사른 살결위엔
흙과 불의 맥박따라 피어난 시간무늬
달빛도 미끄러지는 숨뿜는 곡선 하나

유약은 뼈를 녹여, 온기를 품게하고
균열은 속살깊이 인내를 새겨넣어
지나간 혼잣말들을 빗금으로 숨졌다

허공을 품은 그릇, 비움의 교훈 담고
나직한 깊은 숨결 안으로 퍼져간다
텅빈 채, 달빛 아래서 맑게 웃는 백자여

* 빙열 : 도자기를 구운 후, 식으며 온도변화로 유약 표면에 미세한 금이 생기는 현상.

태산(泰山)에 올라



조 윤 진
횡성문화원 문예창작반

태산은 하늘 높이 구름 위 솟아나고
바람을 벗 삼아서 산마루 올라 보니
봉마다 신비한 선경 발걸음이 멎는다

오악(五岳)의 으뜸이라 우뚝 선 오악독존
진시황 전한 무제 천제를 지내던 곳
세상의 전설이 되어 천년만년 간다네

옥황봉 반석 위에 옥황정 영험하고
공자묘 근엄하며 벽하사 신비한데
유불도 선인들 성지 사방팔방 별천지

공자님 발자취에 시선 이백 시성 두보
달빛에 시를 읊고 큰 뜻을 품던 태산
누구나 일평생 한번 올라 보고 싶은 곳

오악독존(五岳獨尊): 중국 명산 오악 중 최고라는 뜻
옥황봉(玉皇峰): 태산의 정상(1545미터)
玉皇頂(옥황정:옥황묘): 옥황상제 모신 곳
벽하사(碧霞祠): 태산의 여신 벽하원군 모시는 사당
유불도: 유교, 불교, 도교

어머니 마음



한 명 레
횡성문화원 문예창작반

어머니 생각하면 죄송한 맘 먼저와요
잘자란 내아들 기다리도 서운해도
간만에
와준것만도 기특하고 대견해요

해준 것 하나없이 환하게 자란아들
서먹해 하면서도 빙그레 웃음짓고
어머니
건강만 하세요 신신당부 내아들

불혹을 넘어서니 이제사 철듭니다
자녀들 잘되라고 얼마나 빌었을까
수없이
울고 울었을 씩씩했던 어머니

태기산 상고대



이 향 수

횡성문화원 문예창작반

태기왕의 한이 아직도 남아
옛 성터 나뭇가지에
상고대가 피었는가

이천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라를 잃었던 망국의 한은
저토록 가슴에 사무치는가

사리 같은 서리꽃
햇살을 받으니
산호처럼 빛나다가
무엇이 그리 슬픈지 스르르
녹아 버린다

태기산의 상고대는
슬픔과 여한이 응고된
얼음으로 핀 꽃
그렇그런 눈물이
진주처럼 빛나는 얼음꽃

네 줄 사랑, 그 아름다움 울림을 위하여

- 장애인 음악회 합주를 보면서 -

은은히 울리는
네 줄 사랑의 메아리는
잠든 영혼을 깨운다

얼어붙은 동토(凍土)의 땅을 녹이는
봄바람의 손길같이
부드러움과 정겨움으로
온 누리에 소망이 오게 한다

마법이 걸려있는 성에서
잠자는 공주님을 깨우는
백마 탄 왕자님 같이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한
네 줄 사랑의 정겨운 울림은

장애로 얼룩진 장애우의 가슴 마다
새로운 꿈과 소망을 전해주며
봄 동산에 새싹이 자라나듯
그들의 꿈을 푸르게 더욱 푸르게
이끌어 주고 있다.



시인 김 성 수

횡성문화원
문예창작반 강사

불편한 몸에서도
연주가 나오고
어눌한 입에서도
노래가 나온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네 줄 사랑의 연주

빗방울이 모여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
우리 모두의 사랑과 연민(憐愍)이
저토록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나니
그 울림 영원하iera
그 정성 자극하iera

네 줄 사랑의 울림은
소리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다
송이송이 고운 영혼의 꽃이다
그 영원한 유토피아의 염원을 위하여
우리 모두 네 줄 사랑의 울림 속에
하나가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 모든 꽃들이 어울려 피는
아름다운 꽃동산 같이....

V

문화사업실적



2025 문화사업일적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2025. 2. 11.(화)]

횡성문화원은 새해 우리민족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횡성군민의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전통민속놀이 재현과 체험을 통하여 고유의 민속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통문화를 보전·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교항리 전천 둔치에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및 민속놀이 행사를 마련하였다. 금년의 경우, 정월대보름 당일(2. 12.) 눈, 비에 의한 기상악화로 1일 앞당겨 행사가 진행되었다.



4.1횡성군민만세운동 106주년 기념행사 [2025. 4. 1.(화)]

횡성문화원은 제106주년 4.1만세운동을 맞이하여 삼일공원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4.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난 범민족항일운동으로 횡성에선 1919년 3월 12일부터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고 3월 27일 첫 만세운동을 벌였고, 이 후 4월 1일과 4월 2일 3차에 걸쳐 횡성읍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구)축협 앞, 만세공원에서부터 삼일공원까지의 시가행진을 시작으로 진혼무 공연, 헌화 및 분향 등을 유공자 후손들과 내외빈을 초대하여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식후 행사로는 횡성문화원 발표회에서 ‘3.1운동과 횡성군민만세운동’을 주제로 관내 학생 대상의 토크콘서

트를 진행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흥성군민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5 해외문화탐방

1차 : 2025. 4. 7.(월) ~ 4. 11.(금)

2차 : 2025. 4. 14.(월) ~ 4. 18.(금)

3차 : 2025. 11. 10.(월) ~ 11. 14.(금)

흥성문화원은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문화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문화원회원을 대상으로 베트남 사과를 3박5일 동안 방문하여 문화탐방을 계획하였다. 문화원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희망으로 참가자 수를 늘려, 1·2·3차에 걸쳐서 탐방이 진행되었으며, 흥성문화원은 베트남에 대한 이해와 양국의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베트남 사과 : 갯깁마을



베트남 사파 : 판시판산



베트남 사파 : 함종산



베트남 쩡안



2025년 횡성문화원 해외문화탐방 : 베트남 사파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 1차 [2025. 6. 19.(목)]

횡성문화원에서는 문화사랑방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회원과 문화학교 수강생 100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철원군 안보유적지 일원을 방문하여 전통문화 현장학습을 실시하였다. 횡성문화원은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한 문화유산 등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철원 주상절리길



철원 햇불전망대



철원 노동당사

내 고장 문화유적지 탐방 [1차 : 2025. 6. 24.(화) / 2차 : 2025. 6. 27.(금)]

횡성문화원은 지역 문화 발전과 향토문화진흥을 위하여 남춘어르신대학 및 횡성읍 읍상3리 경로당 주민을 대상으로 횡성 관내 및 인근지역 향토문화유적지인 풍수원성당과 용문사 탐방 행사를 실시하였다. 횡성관내 문화유적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내 고장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여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 [2025. 9. 4.(목)]



횡성문화원에서는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숨겨진 끼와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2025 횡성 어르신 노래자랑」을 횡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개최하였다. 18팀의 참가 가운데 본선에서 5팀을 입상자 선정하여 시상 및 부상을 수여하였다.



제30회 강원특별자치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2025. 9. 11.(목)]

황성문화원은 강원특별자치도내 시·군 사물놀이단(일반부 및 청소년부)의 경연의 장을 통해 전통민속문화의 계승과 재창조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30회 강원특별자치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강원의 울림 30년, 전통과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 ‘어사매풍물’이 웃다리풍물 가락으로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항일의병 위령제 및 산사음악회 [2025.9.20.(토)]

횡성문화원은 항일의병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위령제 및 산사음악회를 횡성의 천년고찰 봉복사에서 진행하였다. 산사음악회에서는 색소폰, 진혼무, 국악, 성악, 우쿨렐레, 첼로, 하모니카, 대중가요 및 합창 등 다채로운 음악회를 구성하였다. 횡성문화원은 항일의병의 발자취를 되짚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통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관의 전통문화 현장학습 2차 [2025. 9. 30.(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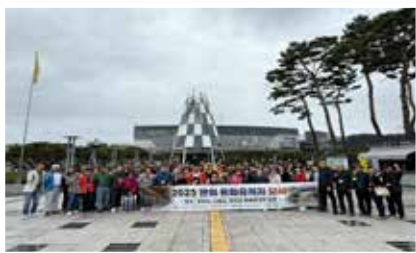
횡성문화원에서는 문화사랑방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회원과 문화학교 수강생 100명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영동군 일원에서 진행된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방문하여 전통문화 현장학습을 실시하였다. 횡성문화원은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한 문화유산들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관외 전통문화 현장학습 2차 : 충북 영동군 일원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 [2025. 10. 14.(화) ~ 10. 15.(수)]

횡성문화원에서는 향토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회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진주·합천, 경상북도 고령 문화유적지 일원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여 문화유적지 답사를 실시하였다. 횡성문화원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폭넓게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진주시 청동기문화 박물관



진주시 진주성, 국립진주박물관



합천군 해인사



고령군 고령대가야박물관, 지산동고분군

2025 횡성한우축제 : 전통국악한마당 [2025. 10. 23.(목)]

횡성문화원은 2025년 횡성한우축제 기간, 우리 민족의 정서와 흥을 담아내는 음악과 춤의 향연을 공연에 담아 내어 국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횡성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흥겨운 행사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25 전통혼례(회혼례) [2025. 10. 25.(토)]

횡성문화원은 신식 결혼식이 보편화 되어 있는 현대에 제21회 횡성한우 축제 기간, 전통혼례를 재현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고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금년의 전통혼례는 신랑, 신부의 결혼 60년을 해로하는 회혼례로 그 의미를 더하였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전통문화행사를 통해 세대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전통국악예술대공연 [2025. 11. 11.(화)]

횡성문화원은 지역문화발전과 향토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통예술을 초청·공연함으로써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급을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 문화 복지사회를 향상 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전통국악예술대공연은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여 사물놀이, 아리랑연곡, 부채춤 및 태평무, 판소리(춘향가), 남도민요 대금산조, 가야금병창과 창극 ‘뽕과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횡성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2025 강원문화대축전 [2025. 11. 27.(목)]

횡성문화원은 문화원의 적극적 동창·정보교류·상생발전을 추구하는 축제의 장으로 양주군에서 개최된 「2025 강원문화대축전」에 참가하여 문화원의 사회적 역할과 순기능적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문화동아리의 자부심 고취와 학습결과의 사회 환원적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횡성문화원 비바색소폰 앙상블을 소개합니다.

1. 동아리 창단 계기와 연혁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4월 허만봉단장을 비롯한 13명의 단원들이 뜻을 모아 색소폰 앙상블을 만들어 지역사회 축제와 행사에서 공연을 하며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보여주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며, 노후의 삶에 보람을 갖고 음악봉사하며 살고자 창단



2. 동아리 이름의 의미나 특별한 뜻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비바란, 만세라는 뜻으로 기쁨과 행복한 노후를 색소폰을 즐기며 찾자는 뜻

3.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나 경험은 무엇인가요?

횡성한우축제, 둔내토마토축제등 지역축제 다수 초청공연

그간 연습한 기량을 군민체육대회 초청 다수의 공연 및 매년 정기 연주회 개최. 지역주민들에게 발표하며 칭찬과 격려를 받고 횡성 유일의 앙상블 팀으로 실력을 인정 받고 있는 점





4. 동아리에서 연주하는 음악 장르는 어떤 편인가요?

골고루 하는 편입니다. 쉬운 클래식음악부터, 영화OST, 발라드, 7080음악, 트로트, 올드팝송등 다양한 장르를 연주합니다.

5. 색소폰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나요?

처음 배우는 분은 선생님의 개인지도나 학원등에서 기본기를 닦은 후 오셔야 따라 올 수 있습니다.

6. 동아리 활동이 회원에게 어떤 의미나 변화를 주었나요?

노후 삶의 기쁨, 즐거움을 주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7.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더 발전해서, 팝스오케스트라로 키우고 싶습니다.

올해도 군민체육대회와 정기공연이 남아 있고 둔내토마토축제 폐막식 공연도 성공리에 맞춰 잘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남아 있는 큰행사, 군민체육대회공연, 특히 11월초에 있는 정기연주회 관람 부탁드립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2025. 3. 10. ~ 12. 5.]

횡성문화원은 매년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제26기 횡성문화원 문화학교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감성 계발 및 지식기반을 창출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으로 사회적 역량을 높여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2025년도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현황〉

강좌명	강좌내용	강사명	교육기간
서예(한글)	서예 한글 필법	주희금	3. 10. ~ 12. 5.
서예(한문)	서예 한문 필법	천금용	“
서예(문인화)	문인화 필법	김기봉	“
문예창작	문예창작 창작 기초 및 실기	김성수	“
한국화	한국화 기초 및 실기	이정자	“
사물놀이(주간)	장구, 북, 징, 팽과리 사물연주	김혜숙	“
사물놀이(야간)			
국악(판소리)	국악가락 및 창법	박양순	“
한국무용(기초반)	한국무용(기초) 춤사위 실기	김영아	“
한국무용(중급반)	한국무용(중급) 춤사위 실기		
실버에어로빅	건강체조 실기	조미경	“
가야금	가야금 기초기법 및 가락	이영	“
우쿨렐레	우쿨렐레 연구 기법	차현정	“
생활영어	생활영어 및 여행영어 기초	송혜영	“
난타교실(야간)	난타 기초 및 퍼포먼스	최영아	“
서각기초교실(야간)	전통서각, 현대서각, 죽공예 기초	곽현주	“
색소폰(야간)	색소폰 기초 및 연주기법	김종은	“
하모니카(야간)	하모니카 기초 및 연주기법	최정하	“
기타(야간)	기타 기초 및 연주기법	김수용	“
합계	19개 과목		32주

2025년도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수업



서예(한글) 교실



서예(한문) 교실



서예(문인화) 교실



문예창작 교실



한국화 교실



국악(판소리) 교실



한국무용(기초/중급) 교실

2025년도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수업



실버에어로빅 교실



가야금 교실



우쿨렐레 교실



생활영어 교실



난타(야간) 교실



서각기초(야간) 교실



사물놀이(주간/야간)반

2025년도 황성문화원 문화학교 수업



색소폰(야간) 교실



하모니카(야간) 교실



기타(야간) 교실

서예(한글)반

- ▶ 대한민국서예전람회 : 입선 3명
- ▶ 한국민족서예대전 : 특선 2명 / 입선 3명
- ▶ 강원서예대전 : 특선 3명 / 입선 5명
- ▶ 사비성(부여)전국공모전 : 특선 1명 / 입선 3명
- ▶ 대한민국제물포서예대전 : 삼체상 2명 / 특선 1명
- ▶ 대한민국서예술대전 : 삼체상 1명
- ▶ 세종한글서예대전 : 특선 및 입선 1명
- ▶ 한국전통서예대전 : 특선 및 입선 1명

서예(한문)반

- ▶ 강원서예대전 : 초대작가 등단 2명 / 특별상 1명 / 특선 2명 / 입선 5명

서예(문인화)반

- ▶ 탄허전국대회(월정사) : 우수 1명 / 장려 2명 / 특선 3명 / 입선 5명
- ▶ 마한서예문인화대전 : 장려상 1명 / 특선 1명 / 입선 1명
- ▶ 평창회화대회 : 특선 2명 / 입선 3명
- ▶ 사비서예대전(부여) : 특선 2명 / 입선 11명
- ▶ 석보한호선생전국회화대회 : 최우수 1명 / 특선 1명 / 입선 1명

문예창작반

- ▶ 강원문화 작가상 : 1명
- ▶ 완전공감 단시조 문화상 : 동시조 대상 1명 / 동시조 금상 1명 / 단시조 금상 1명
- ▶ 강원시조 신인 문학상 : 금상 1명
- ▶ 박인환 문학제 전국 백일장 : 장원 1명 / 차하 1명

한국화반

- ▶ 한얼문예박물관 특별대전 : 특선 2명 / 입선 2명
- ▶ 국제한얼문화예술대전 : 특선 1명
- ▶ 강원전통문화예술협회 : 특별상 1명 / 특선 1명 / 입선 2명

서각(아간)반

- ▶ 한서미술협회 추천작가 : 2명
- ▶ 한서미술대전 추천작가 : 1명

작은영화관(횡성시네마) 운영

작은영화관인 횡성시네마는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영상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2월 개관하였다. 개관 이후 꾸준히 지역 문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25년 11월 말 기준 누적 관람객 수가 30만 8천 명을 넘어서는 등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횡성문화원에서는 횡성여성 문화의 날 사업의 일부인 「횡성여성 무료 관람 지원사업」을 5년째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관내 여성 주민들에게 무료 관람을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문화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여성들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는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내 여성들로부터 꾸준히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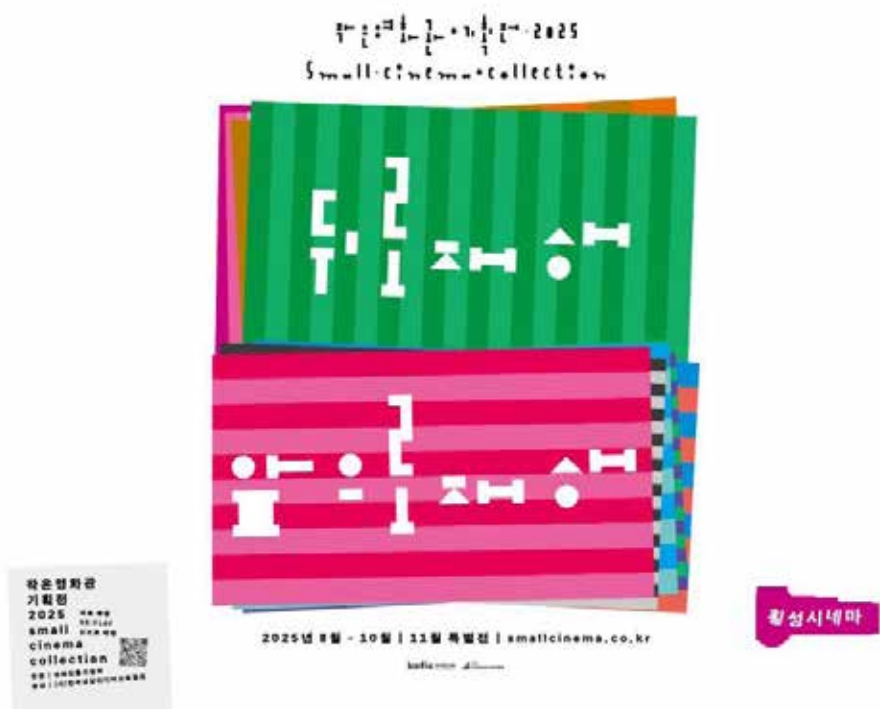
‘2025 작은영화관 기획전’ 개최

「작은영화관 기획전」은 지역민의 영상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영화 관람 및 영상문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12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전국 단위의 영화제이다.

2025년 기획전은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가 주관하여 ‘뒤로재생, 앞으로 재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올해 기획전 공모에는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27개 작은영화관이 신청하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15개관의 기획전이 최종 선정되었다.

횡성시네마는 8월부터 11월까지 고전영화 및 독립·예술영화 등 총 20여편을 상영하였으며, 총 31회차의 기획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4회 개최하여 유아 대상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약 900여 명의 주민이 무료 관람 혜택을 누렸으며, 비상업영화 상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복지 실현과 영화 관람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상영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폭넓은 연령·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그림책 콘서트’와 상영관 내 ‘그림자 놀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영화를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보고 즐기는’ 체험형 문화 활동으로 확장하였다.

‘2025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 진행

2025 새정부 추경예산  정부지원 국민 영화관람 할인권

극장아, 여금을 부탁해

영화관람료

6천원

할인

할인으로 더 시원해지는 한여름의 영화 바람스,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kofic  황성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은 침체된 영화관 시장의 회복과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 촉진을 통해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고, 증가하는 영화 관람 수요에 따른 투자·제작 활성화를 유도하여 영화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전국 영화관을 대상으로 총 270억 원 규모의 입장료 할인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황성시네마는 기본 관람료 7,000원 중 6,000원이 할인권으로 지원되어 관객이 1,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본 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약 4,233명의 관람객이 할인 혜택을 누렸다.

횡성문화 통권 제40호 편집후기

횡성문화가 통권 제40호에 이르기까지, 횡성문화원은 지역의 역사와 숨결을 지면 위에 담아내며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어 왔습니다.

40호라는 숫자는 단순한 권수를 넘어, 오랜 시간 동안 지역문화의 가치를 지켜 온 많은 분들의 노력과 애정이 켜켜이 쌓인 의미 깊은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향토문화는 지나간 흔적이 아니라 현재를 이루는 기반이며, 앞으로의 횡성을 만들어 갈 귀중한 자산입니다.

전통과 기록을 지키고,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는 일은 우리가 지속해야 할 공동의 책무이자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중요한 유산입니다. 횡성문화원의 걸어온 길은 단순한 연혁이 아니라,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함께해 온 많은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 낸 역사입니다.

이번 호 또한 그분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더욱 풍성하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필진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집필에 힘써주신 편집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횡성문화』가 지역을 담아내는 소중한 기록지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 12.

횡성문화 통권 제40호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 병 곤

횡성문화 통권 제40호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 이병곤
- 편집위원 : 현원명, 김영배



2025횡성문화 (통권 제40호)

발행일 _ 2025.12.24

발행처 _ 횡성문화원 ☎ (033) 343-2271

발행인 _ 우광수

기 획 _ 민준식

디자인·제작 _ 서원기획 ☎ (033) 343-2404

※본 책자는 비매품입니다.

※본 책자의 일부 내용은 횡성문화원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